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 고경

2569(2025). 4. 제144호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성철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굳이 ‘뱀의 발(蛇足)’을 붙이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반야지혜로 공성空性을 깨달아 ‘존재의 참 모습[實相]’을 확실하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해당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방편에 해당되고 자기 이외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利他입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샅되기 쉽고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로우나 무미건조해 자기와 타인을 그다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윤회와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리와 이타를 실천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고경』의 목표입니다. 古鏡

## 古鏡

**고경古鏡**이라는 말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本智本明]’를 뜻합니다. 『벽암록』 제28칙 「송 평창彌評峯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備等諸人, 各有一面古鏡, 森羅萬象, 長短方圓, 一一於中顯現. 備若去長短處會, 卒摸索不著**[여러분 각자는 하나의 옛 거울을 가지고 있다. 삼라만상의 길고 짧고 모나고 둥근 것이 모두 거울 속에 비친다. 그대들이 만약 (거울에 비친 영상을) 찾아가 길고 짧은 곳을 알려 하면 결국 (그 거울을) 찾을 수 없다.]” 『사가어록·동산록』 「감변·시중」(선림고경총서 제14권 『조동록』, p.83)과 『설봉록』 하권(선림고경총서 제19권, p.134-137)에도 ‘고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 ‘부처님께 밥값 했다’는 성철스님 법문의 진수

성철스님은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을 출간하시고 “부처님께 밥값 했다.”고 자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 두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선의 바른길’을 밝힌 역작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선종의 정맥과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을 설파한 성철스님의 육성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BTN불교TV 방송시간 안내



제 6대 조계종정 성철스님 **선문정로** 강설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길



**첫방송**

03월 12일(수) 14:00

**본방송**

매주 수요일 14:00

**재방송**

본방주 금요일 20:30 / 본방주 토요일 22:30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02 - 3270 - 3300 BTN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방송포교후원으로 제작됩니다

BTN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례

# 古鏡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 고경

월간 『고경』

제144호

2025년 4월 발행  
2013년 5월 창간

- 004 **목탁소리**\_원택스님  
봄의 윤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시길
- 012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 4**\_성철스님  
부설거사 사부시 강설
- 021 **세계불교를 만들어 낸 불교의 바닷길 4**\_주강현  
불교전파와 바다 상인들의 힘
- 030 **현대문학 속의 불교 4**\_김춘식  
『님의 침묵』 타고 100주년,  
‘유심’과 ‘님의 침묵’ 사이
- 039 **바위에 새긴 미소 4**\_양현모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 040 **세계불교는 지금 27·인도 ①**\_심재관  
현대 인도불교의 부활과 과제들
- 050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4**\_오강남  
깨달음의 복음을 전한 도마
- 058 **작고 아름다운 불교의례 8·마지 ②**\_구미래  
불단과 각단에 오르는 마지 변주곡
- 069 **돈황, 사막이 숨긴 불교미술관 8**\_김선희  
막고굴 <법화경변상도>
- 078 **설산 저편 티베트 불교 28**\_김규현  
구루 린뽀체의 오도처 파르뽕의 동굴
- 087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16**\_허남결  
‘도덕적 무지’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
- 095 **원철스님의 디카詩 38**\_원철  
돌쇠

- 096 불교로 읽는 서유기 16\_ 강경구  
여섯 도적과 머리테 죄는 주문
- 105 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16\_ 이종수  
생불을 자처하며 역모를 꾀한 요승들
- 115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 27\_ 박성희  
봄빛 담은 망경산사의 사찰음식
- 124 신행 길라잡이 16\_ 일행스님  
집중한다는 것과 업장소멸
- 133 거연심우소요 54·대흥사 ②\_ 정종섭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 도량
- 148 붓다·원효·혜능·성철에게 묻고 듣다 16\_ 박태원  
불립문자와 언하대오의 발원지 붓다

###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 158 한국선 이야기 16·한국선의 정립, 보조지눌의 선사상 ③\_ 김방룡  
다섯 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
- 167 중국선 이야기 49·운문종 ④\_ 김진무  
운문삼구, 한 개의 화살로 삼관을 모두 뚫다
- 176 일본선 이야기 16\_ 원영상  
5산문학의 최고봉 젓카이 추신의 선사
- 185 백련마당\_ 편집부  
연등글로벌네트워크, 룸비니에서 의료봉사 활동
- 190 후원 명단
- 192 후원 신청서

2013년 4월 11일 신고, 신고번호 종로 라00406

『고경』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전제 및 무단복사를 금합니다.

『고경』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봄의 윤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시길



원택스님\_ 발행인 겸 편집인

---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고 심기 불편한 겨울을 지나 봄꽃이 만개하는 시절이 되어서야 목탁소리를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 소남은 왼쪽 무릎 수술과 재활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희망과 좌절의 술래잡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난해 봄인 듯싶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왼쪽 무릎이 무거워지면서 통증 비슷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며 참고 살았는데, 지난해 가을에는 좌복에서 일어나거나 구부릴 때 어찌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일어나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통증이 퍼져 나갔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 시자를 앞세우고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로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선 무릎 X레이 사진부터 찍고 오라고 하더군요. 5만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X레이를 찍고 의사 앞에 앉으니, “X레이로는 아파하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 MRI를 찍고 다시 의논을 드려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MRI 촬영실을 찾아가니 X레

이 찍는 곳과는 사뭇 다르고, 무엇보다 비용이 X레이 값의 11배나 되어  
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MRI를 찍고 다시 담당의를 만나 인화된 사진을 보니 X레이에서는 보  
이지 않던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여서 촌놈 식견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진 속에 드러난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 가며, “뺏속의 병  
증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병증이 멈출 수도 있습니  
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을 복용하면서 부지런히 관리해 주십시오.” 하면  
서 하루에 두 알 먹는 알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그런데 처음 한 달은 무사히 넘어가다가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  
점 무릎이 불편해져 마침내 지팡이를 짚어도 뒤뚱거릴 정도가 되었습니  
다. 통증도 심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많다 보니 상좌들  
도 말은 못 하고 내심 꽤나 걱정을 했던가 봅니다. 그리하여 상좌들과 무  
릎 수술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성철 종정예하의 열반 31주기  
참회법회와 추모제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23일 분당에 있는 티케이정형  
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곤 이틀 후 첫 타임에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김태균 원장은 “척추 사진으로 보면 스님 척추뼈가  
건강하지 못하고 엉겨 있어서 부분 마취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얼마나 다  
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부분 마취와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시면 됩니  
다. 편안히 한잠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1. 백련암에서 필자.

얼마나 지났을까? 박수 소리가 들려 문득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서 웬 박수냐고 했더니, 예정된 시간 안에 수술을 무사히 마쳐서 수술팀이 축하한다며 친 박수라고 알려줬습니다. 환자실로 옮겨져 3일 동안 집중치료를 받고, 5일 만에 일반실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 수술한 무릎의 실밥을 제거하니 23cm 가량의 수술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 오금이 당도록 재활치료를 받다

백련암에서 며칠을 머물고 좀 더 확실하게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 고심정사로 내려가 소개를 받아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서울재활의학과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니 “수술은 서울에서 잘하고 오셨으니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쯤 재활치료를 받으십시오. 오전에는 여성 물리치료사가 오후에는 남성 물리치료사가 각각 역할을 맡아 치료할 터이니, 마음 놓으시고 편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성 물리치료사가 문제였습니다.

“스님, 무릎 각도를 재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스님. 스님께서 절에 들어가 좌선을 하시려면 무릎이 90도로 꺾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잣대로 재어 보니 겨우 30도밖에 꺾이지 않잖아요. 무릎 뒤쪽 오금이 짝 펴지고 바닥에 수평으로 닿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스님들도 여러분 다녀가셨고 성공적으로 무릎을 꺾으셨습니다. 저는 스님 무릎 치료가 최우선이지 다른 생각은 없으니 아프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고생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하여 매일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물리치료를 받는데, 말하자면 여성 물리치료사는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수술한 무릎을 핀다고 뿔는데 오금이 바닥에 닿지 않고 그만큼 앞으로 불룩하게 솟아 있으면 여성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되면 선방에서 어떻게 참선을 하실 수 있겠어요?”라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서는 무심히 있는 듯하다가 불룩 솟은 무릎을 있는 힘껏 내리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악!!!” 소리도 못 내고 어금니를 꼭 깨물고 그 순간의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사정없는 그 치료사가 어찌나 야속하고 밍던지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누구라도 찾아오면 그 여성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첫 번째 화제로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문자는 “그렇지요” 하면서 동의를 하는 듯하다 떠날 즈음이면 “스님, 지금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여성 물리치료사를 최고의 재활치료사로 인정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결에 콧 내리누르는 고통이 컸지만 횃수를 거듭할수록 고통은 줄어들고, 어느 날인가는 오금이 땅에 닿는 기분이 들어 속으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인상을 찌푸리며 여성 물리치료사를 짜려보았던 때가 떠올라 무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치료를 받고 고심정사로 돌아오니 몸도 마음도 얼마나 활기분했는지 모릅니다.

## 수행으로 마음을 키우듯 몸도 살피는 한 해

고심정사로 돌아온 날, 재활병원에서 30여 일간 꼼짝 않고 지내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기억이 새롭기도 하고 어떤 자신감도 생겨 고심



사진 2. 다시 봄빛이 도는 가야산을 바라보며.

정사 법당 삼존불 앞에서 합장하고 삼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끈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좌복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무릎이 부드럽게 꺾어지며 아무 고통 없이 삼배를 드리고 나니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동쪽 편 벽면에 모셔져 있는 성철 종정예하의 진영에도 삼배를 거뜬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걱정하던 염려는 어디로 가고 수술에서 재활치료까지 2개월여 만에 바로 삼존불과 큰스님 진영에 자연스럽게 삼배를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감격 감격이었습니다.

고심정사에서 지내다가 좀 더 다리 근육과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겹외사로 갔습니다. 매일 찬 강바람을 맞으며 일정한 양의 걷기를 하

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다군요. 걷기 연습에 더하여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진주굿모닝재활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30분은 전기물리치료, 30분은 도수치료를 곁들인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통지 들기 등 기본형 맨손체조를 배우는 데도 몸이 영 말을 듣지 않아 무척 답답했습니다. 모든 관절이 굳어 있는 듯, 제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돌아보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래 근육을 키운다거나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란 걸 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사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숨쉬기운동 말고 맨손체조라도 꾸준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한편으론 지난겨울부터 올 3월까지 『고경』의 목탁소리 원고 독촉을 피하는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재영 원장이 『고경』의 독자분들이 스님 소식을 무척 궁금해하고 스님 글을 기다리고 있다며 원고를 부탁해 왔습니다. 하여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글을 신지 못한 연유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소납은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젠 다리에 힘도 붙고 혼자서도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행을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지금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안하고, 국민 경제가 걱정되어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가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계다가 자연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여 나무와 꽃들이 윤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고경 독자분들도 그 속에서 힘을 찾는 슬기로우음을 가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卍

#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성철대종사의 법어집

## 쉬운 말로 만나는 성철스님의 가르침

**자기를 바로 봅시다**

퇴옹성철 | 15,000원

**영원한 자유**

퇴옹성철 | 13,0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 6,000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퇴옹성철 | 6,000원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퇴옹성철 | 6,000원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스님 엮음 | 12,000원

**이뤄꼬**

퇴옹성철 | 6,000원

## 선교와 불교사상의 정수를 밝힌 성철스님의 법어집

**백일법문(상·중·하)**

퇴옹성철 | 각 권 15,000원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

퇴옹성철 | 15,000원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본지풍광 설화)**

퇴옹성철 | 38,000원

**성철스님의 임제록 평석**

퇴옹성철 평석, 원택스님 정리 | 25,000원

**성철스님의 신심명·증도가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 성철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원택스님 | 18,000원

**성철스님과 나**

원택스님 | 9,000원

**성철스님의 짧지만 큰 가르침**

원택스님 엮음 | 5,000원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

원택스님 책임편집 | 13,000원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 42,000원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 13,000원

**성철스님의 책 이야기**

서수정 | 15,000원

## 부설거사 사부시 강설



성철스님 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6·7대 종정

부설거사浮雪居士 사부시四浮詩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잘 아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만날 이론만, 밥 얘기만 해 놓았으니 곤란하다 말아야. 사부시 이것은, 잔소리같이 들으면 싱겁지만 지금 보면 참 좋은 꿀 같은 맛이 있어. 꿀을 먹으면 웬만한 병이 다 안 날아가? 사부시라는 것이 원래 유명하거든. 그러니 조금만 양념으로 이것도 해 보자 이거라.

### 처자권속삼여죽 妻子眷屬森如竹

처자 권속이 여러 수천 명이라, 식구가 어찌나 많던지, 버글버글하단 말입니다. 처자 권속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하겠지만 예전에 참 범려范蠡나 여불위呂不韋같은 복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가 한 100명이나 200명이 되었거든? 이러니 아들, 손자가 여러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말이야, 대종을 매달아 놓고서 밥 먹을 때마다 쿵 쿵 치거든. 큰 절에서만 종을 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온 식구가 우르르 다 모여 먹는단 말이야. 어떤 놈이 손자인지, 어떤 놈이 자식인지 그것도

물라. 실지로 그랬어. 그렇게 영화롭게 산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들 살았어. 밥 먹을 때 종 치고 사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산 사람들이라. 처자 권속이 삼여죽이라, 처자 권속이 대밭의 대처럼 짝 차 있다는 말이거든.

### 금은옥백적사구 金銀玉帛積似邱

금과 은과 옥과 비단이 산더미같이 짝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처자 권속이 삼여죽할 때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이 많으니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물려줄 재산이 쌓여 있거든. 금은옥백이 적사구가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사진 1. 부설거사의 이야기를 다룬 「부설전」, 사진: 디지털김제문화대전.



사진 2. 상단 법문을 하고 계신 성철스님.

### 임종독자고혼서 臨終獨自孤魂逝

임종에 이르면 드러누워 며칠 앓다가 기어이 숨이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면, 자기 혼(魂)만 갈 뿐이지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갈 수 있나, 그 많은 처자 권속을 데려갈 수가 있나? 결국은 자기 혼(魂)만 혼자 가버리고 말아. 저 혼자뿐이야. 그때가 가만히 다가오게 되면, 저 혼자 혼만 갈 뿐이지 아무리 좋은 처자 권속을 다시 볼 수 있나, 그 영화로운 금은옥백을 만져볼 수 있나, 그거 다 헛일이라. 그렇게 아꼈는데, 결국에 숨 떨어지

면, 혼이 지 혼자 지옥을 가던지 천당을 가던지 어디를 갈 때 말이야 일체 부귀영화란 것은 다 헛일이라 그 말이라.

### 사랑야시허부부 思量也是虛浮浮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 물거품같이 떠 있다가 금방 꺼져 없어져 버린다 말이며. 이걸 대강 알겠지요? 사랑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식 많은 것, 재물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 조조역역홍진로 朝朝役役紅塵路

아침마다 힘써 먼지 나는 길을 달려 다니고

### 작위재고이백두 爵位纔高已白頭

벼슬이 겨우 높아졌는데, 그때는 벌써 머리털이 허얌졌더라 이겁니다. 이걸 벼슬하는 얘기예요. 조조역역朝朝役役, 조조라 하니 아침에만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종일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벼슬이 높아져 장관을 했니, 대통령을 했니 하거든? 근데 보니 머리가 허얌져 버렸더라 이겁니다. 근데 머리만 허얌진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 염왕불파패금어 閻王不怕佩金魚

저 지옥에서 죄인을 단죄하는 게 염라대왕인데, 그렇지만 염라대왕은 ‘불파패금어’입니다. 금어金魚란 것은 벼슬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데, 금으로 만든 물고기를 준단 말입니다. 금을 가지고 만든 물고기 훈장을 받은 사람이 벼슬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무리 벼슬이

높아서, 금으로 만든 고기를 패패로 차고 오는 사람이라도 염라대왕은 그 사람 겁을 안 내. 죄지는 그대로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당 보낼 사람은 천당 보내지, 어떤 벼슬을 제시해도 절대로 안 통해.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는 벼슬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 사랑야시허부부 思量也是虛浮浮

그러니까 다시, 벼슬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앞에는 자손 많은 것, 재물 많은 것을 말했고 이번에는 벼슬 높은 걸 말했습니다.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나?

### 금심수구풍뢰설 錦心繡口風雷舌

금심수구錦心繡口는 비단 같은 마음과 수繡 놓은 입이고, 풍뢰설風雷舌은 바람과 우레같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심수구는 마음이 곱고 변론을 잘한다 이 말이라. 풍뢰설은 변론할 때 바람같이 시원하고 변재辯才를 우레같이 퍼붓는다 말이야. 결국은 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 천수시경만호후 千首詩輕萬戶侯

천수시千首詩란 문장, 글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문장을 잘 지어 천수시로써 만호후萬戶侯, 식읍食邑이 만호萬戶나 되는 제후諸侯도 가볍게 여긴다 말입니다. 글 잘하는 사람은 실지로 그렇거든? 그까짓 것 만승萬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내 글이 제일이지. 천수시로써 훌륭한 사람, 세력이 큰 제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결국 문장이 훌륭하고 구변이 좋다는 말입니다.

## 증장다생인아본 增長多生人我本

그렇지만, 억겁億劫 다생多生으로 생사의 근본, 인아人我的 근본만 증장시키는 일이란 말이야. 생사윤회의 근본만 더 증장된다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아무리 글을 잘해도 염왕閻王은 패금어佩金魚를 겁내지 않고, 임종臨終 때는 고혼孤魂이 저 혼자 가는 것인데, 거기 가서는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 사랑야시허부부 思量也是虛浮浮

그러니, 생각해 보니 이것도 덧없고 헛되더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간 일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식 많은 것, 둘째는 재물 많은 것, 셋째는 벼슬 높은 것, 넷째는 말 잘하는 것, 다섯째는 글 잘하는 것, 이것들을 가지면 세상에서 전부 다 가진 것이거든?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허부부 虛浮浮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이 되면 어떡냐? 중이 되어 세상 떠나 수행하는 것이 천하에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큰 허물이 있다.

## 가사설법여운우 假使說法如雲雨

설사 법문이 구름을 타고 비 오듯이 한단 말입니다. 말이 나오기만 하면 하늘에서 우박 쏟아지듯이 끝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찌 법문을 잘 하는지, 일체 경을론을 통달해 가지고 법문이 나오면 우박 쏟아지듯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 감득천화석점두 感得天花石點頭

그리고 또 어찌냐? 법문을 하도 잘하니까 하늘이 감득感得하여 꽃비가 오고, 꽃이 막 떨어지고, 석점두石點頭야. 그전에 중국에 도생道生이라



사진 3. 부설거사가 언행일치의 가풍을 보이는 모습을 그린 제주 김녕 금용사의 벽화.

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반경』 후본이 나오기 전인데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주장했거든? 천제성불론이라 하는데, 제일 최악의 중생도 성불할 수 있다 이거라.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저 불법도 모르는 샛된 주장을 하는 스님이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하는 법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생스님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내 혼자 하지 하는데, 그냥 법문하려고 하니 곤란하거든? 그래서 돌을 앞에다 주욱 여럿 세워놓고 그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천제闡提 성불론이라고,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일천제一闡提라도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나 법문을 잘하는지 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걸 석점두石點頭라고 해. 그만큼 법문을 잘한다 말이야.

도생스님은 생생 법사라고 구마라집의 제자야. 그때는 『열반경』 전분前  
 만 들어왔을 때라 일천제 성불론이 아직 소개되지 않았을 때야. 나중  
 에 『열반경』의 후분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 도생법사 말과 똑같거든? 그  
 만치 선견先見이 있었어. 도생스님이 이런 법을 설하니 돌들이 고개를 끄  
 덕끄덕한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도생스님을 외도外道라 하고 쫓아내려  
 했는데 돌들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것은 도생스님을 쫓아내  
 지 말라 그 말입니다.

### 간혜미능면생사 乾慧未能免生死

하늘이라 할 때는 ‘건’이라 읽고, 마르다고 할 때는 ‘간’이라 읽는 것인  
 데, 간혜乾慧라고 읽어야 해. 간혜, 즉 마른 지혜는 쓸데없는 지혜, 입만  
 살았지 실지로는 실력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지,  
 육조혜능스님 같은 이는 일자무식이지만 참말이지 성불했거든? 아무리  
 글을 보고 앵무새같이 경전에 있는 그대로 법문을 잘하고, 돌들도 법문  
 잘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도 결국 그건 간혜乾慧야. 바짝 마른 지  
 혜라 말입니다. 실지 지혜는 아니야. 빈 지혜, 공췌 혜라 말입니다. 그 빈  
 지혜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사를 못 면해. 그까짓 것을 가지고는 생사  
 를 못 면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돌이 고개를 끄  
 덕끄덕했더라도, 실지 자기가 지견이 없을 것 같으면 생사는 그대로 받는  
 다 이것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기거든?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실지 공  
 부를 부지런히 해서 실지로 실력을 가져야 한다 말이야. 설사 설법을 해  
 서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고 돌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큼 그렇게 법문  
 을 잘한다 해도, 실지 실력이 없으면 생사를 그대로 받을 뿐 소용이 없

다 말아야. 중이 되어 듣기 좋은 법문 잘하는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똑같아. 생사를 못 면한다는 것에서는 똑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것은 참말로 생사를 해결하여 열반을 얻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근본이지, 남 듣기 좋게 법문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법문을 잘해 석점두를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결국 그만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생사를 못 면한다 말이야. 그럼 어째야 되겠어? 결국은 또 참선해서 도를 깨쳐야 한다 그 말이야. 생사를 면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거든? 지금까지 여러 날 내가 한 이야기 속에 뭔가 있는가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이라.

### 사랑야시허부부 思量也是虛浮浮

간혜는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생사를 면치 못하고 소용없어. 법문 잘하는 이것이 불교인가보다 생각하면 안 돼. 화당지옥에 들어가고 말아. 그럼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참으로 화두를 해서, 화두를 깨쳐서 성불, 실지로 대자유한 사람이 된 그때에 환희심을 내고 춤을 춰야지. 지난번 설에 내가 얘기 안 했어? 공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설이 있나? 참으로 화두를 깨치고 나서는 그때야 안심하고 춤을 춰야 해. 그럼 뭐 한다고 여태까지 이런 법문을 하나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참으로 견성하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자꾸자꾸 얘기하는 것이야. 古語

## 불교전파와 바다 상인들의 힘



주강현\_ 해양문명사가

기원전 1500~기원전 1000년경 쓰인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경전 『리그 베다(Rig-Veda)』는 숭앙하는 신을 비롯해 당시 사회상, 천지창조, 철학, 전쟁, 풍속, 의학 등을 두루 다룬다. 베다에 등장하는 산스크리트어 사무드라는 해양을 뜻한다. 사무드라라는 용어는 인도문명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유적에도 남아 있으며, 때로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 바다를 상징하는 사무드라

해양 실크로드 문명사 관점에서 본다면 물산의 수입과 풍부한 물산의 수출, 위신재(威信財)의 수입과 수출을 통한 맞교환, 바다를 통한 문화예술의 전래와 종교의 전파 등은 늘 지배자들의 관심 사항이었다. 따라서 그 물산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항구를 개발하는 일은 어떤 지배자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덕목이었다.



사진 1. 자카타 설화에 의한 회화. 스리랑카 갈 해양박물관.

고전 시기의 여러 문헌에서 바다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마우리아 왕조의 창시자 찬드라굽타를 보필한 재상 카우틸라(Kautilya)가 쓴 공공 행정과 경제 정책, 군사 전략에 관한 보고서인 『아르타샤스트라(Arthaśāstra)』에서는 강과 해상 교통, 어부에 대한 관세와 입항세 및 세금 징수, 폭풍으로 인해 난파된 배와 그 선원 관리, 해적을 진압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명시했다.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등장 이후 인도는 조선사造船史에서 놀랍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는 비로소 큰 조선소를 갖게 됐고, 많은 배를 상인과 진주잡이꾼에게 빌려주거나 승객과 화물을 운반했다. 기원전 600~기원후 200년경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힌두 신앙과 임무에 대해 서술한 옛 법전 『다르마샤스트라(Dharmaśāstra)』에도 해양

활동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 배에 대한 선원의 집합적 책임에 대해 기록했다.

## 인도인의 해상활동이 잘 반영된 『본생담』

부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本生譚(Jataka)』에도 바다가 등장하는데, 해양 활동에 대한 인도인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본생담은 부처가 왕이나 왕자, 수행자, 상인 그리고 원숭이, 앵무새, 코끼리 등 동물로까지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하고 공덕을 쌓는 이야기다.



사진 2. 불교 바닷길 전파의 무대인 인도아대륙과 동남아(영국 1747년 제작).

이 이야기 속에는 여섯 달이나 지속된 항해, 훈련된 새를 활용해 육지를 찾는 선원, 별을 따라가는 항해, 심지어 눈이 먼 도선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 또한 도선사 조합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다. 돛이 세 개 달린 배 이야기도 있다. 또 선원들이 서쪽의 바빌론과 알렉산드리아, 동쪽의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항해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를 통해 고대 인도의 뱃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항해 범위를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인도인은 바다가 여전히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괴물과 악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파된 배의 선원을 구해주는 여신도 있다고 생각했다. 『본생담』은 빨리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상선의 유혹도 이야기하지만, 한편 바다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 부처의 화신인 수파라가 보살

초기 인도해양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처의 화신化身인 '수파라가(Supārāga) 보살의 서사다. 수파라가는 뛰어난 항해가이자 선장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항해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당대의 모든 해양 예술과 과학에 통달한 수파라가 선장은 노련하게 잘 헤쳐 나갔다.

수파라가는 주변 환경의 모양, 소리, 느낌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광활한 항해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의 천문 지식은 배를 밤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의 지구력은 온갖 극한 조건과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수파라가는 항로의 안전을 보장했던 뛰어난 전통 항해술의 보유자였다. 항해술에 능숙했던 수파라가는 바다 상인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직



사진 3. 사르나트에서 발굴된 불교 후원자의 초상 (기원전 2~1세기, 우타르프라데쉬 사르나트). 뉴델리국립박물관.

업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보석을 찾아 ‘황금의 땅’ 말레이반도로 가려 는 미숙한 보석 상인들이 수파라가에게 항해에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파라가는 평생 동안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항해의 상징적 마스크트로만 보았다. 따라서 그의 탁월한 지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광범위한 해양 지식을 배울 기회를 허비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이 ‘위대한 존재’는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의 배에 타기로 동의했다. 수파라가가 승선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됐다. 상인들은 ‘이제 우리는 성공적으로 항해할 것’ 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그들은 항해를 시작했다. 다양한 종의 물고기가 출몰하고 계속해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망망대해(Great Ocean)에 도달했다.



사진 4. 항해자의 수호신으로도 모셔진 디팡카라(Dipangkara) 보살상. 인도에서 대단히 먼 바다인 솔라웨시 서해에서 발견되었다.

갑자기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폭풍과 거친 파도가 며칠 동안 그들을 넓은 바다로 끌고 갔다. 뱀처럼 쉴 소리를 내며 청흑색 구름이 머리 위로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천둥의 굉음과 함께 번개의 불타는 혀가 일어났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바다는 분노한 듯 솟아올랐다. 불쌍한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전율했다. 수파라가가 그들을 위로하였다.

## 고난의 시간들, 화염의 바다로

‘위대한 존재’의 연설에 활력을 얻은 상인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그를 공경했지만 본심은 아니었다. 며칠 후 해류는 배를 파도에 굴러가는 사과이어가 있는 아름다운 보라색-청색의 바다로 끌어들이었다. 폭풍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아름다



사진 5. 우유빛 바다에서 힘을 겨루는 수무드라.

운 바다 경치는 그들을 맡은 일에서 산만하게 만들었다. 무섭고도 짜릿한 광경과 소리는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부에 대한 탐욕, 안전에 대한 망상을 불러일으켰다. 보석 발견을 꿈꾸며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닷길을 유지할 만큼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다.

해류가 다시 배를 다른 바다로 몰고 갔다. 상인들은 바다에서 은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형상을 보고 놀랐다. 파도에서 뛰노는 전사인 ‘악마 물고기’가 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상인들이 은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다고 수파라카에게 알리자 ‘위대한 존재’는 이들은 사람도 귀신도 아니고 물고기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하였다.

강풍은 그들을 아름다운 은빛 바다로 몰아넣었다. 수파라카는 그곳이 매우 위험한 ‘우유의 바다’라고 말했다. “지금 배를 돌려라!” 그가 주장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파도 사이의 놀랍고 기이한 현상에 매료된 상인들은 적극 협력하려 들지 않았다. 저항할 새도 없이 해류는 그들을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가득한 ‘화환의 바다(Sea of Fire Garlands)’로 끌어들이었다. 그것은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화염을 뜻했다.

## 황금의 땅으로의 여정

이 같은 『본생담』의 항해 이야기 속에서 인도아대륙의 동쪽과 서쪽으로 펼쳐진 국제 항로를 발견할 수 있다. 동쪽으로는 ‘황금의 땅’ 말레이반도로,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상인들은 좌절하고 극복하고 다시 좌절하는 고난을 겪었다. 기원전 4세기에 성립된 『본생담』 이야기는 부처시대 인도의 국제 무역을 잘 설명해준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까지 당대의 국제항이었던 아라비아해의 보르치와 수파라 항구와 바빌론과의 국제 무역도 반영한다. 어떤 인도 상인이 공작새를 가지고 바빌론을 방문한 이야기도 나온다. 서부인도에서 페르시아만과 강으로 이어진 무역은 드라비다족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비정된다. 수파라가는 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야간 항해에도 문제가 없었다.



사진 6. 인도인이 무역하던 황금반도 지도(1300년경 로마 바티칸).

수많은 상인과 순례자들이 역경을 겪고 죽음의 길로 가거나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했다. 신앙에 의탁해 무조건 기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지형과 해양 생물 등을 숙지하고 원해 항해에 나섰다. 이들은 서로 의지하고 이끌면서 새로운 바다를 발견해 나갔고, 대항해를 계속했다. 아마도 법현, 의정 등 많은 구법승에게도 벵골만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중국을 오갈 때 수파라가의 말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수파라가의 행적은 이미 법현의 시대에 중국에서 한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역

- **주강현** 해양문명사가. 분과학문의 지적·제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융합적 연구를 해왔다.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학 등에 기반해 바다문명사를 탐구하고 있다. 제주대 석좌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APOCC) 등을 거쳤다. 『마을로 간 미륵』, 『바다를 건넌 부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 등 5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2024 뇌허불교학술상을 수상했다.

##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유심’과 ‘님의 침묵’ 사이



김춘식\_ 동국대학교 교수

서정주의 시에 깃들여 있는 불교가 ‘신라’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삼국유사』의 설화적 세계를 상상의 기반으로 삼는 불교라면, 한용운의 시에 담긴 불교는 ‘형이상학’이나 ‘초월’ 혹은 ‘공소’와 ‘무無’의 영역에 있는 불교를 ‘색ᄇᆞᆫ’이나 ‘일상’ 혹은 ‘중생衆生’의 위치에서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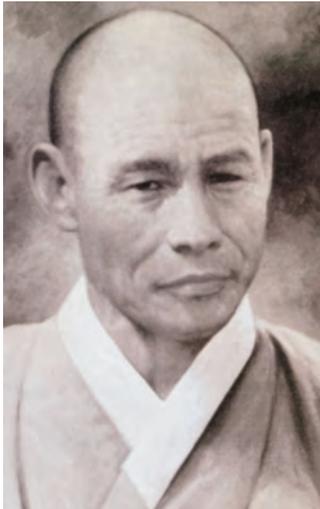


사진 1. 만해 한용운(1879~1944).

물론, 서정주의 신라 정신 역시 ‘육계 제2천’이라는 ‘피’와 ‘육체’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생’의 불교를 그 시적 수사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용운의 시적 언어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불교적인 역설’이 끌어안은 ‘중생’ 혹은 ‘화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쩌면 한용운의 시는 불교적인 ‘근원’에 갇혀서 오히려 그 ‘향초’와 ‘색채’를 잃어버리고 관념에 빠져 버릴 위험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념’과 ‘예술’의 경계는 ‘찰라’의 경지와 같은 것인데, 그 ‘찰라’는 한용운에게는 ‘시’와 ‘선’, ‘시적 진리’와 ‘최고의 미’가 맞부딪치는 시적 ‘현현’의 ‘순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찰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절대’를 함축한 ‘순간’, 모든 시공간이 사라진 ‘정지’, ‘무’의 상태를 암시한다.

## 님의 ‘침묵’과 ‘이별’이 의미하는 것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  
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  
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  
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  
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  
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

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  
 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전문

「님의 침묵」은 한용운이 1925년 8월 백담사에서 탈고하여, 이듬해 회동서관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니 까 올해는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이고 2026년은 출간 100주년이 된다. 「님의 침묵」의 탈고와 출간이 지닌 각별한 의미는 이 시집의 우



사진 2. 만해의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1925).

수성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인 기적'에 해당할 만한 이례성과 예외성에 의해서도 부여된다. 불교와의 연관성, 승려 시인,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종교적 형이상학과 윤리, 보편적 신념으로 확장하도록 이끌어 냈다는 점, '님'이라는 2인칭 대명사의 시적 활용, 미와 진리의 동시적 현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 등 이 한 권의 시집이 지닌 문학사적 성취는 1920년대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거의 '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집의 표제작인 위에 인용한 시 「님의 침묵」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시 한 편의 구조가 시집 전반에 실린 시 88편의 배열 구조와 동일하다. “이별, 슬픔, 희망, 기다림, 만남에 대한 믿음”의 형태는 실제로 시집 전체의 시편이 지닌 주제들의 배열과 구성의 형태가 거의 흡사하다. 결국,



사진 3.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탈고한 백담사의 설경.

표제작의 내용 속 ‘침묵’은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님의 부재 상황’을 대표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침묵’과 ‘이별’의 상황이 단순한 시련이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깨달음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행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우침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고 그 이별의 시간 속에 겪어야 하는 님의 ‘침묵’은 부재하는 진리의 ‘드러냄’ 혹은 ‘각성’을 위한 전제이거나 증거에 해당된다.

‘침묵’과 ‘이별’, 즉 님의 부재가 없다면 역설적이지만 ‘사랑’도 ‘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적인 역설이 이 순간 시 속으로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책즉시공 공즉시색’처럼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은 역설적이지만 이 시집 전반에 걸쳐서 상호적인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완성과 승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진리와 깨달음에 다가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 사랑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집은 남녀의 사랑을 전제로 한 화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우주관과 세계관, 그리고 불교적 역설의 수사법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다.



사진 4. 백담사 만해기념관과 만해의 흉상.

문학사에서 종종 거론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승려인 한용운이 왜? 시를 썼는가 하는 점이다. 『님의 침묵』 발간 이전에도 한시나 다소 관념적인 선시를 쓴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님의 침묵』 시편처럼 전적으로 완성도 높은 자유시, 그리고 불교 정신을 육화하여 사랑의 담론으로 재현하는 작품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88편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기적’의 결과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1926년까지 발간된 시집의 목록을 살펴보면, 『해파리의 노래』(김억, 1923, 최초의 개인 창작시집), 『아름다운 새벽』(주요한, 1924), 『흑방비곡』(박종화, 1924), 『조선의 마음』(변영로, 1924), 『진달래꽃』(김소월, 1925), 『국경의 밤』(김동환, 1925), 『봄의 노래』(김억, 1925), 『승천하는 청춘』(김동환, 1925) 등 8권이 있고, 번역 시집으로는, 『오뇌의 무도』(김억, 1921), 『잃어진 진주』(아더 시몬즈, 김억 역, 1924), 『파이론 시집』(전진현 역/최상희 역 두 개 판본, 1925)과 김억이 번역한 『시탄자리』(1923), 『원정園丁』(1924), 『신월新月』 등 타고르 번역 시집 3권을 포함한 총 7권(파이론 시집은 번역자만 다르고 같은 책임을 감안하면 6권)이 있다.



사진 5. 최초의 번역 시집  
『오뇌의 무도』(1921).



사진 6. 김억의 번역 시집  
『잃어진 진주』(1924).

따라서 1919년 『창조』가 발간된 이후 동인지 문단을 거쳐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이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단’을 구성하고 시형식의 근대성과 조선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연관해서 보면, 『님의 침묵』의 출간은 먼저 간행된 여러 개인 시집과 번역 시집의 성과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향후 조선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님의 침묵』 출간 100년의 의미는 이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조망이 가능하지만 왜? 불교가 초창기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미적, 인식적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교와 현대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와 불교의 ‘유신維新’-‘심心’이 ‘님’이 될 때까지

심心은 심心이니라.

심心만 심心이 아니라 비심非心도 심心이니 심외心外에는 하물何物도 무無하니라.

생生도 심心이오 사死도 심心이니라.

심심이 생생하면 만유萬有가 기起하고 심심이 식息하면 일공一空도 무無하니라.

심심은 무無의 실재實在요, 유有의 진공眞空이니라.

심심은 인인에게 루淚도 여與하고 소笑 여與하니라.

금강산金剛山의 상봉上峯에는 어하漁鰕의 화석化石이 유有하고 대서양大西洋의 해저海底에는 분화구噴火口가 유有하니라.

심심은 하시何時라도 하사하물何事何物에라도 심심 자체自體뿐이니라.

심심은 절대絶對며 자유自由며 만능萬能이니라.<sup>1)</sup>

인용한 시는 만해 한용운이 1918년 『유심』 창간호의 맨 앞에 발표한 「심심」이라는 작품이다. 아직 관념적인 언어와 서술이 두드러지지만, 그 내용은 『님의 침묵』의 「군말」을 떠오르게 할 만큼 흡사한 구석이 많다. 또한 6행의 단어와 문장은 전통적인 한학의 지식이 아니라 근대적인 과학과 지리학의 ‘학지學知’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점은 한용운의 유신維新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섭렵이 서로 상당한 친연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에서 말한, 한용운은 왜 시를 썼는가와 불교가 초창기 한국 시에 어떠한 연유에서 중요한 인식적 기초를 제공했는가 하는 질문은 이런 ‘불교의 유신維新’이라는 기획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사진 7. 『유심』 창간호(1918).

1) 용운, 「심심」, 『유심』 제1호, 1918. 9. 2-3쪽.

실제로 이 시의 핵심 내용인 '심'은 유심론唯心論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심'이 모든 유와 무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절대'라는 생각은, '님'이 단순한 대상이거나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변형물로서 외부의 타자이지만 이미 타자가 아닌 존재, 즉 마음에 따라 그 가치와 실체가 결정되는 대상임을 알게 한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라는 말은 '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에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임을 암시한다.

마음이 투영되어야 비로소 '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마도 『님의 침묵』에서는 '사랑'의 완성으로 향하는 절대적 속성을 지닌다. 님이 '자유', '만능'인 것처럼, 사랑도 님과 함께 완성될 때 비로소 절대와 자유와 만능을 얻는다. '님'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형이상학적 차원은 이 점에서 '유심唯心'이라는 생각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유심은 '연애', '육체적 차원'의 사랑을 절대 자유와 만유萬有에 대한 사랑이라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한용운의 시에서 '심'이 '님'이 되는 과정에는 타고르의 시와 아서 시몬즈의 시에 대한 김억의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아서 시몬즈의 『잃어진 진주』에 대한 김억의 번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김소월의 '님'이 시적 언어로 정립되는 과정, 그리고 김억의 타고르 시 번역에서 나타나는 “~습니다”체 등은 『님의 침묵』의 핵심적 문체인 감탄사와 “~습니다”체, “님”이라는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타고르' 시의 송가 형태가 준 영향력과 별도로 김억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자가 타고르 시에서 2인칭 대명사를 '주主'라

---

2) 김춘식, 「님의 시적 표상과 타고르」, 『선문화연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21. 6. 12~16쪽.  
최라영, 『김억의 창작적 역사와 근대성 형성』, 소명, 2014.



사진 8. 김억(1896~1956). 최초의 번역 시집을 비롯해 타코르의 시집을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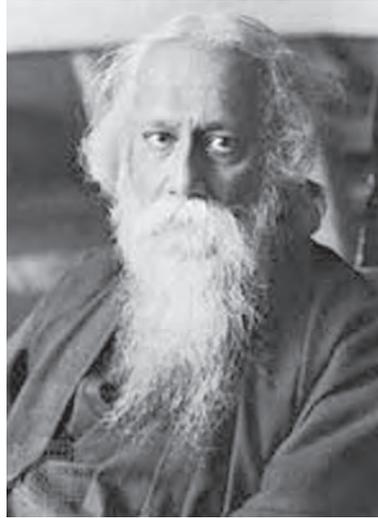


사진 9.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

고 번역하고 있는데도, 한용운이 ‘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택이 다분히 의식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즉, 님의 침묵은 ‘송가’라기 보다는 ‘깨달음’을 염원하는 ‘구도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主’라는 단어가 ‘심心과 님’의 연관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절대와 자유와 만능’의 깨우침이라는 함의를 이 단어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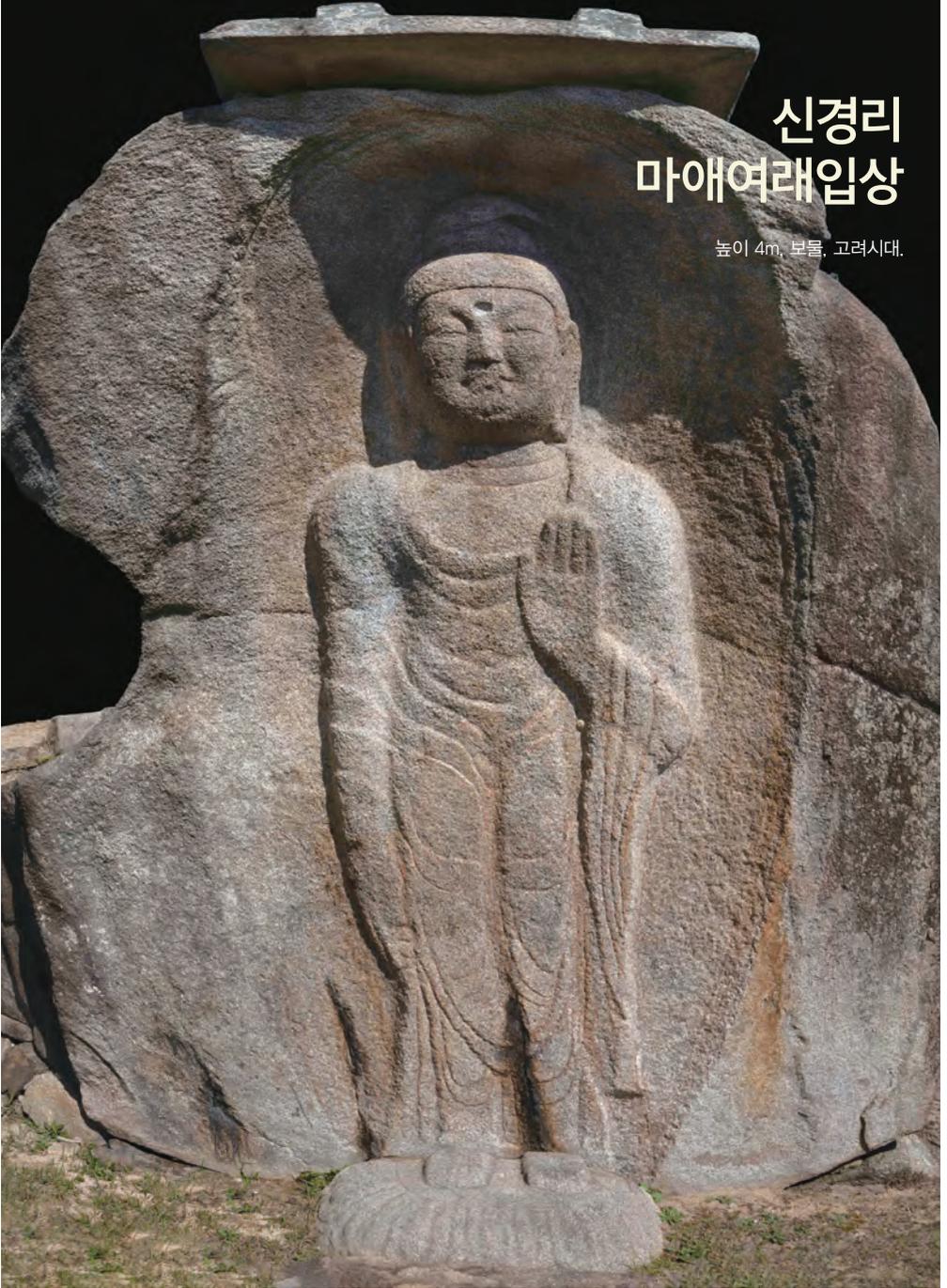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이 점에서 김소월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매개로 한 나와 만유 사이의 경계 허물기, 숨은 진리의 현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적인 사유의 한 정점을 시적 언어예술로 구축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古鏡

○ 김춘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문학평론가이자 시인. 계간 『시작』 편집위원.

바위에 새긴 미소 4 양현모 사진작가

#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높이 4m, 보물, 고려시대.



## 현대 인도불교의 부활과 과제들



심재관\_ 상지대 교수

---

많은 한국의 불교인들은 “어찌하여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불교가 이토록 처참히 위축되었는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식자들은, 이슬람의 인도 정복이나 힌두교와 불교의 혼성문제를 들면서 인도불교의 쇠망에 대한 혼한 답을 열거하곤 한다.

### 현대 인도불교의 지형

그러나 인도불교의 쇠망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이나교를 포함한 사문의 종교들과 같이, 기생적parasitic 종교가 생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숙명적 한계에서 온다는 점을 먼저 통렬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현대 인도불교의 부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에 대한 해답을 논하는 대신, 먼저 당면한 현대 인도불교의 현재 상황과 이에 따른 한두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인도의 불교도들은 대략 8백만으로, 14억 인구 가운데 0.6% 가



사진 1.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

량의 신앙인을 갖는 소수 종교로 자리 매김한다. 이 대부분의 불교인들이 현재 인도 어느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 인도불교의 현대 역사가 보일 것이다.

첫째는 나그뿌르Nagpur 시를 중심으로 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불교도들이다. 이들이 가장 큰 현대 인도불교의 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50년대 암베드카르의 불교운동으로 인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많은 하층민들이 불교로 개종한데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잠무카슈미르와 히마จั랄라데쉬 주의 불교도들이다. 한국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 레Leh에서 다람살라Dharamshala로 이어지는 지역의 불교도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티베트 불교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오던 소수의 불교도들이었고, 여기에 20세기에 티베트에서 유입된 불교도들이 포함된다. 인도 전체의 불교도들로 볼 때 '비교적' 큰 불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시킴Sikkim, 아쌌Assam, 미조람Mizoram 등지의 북동부 지역들이다. 이 지역의 불교는 다소 혼종적이다. 즉, 티베트 불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시킴지역과 상좌부 전통의 미조람 등을 다시 구분해볼 수 있다. 또한 동파키스탄 이전부터 존재했던 상좌부 전통의 불교도들이 동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유입되거나, 또는 20세기 전반 영국-미얀마 전쟁으로 영국령 인도로 편입된 불교도들이 있는데, 당연히 상좌부 불교전통 속에서 살던 불교도들이다.



사진 2. 다람살라의 겨울 풍경.

다른 소소한 지역들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현재 인도 불교도들의 인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큰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현대 인도불교의 이러한 지형도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형성된 것이다. 그 이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해도 소수 잔존했던 불교도들은(히말라야가 아닌 평야 지대에 거주하는) 대부분 벵골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서야 인도불교 신앙의 지형이 매우 강하게 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변화의 계기들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성립과 암베드카르와 같은 재가신자들의 불교혁신운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현대 인도불교의 두 원천: 승원의 티베트 불교, 재가자의 상좌불교**

인도불교는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거의 종말을 고하며 인도 후기 중세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다. 그 이후, 불교가 다시 인도 땅에서

부활한 것은, 18세기 말 벵골 르네상스에서 그 시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벵골의 중심 콜카타는 람 모한 로이 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인도의 전통사상을 서양 사조들과 비교, 부각시키면서 힌두교와 불교 등을 근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사진 3. 라자 람 모한 로이(Raja Ram Mohan Roy, 1772~1833).

이러한 근대화 경향에 스리랑카의 대 각회(마하보디 소사이어티Maha Bodhi Society)가

인도불교의 부활에 다시 힘을 신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불교의 고전과 사상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적 사유도 함께 발흥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말한 바대로 현대 인도에서 불교가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도 밖에 있었던 티베트 불교와 동남아불교 두 전통이 20세기 중반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티베트 불교도들이 대거 인도와 네팔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내에서 불교의 지형은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는 티베트 승려들의 훈련된 학습과 수행 체계가 잘 보존된 채로 인도 땅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달라이 라마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불교의 종교적이고 정치적 영향력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인도 땅에 10만여 명의 티베트 난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다행히 티베트 불교 고유의 수행법과 철학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인도 땅에서 불교가 부활하는 징조인 동시에, 후기 중세 이후로 소멸되었던 인도



사진 4. 인도 콜카타 소재 마하보디협회 본부.

의 금강승金剛乘(vajrayāna)의 전통이 티베트 불교를 통해 다시 부활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일 티베트 불교가 중공의 침략으로 인해 20세기에 인도와 세계속으로 널리 전파될 계기가 없었더라면, 이 전통은 영영 잊혀졌거나 상그릴라의 신비로 묻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1956년 불가촉천민 출신의 지식인 암베드카르가 나그푸르에서 50여만 명의 하층민들을 일시에 불교도로 개종시키면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불교운동이 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힌두사회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았던 하층민들이 불교로 개종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개종운동은 불교의 내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혁신운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의도가 어떠하든, 외적으로 불교는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우연히도 뒤이어 인도에서 상좌부 불교가 유행한다. 이는 주로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에서 수입된 상좌부 전통의 불교였다. 1970년대에 고엔카(Goenka)가 주도하는 위파사나 명상 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난다. 위파사



사진 5. 인도 나그뿌르 소재 불교사원.

나 명상 운동은 미얀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Mahasi Sayadaw)나, 사띠야 나라야나 고엔카(S. N. Goenka)에 의해서 위파사나 명상은 미얀마나 인도를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고엔카는 그가 본래 인도 바라문의 사업가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초기에 미얀마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배운 뒤 인도에서 명상 센터를 세워 불교 명상 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고엔카가 10일간의 집중 명상 훈련을 실시하는 수행법은 현재 50여 개가 넘는 지부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사진 6. S.N. 고엔카(Satya Narayana Goenka, 1924~2013).

위파사나 명상이 재가자인 고엔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현대 인도불교의 부활에 기억할만한 또 하나는 재가불교도들의 움직임이다. 그 중심의 또 다른 인물이 상가락쉬파이다. 그는 영국인



사진 7. 상가락시타(Sangharakshita, 1925 ~ 2018).

이지만 20여 년을 인도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위의 두 전통, 즉 20세기 전후 상좌부 전통과 티베트 전통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그가 창립한 삼보불교공동체(Tiratna Buddhist Community)는 여전히 현대 인도불교의 중심에 있다. 암베드카르와 고엔카, 그리고 상가락쉬타 등의 재가인들이 주도한 불교운동은 현재 아마도 가장 강력하게 불교

가 현대 인도사회에 재생하게 된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과제: 승려교육, 힌두뜨바(Hindutva), 그리고 중국

이러한 근현대 인도불교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도불교의 목전 과제가 나타나는 듯 보인다.

첫 번째는, 재가자 중심으로 일어난 불교운동에서 승려의 교육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 운동 속에는 비구 또는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독신과 대처라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전통적인 승원의 출가수행자 교육이 없는 것이다.

이 불교운동이 재가자(암베드카르와 상가락시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가자 중심의 교단으로 정착하기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두 운동이 모두 다르마짜리아(Dharmacarya, 法師)를 통해, 마치 기존의 불교 종단에서 승려들이 불법을 가르치거나 의례를 치르는 등의 일을 관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통 불교 교단의 승려를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맥(戒脈)이나 법맥(法脈)을 정초할 수 없다는 점이다. 티베트 불교나 상좌불교의 율맥이나 법맥을 전수하지 않고, 독자적이고 형식적인 독신생활만으로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자칫 다르마짜리아는 힌두교의 사제들과 같은 역할의 불교인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인들 대부분은 의례와 축제, 기념일 등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의 다르마짜리아들에게도 힌두교 사제와 같은 역할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가라쉬따의 삼보불교공동체의 경우, 그 공동체 안에는 실질적인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없는데, 이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의문이 생긴다. 구미의 불교 법사들의 경우에서 종종 나타나듯이, 법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추문도 전통적인 승원 교육의 필요성을 되짚도록 만든다. 법사들의 독신 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불교와 힌두근본주의자들 즉, 힌두뜨바(Hindutva)와의 갈등이다. 2천년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인도의 힌두교 부활운동이 점차 정치세력화 되면서, 힌두근본주의의 목소리와 불교인들이 점차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디(Modi)정부 들어 힌두국민국가(Hindunation)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현실화되었고, 숏디(정화)운동이나 암소보호운동, 산스크리트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더 노골화되었다. 이에 따라 힌두대중들과의 종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슬람교도나 불교인들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교로 전향하는 하층민은 이러한 힌두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불교는 힌두인들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하층민의 귀의처



사진 8. 구자라뜨의 기르 솜나트(Gir Somnath) 소재 석굴사원.

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6년 구자라뜨의 달리뜨 7명은 죽은 소의 가죽을 벗겼다는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결박된 채 매질을 당하고 촬영된 적이 있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인도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경악시킨 바 있다. 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힌두인들은 이 가죽들 가운데 4명의 상의를 벗기고 손목을 결박한 채 이들에게 매질을 했으며, 보란 듯이 경찰서까지 거리행진을 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자라뜨의 달리뜨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넘는 폭동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하층민들은 구자라뜨의 기르 솜나트(Gir Somnath)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폭력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불교로 전향해버렸다.

우연히도 이 지역은 불교의 초기 석굴 사원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기르 솜나트 지역에는 기원전 이전까지도 추정해볼 수 있는 60여 기의 석굴사원들이 존속하는 곳이다. 여전히 모디 정부가 불교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은 쉽게 던지고 있으나, 이 지역의 보존이나 발굴은 여전히 진전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달라이 라마를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정치적 문제다. 지금 중국은 14대 달라이 라마의 승하 후,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선정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다음 관세음보살의 현신은 중국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종교적이고 정치적 인가는 중국 정부에서 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티베트인들은 중국이 달라이 라마나 티베트의 생불生佛들의 선출과정에 대한 불법적佛法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티베트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히마찰프라데쉬를 포함한 히말라야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인도인들이나 인도 내의 불교도들에 대해서 인도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인도 중국 간의 외교적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 정부의 관점에서 더 신경 쓰이는 문제는,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 등장하게 되면 사전에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인도에서 환생이 나타나거나 인도로 옮겨질 경우, 이는 필시 중국과 인도 간의 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인도 내에서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중심으로 티베트불교(도)의 자치 정부나 신행 단체들이 다시 결속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해외 불교도들의 지지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셈법은 이들 정부나 종교집단, 교육단체 등에 침투하여 분열·와해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되면, 인도 내 불교의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卍

○ **심재관** 동국대학교에서 고대 인도의 의례와 신화에 대한 연구로 석·박사를 마쳤으며, 산스크리트어와 고대 인도의 뿌라나 문헌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금강대학교 HK 연구교수, 상지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 깨달음의 복음을 전한 도마



오강남\_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은 믿음보다 ‘깨달음’을 강조하여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 하나로 알려진 도마입니다.

### 도마와 『도마복음』

도마는 최근까지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성경에 포함된 복음서들에 보면 그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다는 것 이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씩이나 도마에 대해 ‘믿음이 없는 제자’,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1장 16절, 14장 5절, 20장 24절) 『요한복음』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옮기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해주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사진 1. 성 토마스(De apostel Thomas)의 초상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으로 '의심하는 토마스'로 알려져 있다. 그림: 피터 폴 루벤스.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 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집에 있는데, 예수가 닫힌 문을 통해 들어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마가 감명을 받고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장 28절)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2천 년 가까이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doubting Thomas)’로 알려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던 도마가 우리에게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분들 중 한 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인도로 건너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였다는 전설 때문도 아니고,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성인으로 추대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취하여 그것을 『도마복음』이라는 이름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진 2. 자발 알 타리프(Jabal al-Tarif), 나그 함마디 책자본(Nag Hammadi Codices)이 발견된 절벽. 사진: Hugo Lundhaug.

『도마복음』이란 지금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음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지금 성경에 포함된 4복음서 이외에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교부들에 의해 이런 복음서들 중 오로지 4개의 복음서만이 그리스도교 정경에 포함되고 다른 것들은 폐기처분당했습니다. 이렇게 폐기처분당한 복음서들 중 일부가 1945년 이집트 나그함마디라는 마을 부근 산기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 뭉치들 속에는 모두 52종의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이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이 '쌍둥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가 예수의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가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가 놀랍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 『도마복음』의 메시지

『도마복음』은 “살아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도마가 간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진리를 찾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서 표층 혹은 현교적顯教的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심층 혹은 비교적秘教的 차원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복음』이 전하는 비밀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도마복음』은 여타 복음서들과 달리 기적, 예언의 성취,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종말, 최후 심판, 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내 속에 있는 신성, 참나를 아는 ‘그노시스gnōsis’, ‘깨달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노시스는 프라즈나, 반야般若, 통찰, 꿰뚫어 봄, 직관과 같은 계열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진 3. 나그 함마디 책자본(Nag Hammadi Codices).

『도마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는 ‘나를 믿으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깨달으라’, ‘깨치라’고 타이릅니다.

『도마복음』의 한 절을 인용해 봅시다. 제3절에 보면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자신이 살아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그노시 세아우톤’입니다. 알아야 할 것, 깨쳐야 할 것 중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딸이라는 사실, 내 속에 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天主, 이 신이 바로 내 속 가장 깊은 차원의 ‘참 나’, ‘얼나에 다름 아니라 [人乃天]는 엄청난 사실,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진주’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는 도마 자신에 관해서 재미있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3절에 보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라는 제자가 “선생님은 의로운 사자(使者)와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그다음으로 “지혜로운 철인(哲人)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선생님, 제 입으로는 선생님이 누구와 같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도마를 향해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 하는 말을 하고 그를 데리고 물러나 그에게 무언가 세 가지를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도마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자네들한테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일세.” 하고 대

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공관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관복음서에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만 있을 뿐 ‘도마의 침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선불교 『선문염송禪門拈頌』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소림사에 머물며 9년간의 면벽 참선을 끝낸 뒤 그곳을 떠나려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각각 그동안 깨달은 바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제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자, 달마는



사진 4. 이조 혜가대사慧可大師.

“너는 내 살갓을 얻었구나.”라고 합니다. 다음 제자가 나와 또 뭐라고 하자, “너는 내 살을 얻었구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나와 뭐라고 하자, “너는 내 뼈를 얻었구나.”라고 합니다.

드디어 그의 수제자 혜가慧可가 나와 스승에게 경건하게 절을 올린 다음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달마는 그를 보고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구경究竟의 깨달음에 이르면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 『도마복음』에서도 도마가 그가 깨친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 웅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라고 한 것도 의미심장

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를 보면, 공자의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찾아와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수행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공자는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회가 자기는 좌망坐忘, 즉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하자 공자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묻습니다. 안회가 모든 앎을 몰아내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자 공자는 안회를 보고 “청컨대 나도 그대 뒤를 따르게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라고 한 말도 이런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깊은 경지에 이른 도마, 여기 표현대로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고 완전히 ‘취한’ 도마에게, 예수는 더 이상 선생님일 필요가 없고, 깨달음에 있어서 이제 둘은 동격임을, 그의 이름 그대로 ‘쌍둥이’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도마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기에 예수는 그를 데리고 나가 그에게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밀의 말씀

예수가 도마를 따로 불러 일러주었다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또 무엇 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무엇, 심지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무엇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궁극의 진리란 상식의 세계, 당연히 여겨지는 세계를 뛰어넘는 역설逆說의 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제41장)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는 것과 크

게 웃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진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도마복음』에서 제자들 중 가장 위대한 제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마를 특별히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반열에까지 올리는 것은 그가 전해주는 『도마복음』이 그리스도교는 주로 현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에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심층적 기별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는 1945년 『도마복음』의 발견이 주는 정신사적 충격이 같은 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버금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필자가 『도마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잃어버리거나 등한시되던 심층적 가르침을 되살리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그가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 『도마복음』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자가 최근에 펴낸 『살아 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김영사, 2009)이나 김용옥 지음 『도마의 도마복음 한글역주2, 3』(통나무, 2010)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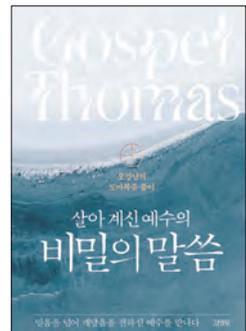


사진 5. 필자의 책 『살아 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김영사, 2009).

○ **오강남** 서울대 종교학 석사, 캐나다 맥매스터대에서 ‘화엄법계연구에 대한 연구’로 Ph.D. 학위 취득. 저서로는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세계종교 둘러보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나를 찾아가는 심우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 불단과 각단에 오르는 마지 변주곡



구미래\_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선종 사찰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는 ‘재죽이시齋粥二時·이시죽반二時粥飯’의 전통이 있다. ‘재죽’은 밥과 죽을 뜻하고, ‘이시’는 정오 이전의 아침과 점심 두 끼를 말한다. 초기불교에서 중시했던 오후 불식을 실천하면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은 것으로, 이러한 선종의 식사 규율은 부처님 마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 하루 두 끼의 공양과 마지

마지에 대한 기록이 드문 가운데 17·18세기 의식집을 보면, 수륙재를 봉행하는 당일에 사시마지와 함께 새벽에도 부처님께 마지를 올린 내용이 나온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에는 축시(새벽 1~3시)에 마지를 올리도록 시간을 정해두었고, 대부분 의식집에서는 ‘이른 아침의 마지와 죽공양, 점심의 마지와 밥공양’이라 하였다.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 마지를 올



사진 1. 발우를 든 부처님과 제자들.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 소장. 사진: 주수완.

린 뒤 대중은 죽으로 공양하고, 사시에 다시 마지를 올린 뒤 대중은 오시에 밥으로 공양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상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나라 때 성립된 『선원청규』는 한국불교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하루 두 끼의 '이시죽반'을 지향하면서 마지 또한 두 차례 올렸으리라 보는 것이다. 스님들이 아침에 공양하면서, 제자 된 도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기가 힘들었음이 짐작된다. 따라서 하루 한 번의 사시마지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두 차례의 마지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 2. 불전에 공양 올릴 때 사용한 발우.  
사진: 선암사.

마지를 담은 불기佛器도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굽다리 그릇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 사용하던 발우였다. 발우는 탁발에 의지하는 출가자의 상징물로, 부처님이 성도成道 후 최초로 사용한 발우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이어져 발우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발 신앙奉鉢信仰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해 『삼국유사』에 “신라 효소왕이 두 별의 금은 5기를 백률사에 바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의 금은 5기는 불전에 올리는 공양 그릇, 곧 발우를 말하며 크기가 서로 달라 포갤 수 있는 5합으로 추정된다. 1871년 『임하필기林下筆記』에도 “송광사에 금발우 5합이 있는데, 대소를 막론하고 아귀가 서로 딱 들어맞았다.”고 하였다.

육법六法 공양물의 하나로 쌀[米]이 포함되듯이, 이들 5합 발우에 ‘쌀 또는 밥’과 음식을 담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 하나의 용기에 마치 밥을 담게 되면서 신성한 존재에게 올리는 의례용 굽다리 그릇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일련종 사찰에서는 지금도 아침과 사시 두 때에, 밥과 함께 그날 만든 음식을 조금씩 담아 소반에 차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밥과 반찬을 함께 올리는 것은 대부분 일본사찰의 특징이기도 하다. 오늘날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자그마한 종지에 밥이나 쌀을 담아 불단에 올린다고 하니, 동북아 삼국의 다양한 마지 양상이 흥미롭다.

## 각단에도 오르는 마지

마지는 불단만이 아니라 각단에도 오른다. 사찰마다 다양한 양상을 지닌 가운데, 일상의 마지를 올리는 대상이 불보살에 국한되지 않고 산신·칠성신·조왕신 등에 이르기까지 열려 있다.

신도들은 산신각에 마지 올려주기를 원하고 절에서는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갈등을 빚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경내에 단을 세워 모신 존격(尊格)이라면 모두 마지를 올릴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 공양의 대상으로 삼는 신중의 범주가 사찰마다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여건에 따른 선택일 따름이다.

이를테면 통도사와 송광사에서 사시마지를 올리는 전각의 수는 각각 17개·12개이다. 그 가운데 하단 신격을 살펴보면, 통도사의 경우 가람신



사진 3. 봉은사의 각 전각 마지 나르기.



사진 4. 통도사의 산령각 마지 나르기.

을 모신 가람각伽藍閣과 산신을 모신 산령각山靈閣에 마지를 올리고 조왕단竈王壇에는 마지를 올리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송광사에서는 산신각에 마지를 올리지 않지만, 조왕신은 마지 공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도사의 학인 스님은 한 칸짜리 작은 가람각과 산령각을 찾아 공경히 마지를 올렸고, 송광사의 행자는 조왕단의 마지 뚜껑을 열며 죽비를 세 번 쳐서 일손을 멈춘 공양주와 함께 합장 배례하였다. 하단에 마지 올리는 이들의 모습은 경건하고 정성스러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1960년대 말에 출가한 어느 비구니 스님은 행자로 살면서 아침마다 대웅전부터 산신각까지 마지 올리는 소임을 맡았다. 대웅전을 제외한 작은 전각은 행자가 마지와 함께 예불까지 직접 올리고 내려왔는데, 당시는 예참 때 칠정례로 모시지 않고 대예참大禮懺을 했기에 꼬박 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근래의 사례를 봤을 때, 따로 모신 신중 가운데 마지 공양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대상은 조왕신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간의 성격과 깊이 관

련되어 있다. 산신·칠성신·독성신·가람신 등은 별도의 전각에 모셔두어 신도들의 일상적 불공 대상인 데 비해, 조왕신은 예배의 공간이 아닌 공양간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존격에 따라 마지 올리는 시간을 달리하였다. 산신·칠성신 등 하단의 신격은 사시에 함께 올리지 않고 늦은 오후에 따로 올렸다. “사성四聖은 오전에 모시고, 육범六凡은 해질녘에 부른다.”고 하여, 존격에 따라 일상의 마지 시간을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조왕기도·사천왕재·산신재 등도 늦은 오후에 지내게 마련이다. 근래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공양을 지었을 때 다 함께 마지를 올린다.

## 독불공과 송죽

예전에는 합동불공·동참불공이란 개념이 없었다. 명절이면 각자 이고 온 쌀로 밥을 지어 스님과 함께 집집이 따로 마지를 올리며 기도드렸고, 이를 독불공獨佛供이라 불렀다. 부처님께 마지와 불공을 올리고 나면, 다시 칠성각·산신각 등으로 옮겨가며 각단 마지와 함께 칠성불공·산신불공을 올린 것이다.

줄을 서서 한 말이든 반 말이든 각자 가져온 쌀로 모두 밥을



사진 5. 해인사 행자들의 마지 나르기.  
사진: 해인사.

지어 마지를 올렸다. 불공을 마치면 가족 단위로 자신의 마지 밥을 내려 공양하고 갔으니, 후원에서는 가마솥에 불을 때어 종일 밥을 짓고 상을 차려야 했다. 따라서 정월·초파일·칠석 등이면 이러한 불공이 며칠간 이어졌고 정초 불공은 대보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저마다 가져온 쌀로 모두 밥을 지으니 엄청난 분량의 마지 밥이 남게 마련이다. 따라서 명절이 지나면 온 도량이 ‘밥 천지’가 되곤 하였다. 말려서 오래 보관해 두고 먹기 위해 곳곳에 밥을 펼쳐놓았기 때문이다.

커다란 독에 밥을 넣고 솔잎 물을 부어두는 보관법도 있다. 솔잎을 갈아서 즙을 낸 다음, 밥을 한 켠 깔고 솔잎 물 붓기를 반복하여 보관하면 오래 지나도 상하거나 분지 않았다. 먹을 때는 씻어서 죽을 쑤거나 밥을 지어 이를 ‘송죽松粥, 솔잎 밥’이라 불렀고, 강된장을 함께 먹으면서 진한 맛으로 솔잎의 뽀은맛을 잡았다.

정월에 말린 밥을 초파일까지 먹고, 초파일에 말리면 칠석까지 먹고, 밥이 지천이야. 온 산꼭대기 바위마다 밥을 말리는 게 일이에요. 새가 와서 밥을 가져가니까 새 쫓는 일도 큰일이죠. ... 또 솔잎을 갈면 즙이 나오잖아. 독에다 밥을 넣고 그걸 부으면 밥이 분지를 않아요. 난 어릴 때 그 솔잎 냄새랑 뽀은맛이 정말 싫은 거야.

청량사 동희스님은 지금도 행자 시절의 솔잎 냄새나는 밥과 죽을 잊을 수 없다. 정초에 말려서 초파일까지 먹고 초파일 밥은 칠석까지 두고 먹었으니, 한 해로 보면 묵힌 밥을 먹을 때가 더 많았다. 이에 어른 스님들은 늘 “온 쌀 먹으면 복감福減한다.” 하여 온전한 쌀로 밥을 지어 먹으



사진 6. 통도사 대웅전 불단의 공양미.

면 복을 감하게 된다고 새겼다. 한 톨의 쌀도 시주의 은혜이기에 귀하게 여기면서 어린 행자들을 다독인 것이다.

노스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1960~1970년대까지 잔반 보관에 솔잎 물을 쓴 사찰은 전국적이었다. 1920년대의 월간지 『불교佛敎』에도 “스님은 송죽 거리 논을 팔아 남장사에 만일회萬日會를 차렸을 때, 나는 그 뒷방에서 논어를 읽었다.”는 구절이 있어, 송죽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솔잎 물을 이용해 밥을 보관하는 방법은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민간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잔반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독불공은 1970~19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합동불공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불공이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송죽, 솔잎 밥’과 같은 지혜식智慧食이 생겨난 셈이다.

## 생미 마지, 국수 마지

독불공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마지 대신 생미(生米)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에 1970년대부터 생미를 올리는 독불공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한편으로, 점차 독불공 또한 합동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져온 쌀로 오롯이 마지를 지어 불보살과 신중께 올리며 발원하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불법에도 맞지 않고 소모적이나 자연스럽게 바뀐 대표적인 불교문화이다.

근래에도 상황에 따라 ‘생미 마지’가 오른다. 진관사에서는 각 전각에 올리는 마지 밥의 양을 가늠하여, 대중이 공양할 분량보다 많을 때면 그때그때 생미를 올리는 전통을 세워나갔다. 밥을 남겨서 말리기보다는 생미를 올리는 것이 삼보에 보시한 식량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라 여겼기



사진 7. 석남사의 대웅전 마지 올리기. 사진: 석남사.

때문이다. 따라서 생미 마지는 밥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처님을 위시한 성중과 승가 대중의 공양을 가늠해 올리는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였다.

“독성獨聖은 생식을 한다.”고 보아 나한전에는 아예 생미를 올리는 절도 있었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에는 이와 관련된 중창 영험담이 전한다.

스님이 석굴암에 움막을 짓고 중창발원 기도를 하던 중, 노보살 셋이 불공을 드리려고 찾아왔다. 석굴이 좁아 스님은 바깥으로 나와서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노보살들이 불기에 생미가 담긴 것을 보고, “나한님 마지를 생쌀로 올리는 걸 보니 게으른 절이군.” 하며 험담하였다. 그런데 불공이 끝날 무렵 고개를 든 노보살들은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독성의 입과 가슴·무릎 여기저기에 쌀알이 붙어 있고 불기의 쌀은 움푹 파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석굴암 나한님이 생쌀을 드신다.”는 소문이 퍼져, 공양미를 들고 몰려든 신도들 덕에 중창 불사를 원만히 회향했다고 한다. 어떤 단壇에 오르는 어떤 마지에도 저마다의 내력과 공력이 있음을 새겨보게 하는 설화이다.

일상의 마지는 백미로 지은 밥이지만, 명절이면 다채로운 절식節食이 오른다. 설날에는 떡국 마지, 대보름에는 오곡밥 마지, 동지에는 팔죽 마지, 추석에는 쌀밥과 함께 송편이 나란히 오르게 마련이다. 설달그름에 묵은 제사를 지내는 절에서는 이



사진 8. 진관사의 동짓날 팔죽 마지.  
사진: 진관사.



사진 9. 해인사의 대웅전 마지 올리기. 사진: 해인사.

날 떡만둣국 마지를 올리고, 매달 스님들 삭발하는 날에 나오는 찰밥도 어김없이 부처님께 먼저 올렸다.

1960년대 말, 청담靑潭 스님은 도선사 불단에 국수를 올려 “불전에는 쌀밥 마지를 올린다.”는 틀을 깨었다. 쌀이 절대 부족하여 혼식·분식을 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던 시절이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밥 대신 국수를 올린 것이다. 실제 극심한 식량난으로 쌀이 귀했던 당시에는 절에서도 쌀이건 보리건 있는 대로 마지를 지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커다란 낫쇠 그릇에 담긴 국수는 불전에 쌀밥을 올리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과 중생의 고난을 보듬는 ‘부처님의 마음’이 합쳐진 변주곡이었다. [당鏡]

○ **구미래**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불교민속 전공),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주요 저서로 『공양간의 수행자들: 사찰 후원의 문화사』,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삼화사 수륙제』,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제』 등이 있다.

## 막고굴 〈법화경변상도〉



김선희\_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막고굴莫高窟 제420굴은 중국 돈황의 대표적인 석굴 사원으로, 제420굴에는 불교미술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특히 『법화경』 사상과 미술적 특징이 결합된 〈법화경변상도〉가 남아 있다. 막고굴 제420굴 천정 서쪽 경사면 좌측에는 수대隋代 초기에 조성한 〈법화경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제420굴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복두형覆斗形 천정이다. 천정의 구조는 중앙의 방형 조정을 중심으로 사면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졌다. 천정의 중앙에는 연꽃무늬를 그리고 천정의 네 경사면에는 〈법화경변상도〉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다. 먼저 경사면 화면을 주목해 보면, ‘보살보시신육수족菩薩布施身肉手足’의 내용<sup>1)</sup>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우측에는 『법화경』 「견보탑품」을 묘사한 석가 다보의 이불병좌상이 그려졌다. 두 분의 여래는 하나의 보개寶蓋와 대좌 위에 나란히 앉아

1) 『법화경』에 등장하는 “복견보살復見菩薩 신육수족身肉手足 급처자시及妻子施 구무상도求無上道 우견보살又見菩薩 두목신체頭目身體 혼악시여欣樂施與 구불지혜求佛智慧.”라는 내용.

설법하고 있다. 좌측 하단을 살펴보면, 잎이 무성한 나무들과 산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산 모양이 흥미롭다. 산 정상의 형세가 마치 부리가 있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곧 붓다가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인 영취산을 표현한 것이다.

### 보살이 육신과 손발을 보시하는 장면

서쪽 감실에는 불상 1존, 비구 2존, 보살 4존으로 이루어진 칠존상이 모셔져 있다. 불감 바깥쪽 위쪽에는 <유모길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이



사진 1. 막고굴 제420굴 천정 서쪽 경사면 좌측, 법화경변상도, 보살보시신육수족菩薩布施身肉手足 부분도(수대隋代), 平丹寺.

변상도는 『유마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유모길변상도>의 핵심 인물은 유마힐이며, 그는 재가 신자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현한 인물이다. 아래쪽에는 여러 보살중衆이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조각상의 벽화는 모두 수나라 시기의 대표작이다.

<사진1> 하단 중앙 부처님 앞의 연못에는 한 보살이 허리를 의자에 묶고 앉아 있다.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발을 씻어주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은 등을 씻어주고 있다. 이 보살이 자신의 몸과 손, 발을 청정하게 해야 하는 실천(鞭施)을 표현하고 있다. <법화경변상도>의 특징은 부처님이 직접 표현된다는 점과 경전에 담긴 교의에 중점을 두고 화면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 남, 서의 경사면에 이어서 「방편품」, 「비유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표현하였으며, 이불병자상이나 <법화경변상도> 역시 모두 막고굴에서 수대 <법화경변>의 형성 과정 중에 창출된 도상들이다.

## 정형화된 형식의 <법화경변상도>

후기 <법화경변상도>는 점차 형식적으로 정형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반기처럼 독창적인 도상이 창출되거나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은 점차 드물어졌다. 하지만 화면구성과 내용은 더욱 치밀해졌다. 막고굴 제61굴은 오대五代(907~960)에서 북송北宋(11세기) 시기에 조성되었다.

석굴의 규모는 막고굴에서도 가장 큰 석굴 중 하나로 불국토를 표현한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 특히 오대~송대의 영향을 받은 초당산[潮信山] 벽화, <법화경변상도>, <보살행도> 등이 유명하다. 특히 막고굴 제61굴 남벽의 <법화경변상도>는 이처럼 정형화된 변상의 대표적인 작례(作禮)이



사진 2.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平丹寺.



사진 3.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부분도.



사진 4.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부분도.



사진 5.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부분도.



사진 6.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부분도.

다. 그러나 막고굴의 40여 점의 <법화경변상도> 가운데 가장 완전한 변상도로, 그림에 약 20여 점이 표현되었다. 구성 자체는 그렇게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방제가 많고 글씨가 비교적 뚜렷하여 『법화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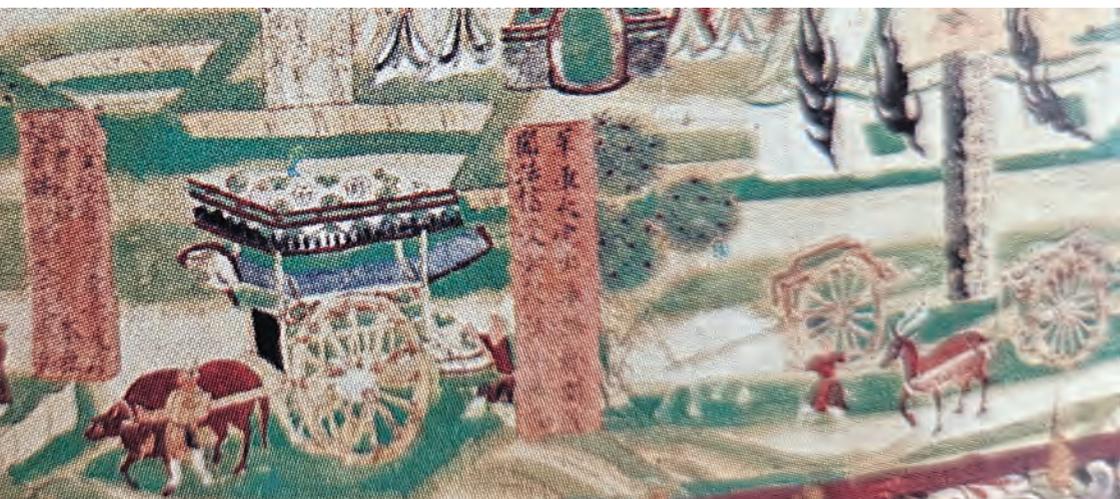


사진 7.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오대五代) 부분도.

제61굴 <법화경변상도>는 화면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사진 2>의 배경은 석가모니 삼존불이 산상설법山上說法, 즉 영취산 설법이다. 화면 중앙 「서품」 영취회를 중심으로 법회 장면의 양측에 「중지용출품從地踊出品」과 「제파달다품提婆達多品」, 위쪽에는 「보탑품」, 아래쪽에는 열반상을 차용한 「방편품」을 묘사했다.

경전에서는 열반의 순간조차도 방편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 「방편품」 아래에는 「비유품」이 묘사되었고, 맨 아래 양 모서리에는 「신해품」을 비유하고 있다. 그 우측 공간에는 「안락품」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동쪽에는 「유성품」, 「약초비유품」, 「화성유품化城喻品」, 경전의 흥포를 독려하는 「수희공덕품」, 「묘음보살품」, 경전을 수지 및 설법을 맹세하는 「권지품」, 「다라니품」, 이들은 온갖 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는 「상불경보살품」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양측에는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이들을 수호하는 「약왕보살본

사품, 「묘장왕본사품, 「여래수량품」이 묘사되었으며, 이어서 「관음보문품, 「제바달다품, 「아라니품」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비유들은 여래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방편을 활용하여 제도하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방편의 다양성을 최고의 시각적 매개로 전달하고 있다.

### 막고굴의 걸작 <견보탑품허공회>

<사진 8>은 돈황 벽화 중 <견보탑품허공회>를 그린 걸작이다. 화면 중앙에는 칠보탑으로 이어지는 어가御街식 계단이 있다. 탑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 문이 열려 있어 그 사이로 석가모니와 다보여래多寶



사진 8. 막고굴 제23굴 남벽, 법화경변상도 견보탑품허공회(성당盛唐), 平丹寺.

如來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밝고 웅장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칠보탑 주변에는 제대보살과 천룡팔부신중, 비구들이 타원을 형성하여 마치 달을 둘러싸고 있는 별과 같다.

회중會衆 아래에는 배 모양의 상서로운 구름이 그려져 있고, 많은 회중이 큰 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는 자신의 초자연적 힘을 사용하여 공허 속에 있는 대중을 모두 연결한다.”는 경전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중 위의 공간에는 여덟 무리의 언덕이 그려져 있어, 사람들은 이 언덕들이 아주 멀리 있다고 느낀다. 실제로는 불과 지척의 거리지만, 천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석가모니불 앞에 500유순 높이의 칠보탑의 꼭대기는 우뚝 솟아 있고, 석가모니의 화신인 시방제불諸佛,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협시보살이 각각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먼 불국토에서 영취산 위로 모여든 작은 배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벽 전체를 바람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연환화連環畫 모습의 관세음보살도

〈사진 9〉는 중국 돈황 막고굴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되었으나, 1907년에 영국인 스타인(Marc Aurel Stein)에 의해 지금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이 그림에 묘사된 주된 도상은 관세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 중앙에 서 있고, 밝은 녹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로 구성된 아몬드 모양(배 형, 연잎 형)의 후광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어 단순하지만 아름답다. 관음보살은 왼손에 정병을, 오른손에 연꽃 줄기를 들고 있으며, 연



사진 9. 막고굴 법화경 보문품변상도(북송北宋),  
대영박물관 소장.

꽃 줄기 꼭대기에는 화불이 있다. 화개 양측에는 비천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떤 비천은 꽃을 뿌리고, 어떤 비천은 향로를 들고 있으며, 그들이 입은 긴 천상의 옷이 공중에 펼쳐지며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법화경』 「보문품」에 기록된 내용에 맞춰 관세음보살이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하는 모습을 연화화(連環畫)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대부분 먹선 구획(鉤勒) 선묘로 그려져 있는데, 윤곽이 뚜렷하고 설색은 비교적 담담하다. 이는 오대에 티베트 밀교 신앙과 중국 불교 신앙이 혼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吉

- **김선희** 동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수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경상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창원민속역사박물관 자문위원,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감사 및 불교미술 작가로 활동 중이다.

# 구루 린뽀체의 오도처 파르뽕의 동굴



김규현\_ 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카트만두 분지의 젓줄인 바그마띠(Bagmati)강 상류에 위치한 파르뽕 마을은 예부터 천하의 명당으로 알려진 곳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등지를 틀고 수행삼매에 들었던 곳이다. 그러니만치 수많은 사원과 수행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종교적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 파르뽕 마을 원경. 흰색 원으로 표시된 곳에 마을의 랜드마크인 거대한 구루 린뽀체의 소상塑像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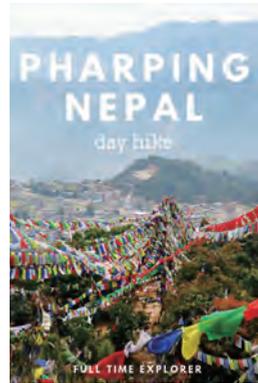


사진 2. 성지 파르뽕 안내 책자 표지.

## 이름 높은 성지 파르뵙(Pharping) 마을

우선 만트릭 불교에서 붓다의 여성적 측면을 기리는 사원으로 ‘신성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즈라 요기니(Vajra Yoghini) 사원 외에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들(까규빠, 사카빠, 닝마빠, 겐룩빠 등)의 크고 작은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

힌두교 쪽으로는 깔리(Kali) 여신 계열의 닥신깔리(Dakshin-Kali) 사원이 유명하다. 이곳은 근교의 힌두교인들이 뿌자를 올릴 때마다 희생제의犧牲祭儀를 치르는 곳이다. 물론 힌두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지겠지만 불교 쪽 시각에서 보면 피비린내를 참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마을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돌루(Dollu) 또는 마하구루(Maha Guru) 사원 경내에 세워져 있는 구루 린뽀체의



사진 3. 파르뵙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대문.

거대한 좌상이다. 높이가 무려 40m에 달하기에 마을에 들어오기 전부터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온다. 물론 이런 거대하기로 유명한 불상보다 이 마을로 일년내내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구루 린뽀체, 빠드마삼바바(Padmashabhava, 蓮華生, 732~?)의 체취가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붓다보다도 오히려 구루 린뽀체의 소상이 더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 몇몇은 규모가 거창하기 그지없다. 그들에게는 ‘제2의 붓다’, 아니 그냥 ‘붓다’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구루 린뽀체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다. 어찌 보면 맹목적인 정도이다.

이외에도 지금도 파르뽕에서는 구루를 ‘양레쇼의 판디따(Pandita)’라고 칭송하면서 ‘지혜의 붓다’ 만주쉬리(Manjushri)와 비견되는 ‘구루마웨 쟈게(Guru Mawé Sengé)’라고도 부르고 있다.

## 하안거용 양글레쇼(Yangleshö) 동굴

오늘의 주인공 구루 린뽀체는 티베트고원에서 삼예(Samye) 사원의 건축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자 네팔로 내려와서 자기 수행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터를 잡았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때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784년 티송데젠 임금은 산따락시따를 네팔로 피신시켜 반~~대~~불교 정서가 가라앉은 후 다시 돌아오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그는 네팔로 향하는 도중에서 유명한 판트라 술사(구루 린뽀체)를 만나서 그를 토번왕국으로 초청하였다.”



사진 4. 마하구루 사원에 있는 네팔 최대의 구루 린쁘체의 좌상 앞에서의 필자.

그 당시 네팔의 불교중심지 빠탄(Paratan)에는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황제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고대 사리탑 4개가 자리 잡고 있고, 또한 티베트와는 다르게 불교적 풍토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지만 번잡한 곳을 좋아하지 않는 구루는 카트만두의 남서쪽 언덕에 있는 파르뽕으로 마치 전생의 익숙한 수행터인 듯 끌려들어 갔다고 한다.

마을 뒷산 울창한 숲속에는 2개의 동굴이 있다. 바로 구루 린뽕체가 수행을 했다고 불교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곳으로 구루 린뽕체 자신이나, 나아가 티베트 밀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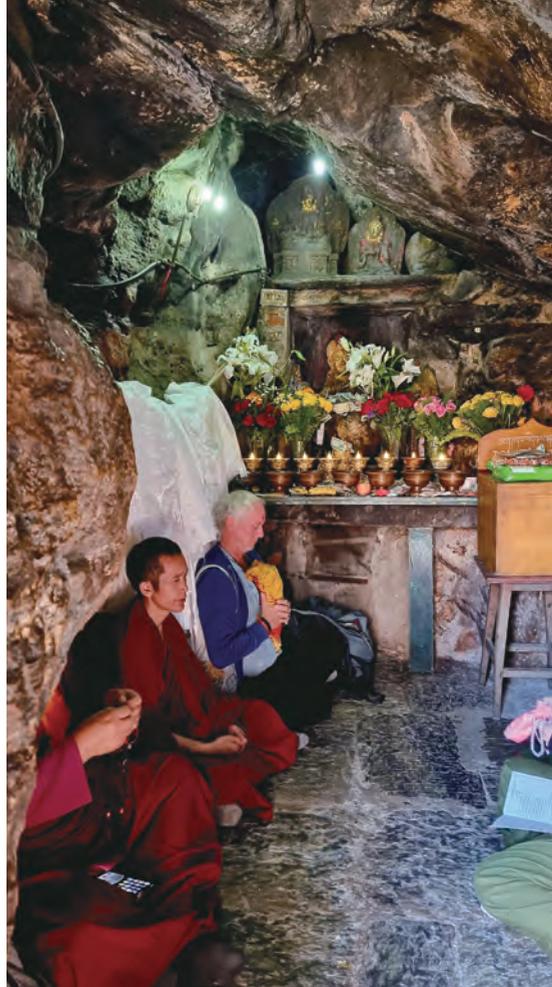


사진 5. 아수라 동굴 내부. 순례자들이 바치는 향촉화香燭花의 공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 구루의 영적 배우자 샤카데비

이곳에서 그의 곁에는 벨모 샤카데비(Belmo Shakya-Devi)라는 판트릭 배우자(T.Consorts)가 있어서 서로 탁마상성琢磨相成하면서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대목은 우리 불교적 시각으로

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자와 같이 한 동굴에서 살면서 수행을 했더니….

그러나 높은 경지의 판트릭 수행에는 상대적인 반려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구루 린 뽀체에게는 5명의 영적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녀도 그중 한 명이라고 한다.

구루를 도와 마지막 성취를 이루게 한 그녀는 네팔 왕 뽀예다하라(Punyedhara)의 딸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루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과 발이 거위처럼 물갈퀴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지혜의 다키니(dakini)로 인정하고 그녀를 자신의 영적 배우자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선 두 명의 영적 배우자들<sup>1)</sup>인 예세초갈(Yeshe Tsogyal)이나 만다라바(Mandalaba)보다는 존재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티베트 불교와 젠더(Gender) 문제는 필자가 언젠가는 한번은 다루어 보고 싶은 시대적인 콘텐츠이지만 후일로 미루고 오늘은 구루의 마지막 깨달음의 실체를 쫓아가도록 한다. 아무튼 두 사람은 아래 동굴 양글레쇼(Yangleshö)에서 판트라판테온(T.Pantheon)의 ‘8명의 수호존守護尊(Kagye)’ 중의 한 분이며, 분노신의 형태인 ‘양닥 헤루카(Yangdak Heruka)’와 ‘바즈



사진 6. 분노형상을 한 ‘8명의 수호존守護尊’ 중의 하나인 (양닥헤루카 만다라).

1) 예세초갈과 만다라바의 전기는 티베트어, 힌디어, 영어로 번역되었지만 나머지 3명의 기록은 전설로만 남아 있다. 티베트 불교 도상학에서 구루의 오른쪽에는 만다라바가, 왼쪽으로는 예세초갈이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7. 아랫동굴 양글레소로 오르는 계단.

라킬라야(Vajrakilaya)을 연결하는 수행에 몰두하여 ‘마하무드라의 싯디(siddhi)’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구루는 인도에 있는 그의 스승에게 서신을 써서 두 명의 네팔인 제자 부부를 날란다 대학으로 보냈다. 이에 스승은 바즈라킬라야 수행요지를 적은 「킬라 비토타마 판트라(Kīla Vitotama Tantras)」를 가득 실은 노새 두 마리를 보내어 옛 제자를 도왔다.

그리하여 구루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을 시작하자 모든 마장魔障이 제거되면서 카트만두 계곡에는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긴 가뭄이 끝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구루께서는 ‘양닥헤루카’를 수행함으로써



사진 8. 구루의 파르벵에서의 수행반려자 샤카 데비 초상.

세의 인연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에 티베트 땅 밖에서 구루와 연결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꼽히고 있다.

## 동안거용 아수라 동굴

아래 동굴에서 1년이란 시절인연이 무르익자, 구루와 샤카데비는 겨울에도 햇볕이 잘 드는 윗 동굴인 아수라(Asura)로 거처를 옮겼다. 지금도 원숭이 떼가 몰려다니는 울창한 숲속에 있는 곳인데, 여전히 수많은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써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시 생겨난 마장과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바즈라꺨라야의 수행과 병행하여 한 단계 높은 성취(Maha-Mudra siddhi)를 증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루께서 한때 인도에서 만행을 하며 수행할 때 시타바나(Sitavana,尸陀林) 숲에서 8명의 만트라 수행자로부터 지도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인 흠카라(Vajra Humkara)도 이 동굴에서 그의 영적 배우자와 함께 성취를 얻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이곳은 구루에게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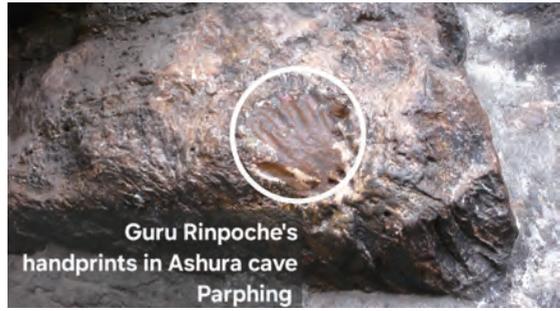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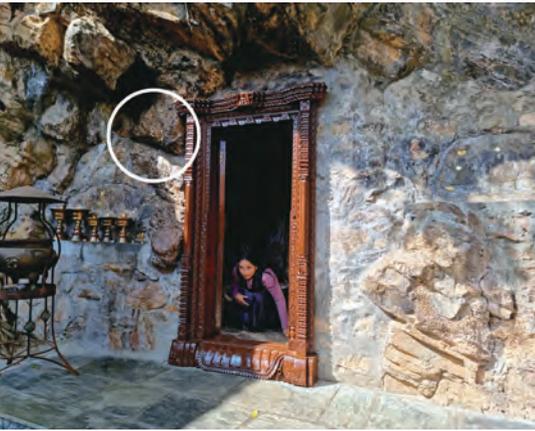


사진 9-2. 위 손자국(흰색 원 안).

사진 9-1. 윗동굴 아슈라 동굴 입구의 오른쪽 위에 보이는 구루의 선명한 손자국.

그러니까 이곳에서 두 사람은 만트라 수행을 계속하여 마지막 단계의 성취(Vidyadara Rigzin)를 증득하여 마침내 칠채화신(七彩化身(Rainbow Body)<sup>2)</sup>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입멸 자체도 무지개로 천화(遷化)했다고 앞에서(24년 10월호) 이야기한 바 있다.

참, 아슈라 동굴 참배할 때 ‘팁’ 하나….

마지막 성취를 얻은 기쁨에 동굴에서 나온 구루께서는 바위에 손을 대고 손자국을 남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손자국은 오늘날까지도 동굴 입구 왼쪽 위 바위에서 볼 수 있다.

“음 아 흠 바즈라(벤자) 구루 빠드마(빠마) 싯디 흠!” 

2) 구루는 804년 망엿땅 궁탕고개에서 천상의 무지개에 올라타 유성처럼 날아서 빛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른바 님마빠의 대성취자만이 증득할 수 있다는 ‘무지개몸(Rainbow body, 七彩化身)’으로 변해 사라졌다는 말이다.

○ **다정 김규현** 현재 10년째 ‘인생 4주기’ 중의 ‘유행기(遊行期)’를 보내려고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로 들어가 네팔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틈틈이 히말라야 권역의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있다.

## ‘도덕적 무지’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



허남결\_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두 차례에 걸쳐 동서양의 ‘공공’과 ‘사私’의 윤리에 대해 살펴봤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적 윤리’의 정서가 ‘공적 윤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도덕문화가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공직자문화는 보편적 가치의 적용에 앞서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에서 비롯된 사적 친분관계를 더 중시하는 일종의 ‘의리(배신) 문화’가 암암리에 지배적인 에토스(ethos)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라를 불안과 혼란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수사기관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둘러싼 찬반 입장,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으로 국론이 양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의 발생원인과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보편적 윤리의식의 공유와 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윤리적 인식의 자각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적 가르침들도 고유한 사상의 전파 못지않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

용한 윤리적 메시지를 계속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부정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차원에서 재가불자들도 21세기적 미래환경에서 요청되는 윤리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 삶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도덕적 무지’와 ‘도덕적 책임’의 개념에 대해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도덕적 행위와 책임은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곧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도덕문화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과 사실상 동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감정의 표현과 사고방식 및 행동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를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사진 1. 트레이시 아이작(Tracy Isaacs, 1964~).  
캐나다 웨스턴대 철학과 교수.



사진 2. 체셔 칼훈(Cheshire Calhoun, 1954~).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철학과 교수.

있겠다. 말하자면 동일한 사회 내에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윤리적 잣대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들의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주어진 사회공동체의 도덕문화적 구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생긴다. 이 때문에 흔히 ‘문화(culture)’와 ‘행위(agency)’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들은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를 확장할 경우 특정한 도덕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처럼 도덕문화가 개개인의 가치와 행위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덕문화적 관행의 사회적 수용이 곧 그것의 도덕적 허용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곧 자신의 성장 환경인 내외부적 도덕문화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가치 및 목적들을 충실히 받아들여 내면화한(도덕문화화된) 결과가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간혹 사정에 따라 인간적인 ‘변명(excuses)’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보편적인 의미의 도덕적, 법적 ‘책임(responsibility)’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윤리학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다.

---

1) Michele M. Moody-Adams, “Culture, Responsibility, and Affected Ignorance”, *Ethics*(vol.104, January 1994, no.2), pp.291~292.

이런 상관관계를 혼동하면 우리들의 도덕적 행위는 그야말로 자의적인 통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멀어지고 말 것이 자명하다.<sup>2)</sup>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무지(moral ignoranc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도덕문화 안에서는 평상시 특별한 도덕적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심각한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게 된다.<sup>3)</sup> 우리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에게서 이런 ‘도덕적 무지’의 현장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장된 무지’와 ‘일상적인 잘못들’의 도덕적 책임

### ① 아테네 노예제의 경우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던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inability to appreciate something)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편리한 사회적 관행 속으로 몸을 숨겼던, 이른바 ‘가장된 무지(affected ignorance)’를 표방했던 것일까?

전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겠지만,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된 무지’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한 알아야 하는가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의 복합적인 도덕문화 현상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2) Tracy Isaacs, “Cultural Context and Moral Responsibility”, *Ethics*(vol. 107, July 1997, no.4), pp.670~672.

3) Cheshire Calhoun, “Responsibility and Reproach”, *Ethics*(vol. 99, July 1989, no.2), pp.389~390.



사진 3. 노예의 시중을 받는 아테네의 귀족.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관행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포함하기도 한다.”<sup>4)</sup>

여기서 보듯이 특정 집단의 도덕문화는 그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에 바탕을 둔 내적인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영속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특수부 검찰의 엘리트주의적 도덕문화를 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잘못된 관행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설사 그것이 그들의 도덕 정서상 용인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담스(Michele M. Moody-Adams)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의든 타의든 이번 비상계엄령 발동에 동참한 사인 및 공인들은 응분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만의 도덕적 관행의 묵수는 사회적 진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

4) Ibid.

## ②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의 경우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 학살 책임자로 악명 높았던 아이히만(Adolf Eichmann)을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도착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요, 가학적인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sup>5)</sup>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이히만을 통해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사악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괴물처럼 무서운 사람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에게 훗날 인류의 씻지 못할 과오로 남은 끔찍한 전쟁범죄 행위들은 그저 ‘늘 하던(routine)’ 일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4.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 ~1975).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

아담스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일상적인 일처럼 일어나는 그릇된 행위(banality of wrongdoing)’<sup>6)</sup>라고 표현한다. 그들도 여느 가장들처럼 일과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에 불과했다.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경감도 사무실에서는 자식들의 대학 진학을 걱정하던 한국의 평균적인 아버지에 불과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놀란 적이 있다.

5)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New York: Viking, 1963), p.253. Michele M. Moody-Adams(1994), p.298에서 재인용함.

6) Michele M. Moody-Adams(1994), p.298.

이와 관련하여 아담스는 ‘가장 된 무지’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예컨대, 고문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빗대어 ‘통닭구이’ 또는 ‘앵무새의 날개’라는 교묘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과 희생자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경우이고, 둘째는 회사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하면서도 동원된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서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경우이다.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거나 마치 자신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강변하는 것 등에서 우리는 ‘가장된 무지’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5. 미셸 무디 애덤스(Michele Moody-Adams, 1956~).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 도덕적 책임은 무한한가

이른바 ‘도덕적 무지’는 소속 사회가 공유한 도덕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흔히 ‘가장된 무지’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승은 ‘바담 풍’이라고 해도 제자들은 ‘바람 풍’이라고 알아들어야 할 일도 많았다. 그것은 비단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기성세대의 갖가지 사회적 부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된 도덕적 무지’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시적 후유증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그 생생한 사례가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혼란과 불안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한국사회 일반의 무의식적인 ‘도덕문화’가 부지불식간에 합작한 전근대적인 불상사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저 들었다.

이처럼 도덕문화와 개인행위의 관계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덕적 책임을 물어왔다.<sup>7)</sup> 그런 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진보는 사회의 도덕문화적 진보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새삼스럽지만 도덕문화의 영향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은 언제나 윤리적 삶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재가불자들의 인식변화와 태도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는 예컨대, 문중의식의 재고를 요청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윤리적 담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도덕문화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불교계가 주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희망을 품어봤다. **告**

---

7) Michele M, Moody-Adams(1994), p.292.

○ **허남결** 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졸업(문학박사), 영국 더럼대학교 철학과 방문학자 및 동국대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역저서로는 『불교윤리학 입문』, 『자비결과 주의』,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등이 있고, 공리주의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다.



## 돌쇠

벽돌은 커켜이 쌓으니 탑이 되고  
쇠는 단숨에 세우니 기둥이 되고

# 여섯 도적과 머리에 죄는 주문



강경구\_ 동의대 명예교수

삼장과 손오공이 서천길을 가는데 여섯 명의 도적이 나타나 길을 막는다.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기뻐함[眼看喜], 귀로 듣고 분노함[耳聽怒], 코로 맡고 애착함[鼻嗅愛], 혀로



사진 1. 여섯 도적과 손오공.

맛보고 생각함[舌嘗思], 뜻으로 알아 욕망함[意見慾], 몸은 본래 걱정함[身本憂]으로 불리는 도적들이었다.

손오공이 웃음으로 상대한다. “아! 여섯 도적들이셨어. 출가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길을 막는구나. 이제까지 훔친 보물을 내놓고 나랑 일곱 몫으로 공평하게 나누

자.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주지.” 그 도적들이 듣고 일제히 달려들며 외쳤다. “중놈이 무례하구나.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와 물건을 나누겠다니.” 도적들과 손오공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손오공이 여의봉을 꺼내 여섯 도적을 모두 죽여버린다.

삼장이 기겁하며 꾸짖는다. “강도이기는 하지만 죽을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쫓아내면 그만이지 굳이 죽여버릴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중이 될 수도 없고 서천에 갈 수도 없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손오공이 성질을 부리며 삼장을 떠나 동쪽으로 돌아가 버린다.

## 여섯 도적 상대하기

삼장과 손오공의 앞을 가로막은 여섯 도적의 정체는 그 이름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 이름들은 ‘감각기관[六根]×대상세계[六境]=분별의식[六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인식을 가리킨다. 예컨대 첫째 도적의 이름인 “눈으로 보고 기뻐함[眼看喜]”을 보자. 그의 성씨는 눈[眼]이고, 이름의 앞은 봄[看]이고, 이름의 뒤는 기뻐함[喜]이다. 눈이라는 감각기관[根]이 대상[境]을 봄으로써 기쁨이라는 분별인식[識]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나머지 도적들의 이름도 이러한 공식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손오공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이에 대해 삼장이 극력 비판한다. 여섯 도적을 죽여버린다면 “중[和尚]이 될 수도 없고 서천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찾을 수 있다. 「반야심경」은 『서유기』의 주인공인 삼장 현장이 번역한 것이고, 『서유기』의 전체 여정을 이끄는 여행 지침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함께 말하는 경전이다. 색즉시공이므로 5

온, 12처, 18계, 12연기, 4성제가 모두 공하다. 이것이 끝이라면 손오공에게 잘못이 없다. 모두 죽여 깔끔하게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색즉시공은 천차만별의 현상을 인정하는 공즉시색을 짝으로 하여 성립한다. 본질적 공과 현상적 모양의 불이성을 바로 보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삼장은 이렇게 말한다.



사진 2. 노파로 현신한 관세음보살.

출가수행자는 땅을 쓸면서도 개미의 생명을 다칠까 걱정한다. 등불을 켜도 나방의 생명을 아껴 비단 천으로 덮개를 한다. 어찌자고 다 짜고짜 한방에 때려죽이느냐 말이다. 자비심과 선의라고는 아예 없는 거냐?

누가 옳은가? 6근, 12처, 18계의 장애성을 바로 보아 깔끔하게 없애버린 손오공이 옳은가?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죽이는 험악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삼장이 옳은가? 『서유기』를 보면 삼장과 손오공이 충돌하는 장면이 수시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 대개 잘잘못이 반반이다. 절대부정과 절대긍정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은 이러한 치우침의 거듭된 충돌과 화해를 내용으로 한다. 서천 여행 내내 손오공과 삼장 간에 충돌과 화해가 거듭

나타났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관세음보살은 현장의 편을 든다. 왜 그럴까? 원래 『서유기』는 대승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다. 그 여행은 소승의 도달처인 아공법유我空法有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후 공에 집착하는 마음까지 내려놓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의 길을 걷는다. 그리하여 손오공의 ‘오공悟空’, 즉 공에 대한 깨달음은 아공에서 법공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궤적을 밟게 된다. 그 출발점에서 여섯 도적을 살해한 것이므로 공집空執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되는 것이다.

## 비단옷과 꽃 모자와 머리테 죄는 주문

손오공은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동쪽으로 돌아가고 삼장 혼자 남게 된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노부인으로 현신하여 나타나 비단옷과 꽃 모자를 주며 말한다. “이 비단옷과 금테 두른 꽃 모자를 줄 테니 제자가 돌아오면 그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언[定心眞言]’, 혹은 ‘머리테 죄는 주문[緊箍兒咒]’이라고 불리는 주문을 알려준다. 손오공이 옷을 입고 모자를 쓰면 바로 주문을 외워보라는 것이었다.

한편, 삼장을 떠났던 손오공은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삼장에게 돌아온다. 다리 아래 떨어뜨린 신발을 주워다 바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한 장량의 겸허한 마음 씀에 대한 이야기[圮橋進履]를 용왕에게 듣고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삼장에게 돌아온 손오공은 관음보살이 놓고 간 비단옷과 꽃 모자를 받아 좋아하며 착용한다. 이에 삼장이 주문을 외자 꽃 모자의 금테가 손오공의 머리를 죄다. 72가지 신통을 자랑하던 손오공이었지만 머리를 파고드는 금테의 위력에 항복하고 만다.

## 손오공의 자아와 회심回心

손오공은 삼장의 잔소리를 이해할 수 없다. 여섯 도적을 때려죽여 장애를 없앴다. 그것은 공의 도리에 철저한 옳은 실천이다. 그런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 이에 오행산에서 500년을 보내며 눌러왔던 자아가 ‘불쑥!’ 일어난다. 사실 여섯 도적을 상대할 때에도 자아가 부활할 조짐은 있었다. “출가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느니, “보물을 나누자”느니 했던 손오공의 말만 해도 그렇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12처 18계라는 대상이 있고, 결과물을 향유하는 일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장의 잔소리를 견딜 수 없다.

이 자아의 발호를 막는 길은 무엇인가? 인욕, 즉 참음의 실천이다. 『서유기』에서는 이것을 장량의 얘기로 환치하여 들려준다. 한나라를 창업한 한고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의 한 사람이다. 그런 한고조를 있게 한 세 명의 전설적 신하가 있었는데 장군 한신과 재상 소하와 책사



사진 3. 신선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장량.

장량이 그들이다. 그중 장량이 천하를 주무르는 안목을 갖게 된 사연이 있다.

장량이 젊었을 때였다. 신선 황석공黃石公이 노인의 모습으로 다리에 앉아 있다가 일부러 신발을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장량을 불러 주워 오게 한다. 장량이 즉시 신발을 주워다 무릎을 꿇고 직접 신겨준다. 그런데 신선이 다시 신발을 떨어뜨리고 주워오게 한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는 동안 장량은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고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노인을 위해 신발을 주워다 직접 신겨준다. 이에 황석공이 그에게 비법의 천서天書를 내려준다. 장량은 이것을 공부하여 천하를 주무르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그는 한나라의 통일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미륵보살은 “욕하면 좋다 하고, 때리면 넘어진 김에 자고, 침을 뱉으면 마르도록 놔두라.”고 했다. 『서유기』에서는 이 중국 버전의 인육담을 통해 손오공의 회심回心을 이끌어낸다.

## 금상첨화의 복장

지난 회에서 흰 도포에 호랑이 가죽을 걸친 손오공의 옷차림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 일이 있다. 그것은 원리(흰옷)와 현상(호랑이 가죽)의 불이성과 그 실천을 상징하는 복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세음보살이 준 비단옷과 꽃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복장에 변화가 일어난다. 비단(鋪)옷과 꽃[花] 모자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단어를 띄우기 위한 장치다. 사실 금테 두른 꽃 모자는 머리를 죄는 고통에 놀란 손오공이 모두 뜯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꽃 모자가 아니게 된다.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띄우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금상첨화란 무엇인가? 사실 비단옷은 불교의 수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금상첨화라야 한다. 손오공의 복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금상첨화, 즉 비단에 꽃 더하기다. 우선 호랑이 가죽과 어울려 금상첨화다. 손오공은 흰옷을 벗어버리고 비단옷을 입었다. 흰옷은 이치[理]이고 비단옷은 현상[事]이다. 그러니까 흰옷 대신



사진 4. 비단 옷차림의 손오공.

비단옷을 입음으로써 이사무애에서 사사무애로의 복장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요컨대 비단옷과 호랑이 가죽이 함께 하는 옷차림은 사사무애의 실천을 상징한다. 현상 그대로 본질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단옷과 꽃 모자도 금상첨화다. 문자적으로 그럴뿐더러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무엇보다 꽃 모자가 사라지고 금테만 남게 된 상황에서도 금상첨화다. 왜 그런가? 사사무애의 법계연기가 되려면, 즉 삼라만상의 현상 그대로 진리가 되려면 주체와 대상의 분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모자의 금테가 그 일을 한다. 금테가 머리를 죄면 손오공이라는 주체가 사라진다. 또 그와 동시에 주객을 나누는 분별 또한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므로 여섯 감각기관이 청정해지고[六根淸淨] 그 기능이 완성되는데[成所作智] 기적이 일어난다. 다만 손오공은 이제 겨우 그 단초를 본 정도에 머물러 있다.

## 여래의 다섯 보물과 머리 죄는 테와 주문

그렇다면 자아의 발호를 둘러 사사무애의 실천으로 이끄는 머리 죄는 주문[緊箍兒咒]은 무엇일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언[定心眞言]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풀리지 않는 『서유기』의 비밀이기도 하다. 관세음보살이 경전을 구하러 갈 사람을 찾기 위해 동쪽으로 떠날 때 석가여래에게 다섯 가지의 보물을 받는다. 금란가사와 아홉 고리 석장[九環錫杖]과 세 개의 머리테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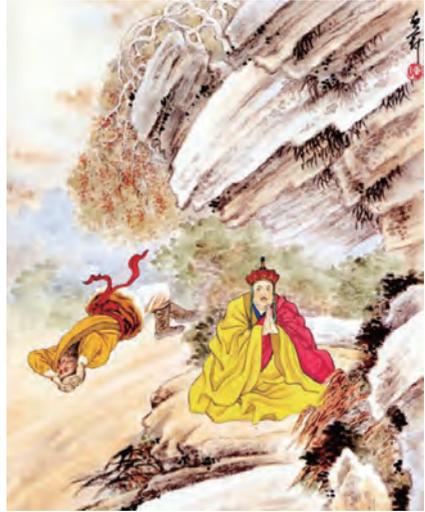


사진 5. 머리 죄는 고문에 고통받는 손오공.

이 중 가사와 석장은 서천행을 시작하기 전의 삼장에게 전달된다. 왜 금란가사일까? 또 왜 여섯 고리(바라밀)도 아니고, 여덟 고리(8정도)도 아니고, 열두 고리(12연기)도 아닌 아홉 고리 석장일까? 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세 개의 테와 주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석가여래는 이 세 개의 고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보물은 죄는 테[緊箍兒]라고 하는데 세 개의 모양이 똑같지만 쓰임새는 다르다. 황금[金]의 주문, 죄[緊]는 주문, 금지[禁]하는 주문을 전수하겠다. 신통이 광대한 요마를 만나거든 잘 권해서 경전을 가지러 오는 이의 제자가 되도록 하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테를 그

머리에 씌우도록 하여라. 그러면 저절로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에 맞는 주문을 외면 눈이 터질 듯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서 틀림없이 불문에 들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이 세 개의 테 중 금지하는 테[禁籙]는 곱에게 씌워 낙가산의 산신으로 삼고, 황금 테[金籙]는 홍해아에게 씌워 보살을 따르는 선재동자로 삼는다. 테의 이름에 황금 금鎡 자를 쓴 것은 선재동자善財童子의 재물 재財 자를 떠올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세 개의 테 중 손오공을 겨냥한 것이 죄는 테와 주문[繫籙兒呪]이다. 이 세 개의 테와 주문은 탐진치를 상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탐심으로 가사를 훔친 곱에 대해서는 금지하는[禁] 테와 주문을, 분노로 포악한 마음을 내는 손오공에 대해서는 꼭 죄는[繫] 테와 주문을, 절멸의 어두운 선정에 집착하는 홍해아에 대해서는 황금[鎡]의 테와 주문을 썼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 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알 길도 없다. 다만 그 잃지 않게 하는 기능[能持]과 막는 기능[能遮]이라는 주문 공유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삼장과 손오공은 우주 법계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불교적 진리를 현장에서 실습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원사유의 습관 때문에 이것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원 분별을 막고 둘 아닌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능차能遮와 능지能持를 동시에 실천하는 길,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언, 긴고아주의 염송이다. 古鏡

○ 강경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퇴직 후에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으로 성철선의 연구와 문학의 불교적 해석에 임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간을 참선과 기도에 쓰면서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생불을 자처하며 역모를 꾀한 요승들



이종수\_ 국립 순천대 사학과교수

실록에서 요승妖僧이라는 표현은 조선 전기 거의 모든 왕조에 등장한다. 그 가운데 오늘날 고승으로 평가되는 승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세종~문종대의 신미대사, 성종~중종대의 학능대사와 학조대사, 명종대의 보우대사 등이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에 요승이라는 표현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전기와 달리 어떤 주요 사건에 연루된 승려에 대해서만 요승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기와 후기의 조정 대신들의 승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 의승병의 활약과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일까?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의승병의 활약으로 '세속을 떠나 충과 효를 무시하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불교도 '충과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에 이미 중앙 권력에서 승려들이 배제되었으므로 조정에서 승려에 대해 다룰만한 사건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요승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은 광해군대이다.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전란이 일어난 것이 풍수와 관계가 있다고 여겨 한양에 새로 궁궐을 짓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광해군은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제치고 임금인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풍수설을 이용했다. 풍수가의 주장에 동조하여 교하(交河)로 천도하려 했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경궁과 경덕궁 공사를 강행하였다.

성지(性智)는 요승이다. 처음에 인왕산 아래에 왕기(王氣)가 있다는 설을 가지고 왕을 미혹하여 인경궁을 세우게 하고 통정대부에 올랐는데, 이번에 또 침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아 머리에 옥관자를 두르고 말을 타고 다니는 등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지침지'라고 불렀는데 계해년(1623)에 사형당하였다.

- 『광해군일기』 10년(1618) 10월 4일.

위 인용문은 1618년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만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추가된 기록이다. 광해군은 풍수설에 현혹되어 있었으므로 폐위된 임금인 단종과 연산군이 머물렀던 창덕궁을 불길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당시 창덕궁 외에도 창경궁과 경운궁이 있었지만 그곳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규모의 궁궐을 새로 짓도록 명하였다. 그것



사진 1. 경희궁 승정전. 사진: 국가유산청.

이 인경궁과 경덕궁이다.(인경궁은 인조대에 훼손되었고 경덕궁은 경희궁으로 개명되어 현존한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성지는 그 인경궁 건립에 관여하였다. 성지는 무안 총지사桴持寺에서 출가하여 사대부의 집에 출입하면서 풍수를 봐주다가 광해군의 눈에 띄었던 인물이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정3품에 해당하는 첨지중추부사의 지위까지 올랐으나 인조반정 이후 사형당하고 요승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대에도 요승이라 불린 승려가 있었다. 1631년 옥천에 사는 조흥빈이 역모와 관련된 내용을 고발하였다. 역모를 모의했던 자들은 영남의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도참圖讖을 믿는 자들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 가운데 승려이거나 환속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흥빈이 진술하기를 “부근 마을에 사는 출신出身 권대진이란 자가 지난 기사년(1629)부터 요승 두 사람 및 무뢰한들과 왕래하며 회합을 가졌는데, 거동이 수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의 상相으로 볼 때 앞으로 아주 귀하게 될 것이며 우리 집의 터도 좋아서 오·미未년 사이에 부원군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

— 『인조실록』 9년(1631) 2월 3일.

이 사건은 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되었고 수십 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승려로는 사성師聖, 태허太虛, 승윤勝允 등이 있었는데, 승윤은 환속하여 양천식이라는 이름으로 거사를 도모하였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도참서인 『정감록』에 기반한 모반 사건에 승려들이 연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풍수리지와 도참설에 입각해 역모를 꾀하다

이후 요승이라는 명칭이 『실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숙종대이다. 처경이라는 승려가 소현세자의 유복자遺腹子 행세를 하려다가 참형당한 사건이다.

요승 처경處瓊은 평해군의 아전 손도의 아들이다. … 신해년(1671)에 스승을 떠나 경기 지역을 떠돌아 다니면서 스스로 신승神僧이라 칭하고, … 작은 옥으로 만든 불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불상에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물결처럼 달려가 그를 생불生佛(살아 있는 부처)이라 일컬었고, 여러 궁궐의 나인들 중에 사찰에 왕래하며 공양하는 자들이 모두 그를 높이어 믿었고 사통하는 자도 있었다.

여자 거사로서 묘향妙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양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었다. 일찍이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물에 던져졌다는 말을 듣고는 처경에게 ‘소현 세자의 유복자가 물에 던져졌다고도 하고, 생존해 있다고도 말하는데, 스승님의 얼굴이 매우 맑고 깨끗하여 왕자의 외모인 듯하니, 어찌 그 유복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처경이 이 말을 듣고 간사한 마음이 싹뻗었다.

그 후 복창군福昌君(인조의 손자) 집안의 사람에게 그때의 일을 자세히 듣고서, 요망한 술수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더니, 마음속으로 국가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다. 마침내 왜의 능화지菱花紙를 일부러 더럽히고 언문으로 ‘소현 유복자, 을유 4월 초 9일생’이라 쓰고, 그 아래에 또 ‘강빈姜嬪’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 그리고나서 영의정 허적의 집에 가서 올면서 그 종이를 보이고 말하기를, ‘이것은 강빈의 필적입니다. 매번 두려워하며 감히 내어놓지 못하였는데, 지금 성인의 시대를 만나서 감히 와서 아웁니다.’고 하였다.

- 『숙종실록』 2년(1676) 11월 1일.

처경이 능화지에 써서 가져간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소현세자는 4월

26일에 사망하였으므로 4월 9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소현세자가 살아 있을 때이므로 유복자가 아니게 되고, 소현세자의 부인을 강빈이라 칭한 것은 소현세자가 사망한 이후이므로 이 또한 사실과 맞지 않았다. 결국 모든 일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처경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황해도 해주에서 사당을 세우고 처경의 위패를 모신 곳에 영험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진관 이선이 아뢰기를, “해주의 요망한 무당이 역적 이남李栲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또한 역적 허견許堅 및 죄로 죽은 승려 처경을 배향하고서 영험이 있다고 말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쫓리듯이 모여든다고 하니, 일이 지극히 해괴합니다. …”

— 『숙종실록』 13년(1687) 4월 30일.

황해도 해주의 무당이 사당을 세우고 이남과 허견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남과 허견은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른바 경신환국(1680년) 때 희생되었던 남인 출신이었다. 그런데 남인들과 별다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처경이 그들의 사당에 배향되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마도 황해도 해주를 중심으로 서인에 대한 저항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고,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황해도 지역의 민간 저항 정신은 그 이듬해 역모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요승 여환呂還 등 11인이 역모를 꾀하다가 사형당하였다. … 여환이라는 자는 본래 통천의 승려로서 스스로 말하기를, ‘… 석가의 운

수가 다하고 미륵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라는 말을 떠벌이며 경기와 황해 지역을 다녔다. 또 … ‘이 세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용龍이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주관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은울에 사는 양민 집안의 딸 원향元香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양주에서 정씨 성을 가진 여자 무당 계화戒化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처 원향元香을 용녀부인龍女夫人이라 하고, 계화는 정성인鄭聖人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괴서怪書를 만들어 이르기를, ‘… 7월에 큰 비가 퍼붓듯 내리면 산악이 무너지고 도읍이 모두 쓸려 없어질 것이니, 8월이나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도성으로 들어가면 대궐 가운데 앉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숙종실록』 14년(1688) 8월 1일.

## 남인의 재기를 명분으로 반란을 꾀하다

여환은 미륵세계가 올 것이라 하고 자신의 처를 용녀부인이라고 하였다. 불교에서 용은 미륵불을 상징하므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처한 셈이다. 황해도 은울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경기도 양주에 머물며, 7월에 큰 장마가 져서 한양이 물에 잠기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 힘들이지 않고 점령하여 임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군장과 장검을 갖추게 하고 처 원향에게 남자 복장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데 여환이 예언한 날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결국 역모의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모두 검거되었다. 불교의 미륵신앙이 반란 세력과 결합한 역모 사건이었다. 그런데 황해도 지역의 역모 사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발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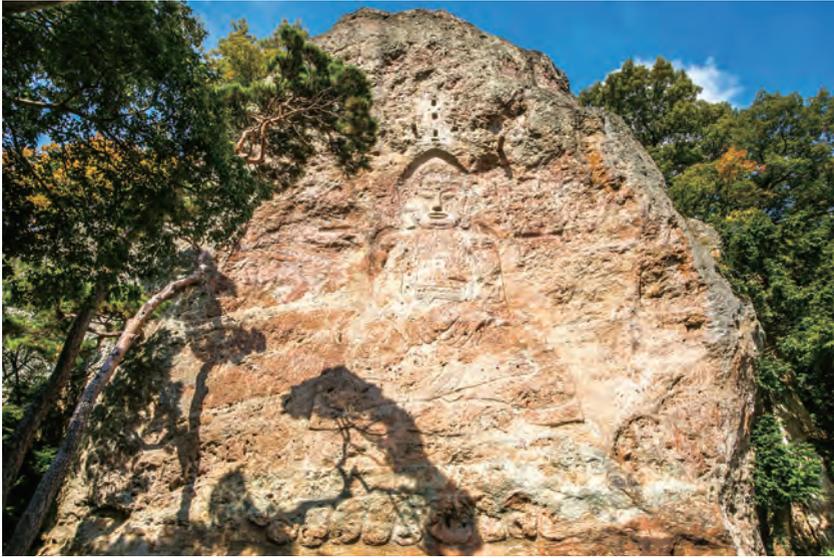


사진 2. 선운사 도솔암 미륵불(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소재). 보물.

해서의 죄인 차충걸·조이달을 붙잡아 조사하고 요상하게 말하여 임금을 범한 죄로 참형에 처하였다. 차충걸은 해수에 살고, 조이달은 재령에 사는데, 모두 양민으로서 무당을 업으로 삼았다. 조이달의 아내인 애진은 더욱 요사하여 ... ‘한양이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떠벌리며 항상 전물(奠物)을 갖추어 산에 들어가 하늘에 제사하였고, 또 ‘수양산 꼭대기의 의상암에 정필석이라는 생불(生佛)이 있다. ...’ 하였다.

— 『숙종실록』 17년(1691) 11월 25일.

이 사건은 위의 여환 역모 사건과 함께 중죄인의 조사·판결서를 모아 엮은 추국기록문서인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차충걸이 여환의 처 원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 지니고 있었고, 원향은 조이달의 아내 애진으로부터 그 문서를 얻었다고 한다. 그런

데 위 글에서 전음(轉音)이라 한 것은 정(鄭)을 의미한다. 즉 전(轉)과 음(音)을 합하면 정(鄭)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황해도에서 활동하던 무속인들로 『정감록』에 기반하여 도참을 주장하였고, 그들이 믿는 미래의 임금의 바로 의상암에 있던 ‘정필석’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무속인들이 처경과 정필석을 생불(生佛)이라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실록』에서 무속인과 관련하여 생불이라 불린 사례는 영조대와 순조대에도 보인다.



사진 3. 『추안급국안』.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황해도 금천·평산·신계의 요녀(妖女) 4명이 자신을 생불(生佛)이라 칭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홀렸다. 사람들은 무녀를 배척하면서도 그 요녀들을 지나치게 믿어서, 무녀의 용기를 주전소(鑄錢所)에 헐값으로 팔았는데 재물이 거의 만 냥에 이르렀다.

- 『영조실록』 34년 5월 18일.

조정에서는 어사 이경옥을 황해도에 파견하여 요녀 4명을 붙잡아 효시(梟示)하게 하였다. 그 요녀들은 스스로 생불(生佛)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다. 민간에서는 자신을 구원해줄 미륵세계의 생불을 믿고 싶어 했고, 그러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생불(生佛)이라 자처하면서 역모를 꾀하기도 했던 것 같다. 순조 즉위 직후에도 향리에서 생불로 일컬어지던 장시경 등이 경상도 인동(지금의 구미)에서 역모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장시경은 … 향리에서 생불이라고 일컬었는데 … ‘지금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기 그지없는데 남인은 쇠퇴하고 노론이 번성하고 있다. 근래 천기天機를 살펴보니 반드시 한양에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야흐로 군대를 일으켜 서울로 올라가려 한다. 먼저 관부로 가서 본 고을의 관리들을 결박하고 앞으로 나아가 선산·상주에서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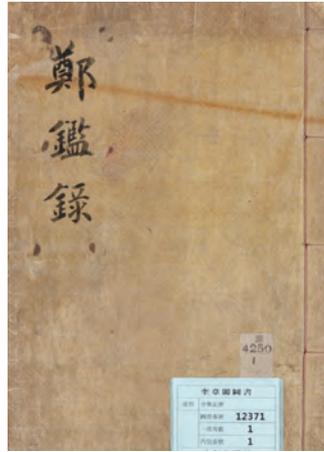


사진 4. 『정감록』. 사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순조실록』 즉위년(1800) 9월 23일.

장시경이 역모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노론이 득세하고 남인이 모두 쫓겨나서 날로 백성의 생활이 고달프게 되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역시 생불로 불리게 되면서 민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겨 역모를 꾀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조선 후기 민심이 권력자로부터 이반하면서 무속과 미륵신앙이 결합하였고, 남인의 재기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대체로 요승으로 불려졌다. ㉑

- **이종수**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 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 교수와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운봉선사심성론』, 『월봉집』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조선 후기 가흥대장경의 복각』, 『16-18세기 유학자의 지리산 유람과 승려 교류』 등 다수가 있다.

## 봄빛 담은 망경산사의 사찰음식



박성희\_ 한국전통음식연구가

---

사막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지  
만 한 생각 달리해서 보면 사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  
습니다. 무한한 갈래 길에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정해 놓  
은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가는 길이야말로 ‘나의 길, 나의 것’  
이 되는 셈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위치한 해발 800고지의 사찰 망경산사 스  
님들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망경산사는 망경대산 중턱에 위치한 산  
사입니다. 백두대간 함백산을 모산으로 두위봉을 지나 질운산과 예미산  
을 거쳐 수라리재에서 잠시 내려와 다시 힘차게 솟구친 해발 1,000미터  
가 넘는 망경대산 아래 망경산사는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첩산중에 위치한 망경산사는 모두가 떠나고 없는 비포장도로의 탄  
광마을을 지금의 망경산사로 만들어 나가며 선농일치의 삶을 살고 계시  
는 스님들의 원력이 담긴 도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해발  
800고지까지 하늘과 맞닿을 것만 같은 오르막 길의 연속입니다. 그야말



사진 1. 봄빛 눈부신 망경산사의 4월 풍경.

로 길이 없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만들어 간 도량이자 온전히 수행 도반의 힘으로 갈고 닦은 길이었습니다.

## 불가의 청규와 가정에서의 규칙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스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산문을 나와 가정으로 그 문화를 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불가에 ‘청규’라고 하는 규칙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화합하며 살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기에 배움은 늘 새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불가에서의 청규나 가정에서의 규칙은 결국 화합하며 평화로워지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이니 핵가족에서부터 대가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인 가족의 형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어찌면



사진 2. 봄꽃 곱게 핀 망경산사 공양간 앞 풍경.

더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영월 망경산사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망경산사를 일구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망경산사만의 청규를 만들고 실천해 나가면서 산나물 정원을 일구며 가람을 세우는 중입니다. 첩첩산중에 길 없는 길을 가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힐링이치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선농일치 수행도량 영월 망경산사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수행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망경산사는 선농일치의 모범적 도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발 800고지에 위치한 곳에서 도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



사진 3. 진달래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망경대산 가는 길.

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호미를 들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물들을 캐서 종류별로 모았고 필요한 나무는 캐서 도랑과 잘 어울리게 다시 심었습니다. 스님들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결국 지금의 망경산사는 정원이 온통 산나물 밭이 되었습니다. 200여 종의 산나물로 가꾸어진 전국 유일의 산나물 정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 생활수행 도량

망경산사 스님들은 소임이 매우 정확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소임도 있지만 공동체로써 소임도 명확합니다. 마치 대중이 아주 많이 사는 대가람의 수행자들처럼 시간을 정확히 엄수하고 예불에 정성을 들입니다. 대중이 함께 사는 도량에서는 대부분 소리로써 시간과 일정을 공유합니다. 크게는 대략 도량석을 시작으로 예불시간과 공양시간을 소리를 통해 알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 농사에 주력하시면서 망경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치유를 선사하고자 호미를 들고 나물정원에 사경을 하며 삽니다.

봄이 되면 산나물의 싱그러움으로 장엄하고, 여름이 되면 산나물이 꽃을 피워 푸르른 향기로 장엄합니다. 가을이 되면 산나물의 열매로 도량을 장엄하고, 겨울이 되면 비움으로써 도량을 장엄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나눔으로써 회향하는 아름다운 도량이 바로 만경산사입니다. 도량에 작은 돌맹이 하나도 의미 없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돌계단 틈 사이에 핀 작은 들꽃도 무심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거나 열매가 떨어져 있어도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 손을 보탬니다. 풀을 뽑고, 눈을 치우는 일도 염불하고 명상하듯 번다하지 않게 고요히 해결해 나가십니다.



사진 4. 산나물 체험 템플스테이.

이와같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상을 내거나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니 그저 그렇게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심해 보이는 듯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스님들의 삶 속에서 저는 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힘을 주거나 과장되지 않고자 모든 것을 수행의 일환으로 삼으시는 스님들을 보면 닦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합니다.

## 삼덕 육미의 공양간 향미당

망경산사와 인연이 되어 찾았을 때는 아담한 대웅전 건물과 보조 주방, 해우소가 있는 건물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가람이 몇 개 더 늘어 제법 큰 가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올겨우내 공양간 ‘향미당’을 불사하시느라 쉬지도 못하셨을 스님들을 생각하면 공심公心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공평한 마음을 떠올리며 향미당 내부를 둘러보니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처님께서 10대 제자와 함께 탁발을 나서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니다. 특히 부엌이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갈하고 세련된 주방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디자인하

사진 5.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점심공양.



셨습니다. 공양간은 공양주가 행복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스님들의 생각이었고,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인공이 가장 돋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공양간 인테리어의 포인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 봄 사찰음식의 3가지 덕이라고 말하는 청정, 유연, 여법을 고스란히 담은 망경산사의 공양간 향미당이 탄생하였습니다.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기운이 맑지 않다면 약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음식의 8할은 정성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찰음식에서 말하는 삼덕을 두루 갖추고 요리를 한다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식치食治의 개념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십니다.

## 지구를 살리는 도량

서양에서 말하는 키친가든Kitchen Garden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망경산사 도량에서 사찰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몸소 실천하고 베푸는 마음에서 수행의 깊이가 배어 나오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변이 차츰 물들어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도량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도량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수행하며 살아 오셨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오신 과정에서 저절로 알려진 도량입니다. 특히 정원 도량의 산나물로 만든 사찰음식과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맛을 본 사람들은 망경산사와의 추억을 맛으로 기억하게 되니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사진 6. 족두리나물.



사진 7. 윤판나물.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없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 단위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힙한 불교이자 핫한 사찰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생명존중,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스님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어 주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성광명망(成光明網)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빛이 돌고 돌아 광명의 인드라망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망경산사는 수행을 통한 지혜의 인드라망, 보살행을 통한 광명망을 두루 갖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망경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산나물을 소개하고 스님들이 알려 주신 산나물 손질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봄나물 요리법

### 1. 생나물을 데칠 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데친다.



사진 8. 취나물(참취).

2. 데치는 물의 온도를 높이고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소금을 넣는다.
3. 취나물 종류는 다른 나물에 비해 데치는 시간을 오래 한다.
4. 물 양을 넉넉히 하여 나물을 데친다.
5. 나물을 무칠 때는 차를 유념하듯 향기를 끌어낸다.
6. 데친 나물의 물기를 제거할 때 너무 짝 짜지 않는다.
7. 간장, 된장, 고추장만을 활용해 요리한다.
8. 들기름과 참기름은 적당히 사용한다.
9. 봄나물을 데친 후 냉동보관할 때는 물과 함께 얼려서 보관한다.
10. 재료본연의 맛을 살려 정성껏 요리한다.

망경산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불교 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templestay.com](http://www.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市

○ **박성희**    중증음식문화재단 지정 한식예술장인 제28호 사찰음식 찬품장에 선정되었다. 경기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식과 명상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중증음식연구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사찰음식전문지도사, 한국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 교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식물기반음식과 발효음식을 연구하는 살림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문으로 「사찰음식의 지혜」가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한식전공 학생들에게 한국전통식문화와 전통음식을 강의하고 있다.

# 집중한다는 것과 업장소멸



일행스님\_ 해인사 출가. 정립사 거주

## 질문1 집중하는 힘에 대해

절과 능엄주를 일과로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인지 잡념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절과 능엄주가 익숙하게 된 지금, 다시금 내 안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잡념이 들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절과 능엄주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인지력을 키워 가려고 노력했고,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은 어찌해야 할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확신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여전히 일어나는 잡념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기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능엄주’라는 생소한 진언眞言 수행법을 선택하여 시작하게 되면 한동



사진 1. 산만한 의식상태를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집중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사진: 정림 사람방.

안 낮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깊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 평소의 내 습관이 활발하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주의와 흥미가 사라지고, 내 의식이 전처럼 다시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의식이 산만하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나 자신보다 늘 내 앞에 있는 대상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소홀하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 **관찰의 힘과 멈춤의 힘**

밖의 대상에 가 있는 의식을 되돌려 나 자신에게 두기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현재 의식상태가 어떤지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원

하지 않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잘 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산만한 의식 상태를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집중하는 힘'[삼매력三昧力]을 가져야 합니다.

수행하는 이들이여, 삼매를 닦으라.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 『쌍웃따니까야』

삼매三昧를 닦아 삼매에 들면 두 가지의 힘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관찰의 힘'[관觀]과 '멈추는 힘'[지止]입니다. 삼매라는 말이 일반화된 말이 아니어서 요즘은 쉽게 집중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무엇이 집중인가 하면 마음을 '관찰하는 집중'이고, 그릇된 마음을 '멈추는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관찰해야 좋은 마음현상, 나쁜 마음현상을 알아차리고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관찰이 돼야 증장增長시켜야 할 건 증장시키고, 그쳐야 할 건 그치려는 의지에 따른 조절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지요. 삼매(집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관찰의 심도深度와 세밀細密함이 커질 것이고, 통제하는 힘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참선, 진언수행법 등 자신이 선택한 수행법을 통하여 이렇듯 삼매력을 점점 더 깊이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매력의 깊이 정도를 나타내는 '공부 삼분단三分段'이 있습니다.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가 그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집중의 맛을 느끼면서 그 과정상에서 이런 집중 수준의 변곡점이 있음을 참조하여 더욱 자신을 분발하는 척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마음은 늘 움직인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움직임을 잘 알아차리는 ‘짜띠 (sati)’를 하면서 명상주제(예컨대 화두참선에서는 화두를, 진언수행에서는 진언의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의식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감촉이 잡히는 게 있더군요. 물론 그러한 게 경전經典과 어록語錄을 통해 그에 따른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해보니 어느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잡념’ 운운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잠자고 있는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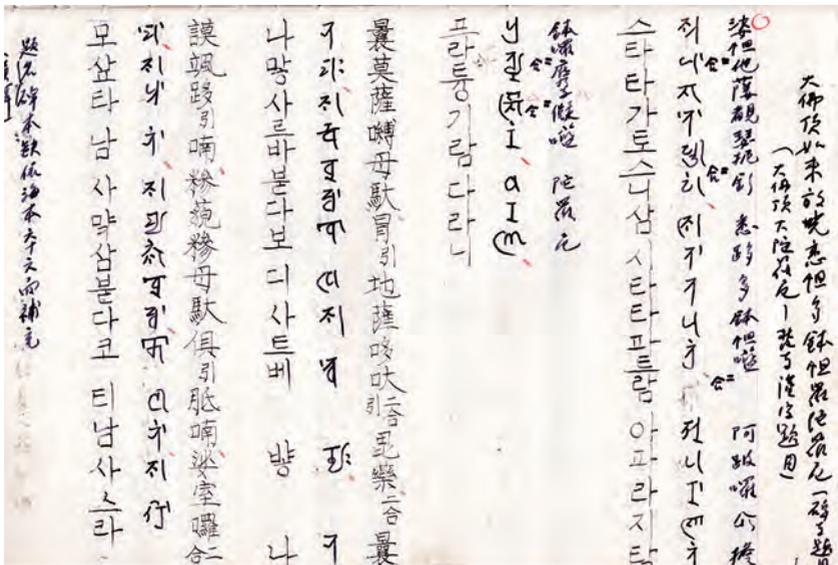


사진 2. 성철스님 친필 대불정능엄신주 범자 표기. 1947년 봉암사결사 때부터 아침일과로 독송하였다고 한다.

안은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깊은 의식은 정신의식에게 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의식에는 ‘업業’이라는 정보가 무진장 들어 있는데, 이 업이 일종의 성향으로써 활동식活動識인 정신의식에게 제공됩니다.

짜떠라는 마음챙김을 하고 있으면 고요한 속에서도 툭툭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마음현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작용인 셈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들 때문에 의식이 산만해진다든가, 휘둘린다든가, 꼬달린다든가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일종의 잡념雜念에 영향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업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업으로 인해 장애障礙를 받는다는 것, 즉 ‘업장業障’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집중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도하지 않게 올라오는 생각의 정보를 막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오롯이 둘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진언수행을 하신다 하니 진언수행법으로 잠시 더 언급하겠습니다.

능엄주를 하면서 내가 듣는 능엄주 소리에 마음을 모으세요. ‘내’ 소리가 아닌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라는 이유는 그래야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자신에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입으로 나가는 소리에 집중하면 의식이 바깥으로 가는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음표 하나하나가 명료해지도록 들어야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듣는다는 것보다는 소리를 본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무조건 빨리 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음을 또박또박 그리고 선명하게, 속도는 익숙해진 만큼의 자연스러운 속도로 내야 합니다.

음표를 듣는다는 것이 마치 집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라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현재 내 의식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수행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짧게보다는 가늘더라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어내지요.

## 질문 2 **업장소멸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하는 건지 여전히 사는 것이 고달픈 저 자신을 느낄 때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해야 할 텐데 전생애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은 기억으로는 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요?

고달프게 느껴지는 삶. 비단 질문하신 분만이 아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 고달픔은 때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감성에 젖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약함으로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강한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 나비와 애벌레의 차이

부처님 말씀에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다[정업불면定業不免].”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장業障은 소멸된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때요?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정해진 업은 면제될 수 없다면서 또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부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맞지 않게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서로 반대되는 듯한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비 유충이 알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비 유충이 알에 있을 때도 ‘나는 나’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와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도 ‘나는 나’입니다. 실을 뽑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앉아 고치로 있을 때도 ‘나는 나’입니다. 고치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닐 때도 ‘나는 나’입니다. 알에 있을 때부터 나비가 되기까지,



사진 3. 고치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나비의 모습(시로 생성한 이미지).

그 어느 과정에 있든 ‘나는 나’입니다. 그렇지요?

알에 있을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고치로 있을 때도,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때도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알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고치로 있을 때나,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때나, 내가 속한 세상은 여전히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이지만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알에 있든, 애벌레로 있든, 고치로 있든, 나비로 있든 나는 나이지만 그 내가 인식하는 세상은 같지가 않습니다. 애벌레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과 훨

훨 날아다니는 나비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은 같은 세상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과 공간이지만 나에게 인식되는 시간과 공간은 정신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애벌레일 때는 수많은 시간을 기어서 가는 거리를, 나비일 때는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그 ‘나’가 차원을 달리했을 때 같은 세상이지만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정해진 업을 피하지 못하고 받더라도 그 형태와 내용은 바뀌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백 년을 걸려 가는 거리를 나비는 하루 만에 가는 것처럼. 이것이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또한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 내가 애벌레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또 다른 세상을 접하고 살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겠지요.

기도수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정해진 업을 피할 수 없는 나’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나’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때는 ‘업장이 소멸되는 나’가 될 것입니다.

기운 내세요.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깐요. 

※정림사 일행스님의 글을 더 보실 분은 <https://cafe.daum.net/jeonglimsarang>을 찾아주세요.

##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 도량



정종섭\_ 한국국학진흥원장

상월화상은 선암사仙巖寺에 주석하며 화엄대강회를 열었고, 호암화상은 해인사와 통도사에 주석하며 활발하게 전법에 매진하다가 표훈사表訓寺에서 입적하였다. 연담화상은 그 뛰어난 총명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화엄경』을 통달한 후 여러 차례 강론을 열었으며 그를 따르는 자도 1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는 불가뿐 아니라 유가의 문적도 널리 터득하였고, 그의 시와 문장은 실로 뛰어나 불교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던 시절에 연담화상이 펼친 세계는 정녕 해동 ‘승가의 꽃[緇林之華]’이었다. ‘승가의 꽃’이라는 말은 연담화상의 시권詩卷에 붙이는 글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선생이 평한 찬사이다. 연담화상의 시를 모은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이 남아 있다. 대홍사가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명성은 연담화상의 레거시(legacy)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2종사와 13강사를 배출한 대홍사

12종사들이 화엄경 강회를 활발히 펼치면서 대홍사는 강회의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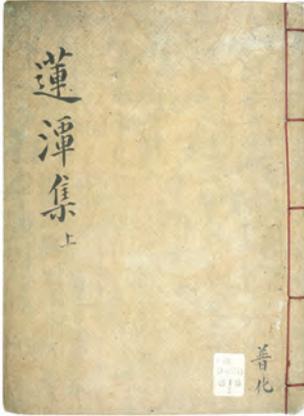


사진 1. 연담대사 『임하록』의 표지와 내지.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환성화상의 참변을 겪으면서 환성화상과 상월화상 이후로는 다수 대중들이 모이는 화엄대회는 금기시되었다. 설파화상과 연담화상도 이를 열지 못했다.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스승은 많으나 출가자는 줄고 있었고, 사찰들의 사정이 어려워져 강회 공간도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흥사에서는 각 요사寮舍마다 방장실方丈室을 두고 강사를 초빙하여 치열하게 공부하도록 하였고, 품계를 정하는 일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아무리 법랍法臘이 오래되어도 ‘대사大師’의 칭호를 주지 않았다. 10년마다 표충사表忠祠 제삿날에 모든 승려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선발하여 침계루枕溪樓에서 당호堂號를 내리고, 강회를 열었는데, 이 강회에는 경전을 수학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다. 이때 참석한 학인들이 100명을 넘어야만 대사의 품계를 수여하였다.

대흥사에서는 13강사들도 배출되었다. 모두 환성화상의 제자인 호암대종사의 문도들이었다. 만화원오萬化圓悟(1694~1758), 연해광열燕海廣悅, 영곡영우靈谷永愚, 나암승제懶菴勝濟(1629~1707), 영파성규影波聖奎(1728~1812), 운담정일雲潭鼎駟(1678~1738), 퇴암태관退庵泰瓘(1687~1767), 벽담행

인(碧潭幸仁(1678~1748), 금주복혜(錦洲福慧(1691~1770), 완호윤(完虎淪佑(1758~1826), 낭암시연(朗巖示演(1789~1866), 아암혜장(兒庵惠藏(1782~1811), 범해각안(梵海覺岸(1820~1896) 화상이 이들이다.

혜장화상은 대흥사로 출가를 하여 대강사로 명성을 떨쳤는데, 나중에는 백련사(白蓮寺)로 가서 주석하였다. 그는 30세에 이미 두륜산 법회의 맹주(盟主)로 명성을 떨쳤는데, 총명이 너무 뛰어나서 그랬는지 40세로 요절하고 말았다. 당시 혜장화상과 유배객 다산 선생 사이에 있었던 깊은 정신적·학문적 교유에 대해서는 「백련사」 편에서 써놓았다. 그의 제자로는 수룡색성(袖龍曠性(1777~?))과 기어자홍(騎魚慈弘)이 있다. 『대둔사지』의 편찬에서는 혜장화상이 초고를 남겨놓은 채 입적하자 완호화상, 수룡화상, 초의선사가 책임을 맡아 이를 완수하였다.

『대둔사지』를 편찬하던 시기에 대흥사의 가람은 금당천(金塘川)을 경계로 하여 남원(南院)과 북원(北院)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별개의 사찰처럼 되어 있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 나한전, 시왕전(十王殿), 팔상전, 칠성전, 조사전, 원통전, 수륙전, 문수전, 한산전(寒山殿), 미타전, 승당과 선당, 침계루, 철경루(鐵鏡樓), 향적루(香積樓), 대양문(大陽門) 등의 당우가 있었다. 남원에는 극락전, 대장전, 지장전, 보현전, 약사전, 청풍료(淸風寮), 벽안당(碧眼堂), 정진당(精進堂), 팔해당, 적조당(寂照堂), 가허루(駕虛樓), 해탈문(解脫門) 등의 당우가 있었다.



사진 2. 김성근 글씨, 두륜산대흥사 현판.

대흥사를 찾아들면 절의 초입에 「頭輪山大菴寺두륜산대둔사」라고 예서체로 쓴 현판이 걸려 있는 산문山門을 지나게 된다. 여기를 지나 여름 날 녹음이 짙은 울창한 숲길을 따라 한참 가면 근래 지은 일주문이 멋있게 서 있다. 일주문에는 「頭輪山大興寺두륜산대흥사」라고 예서체로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서예가인 무외軒無外軒 김응현金膺顯(1927~2007) 선생이 썼다. 일주문에서 산길을 따라 가면 반야교般若橋를 만난다. 다리를 건너 금당천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원과 남원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에 이른다.

남원 구역으로 들어서면, 해탈문을 만나게 된다. 바로 붓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여 천왕문은 없고 해탈문을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겹처마에 맞배지붕으로 된 해탈문에는 「頭輪山大興寺두륜산대흥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의 글씨는 전라도관찰사와 여러 판서를 지낸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1835~1919) 선생이 북송의 미불米芾(1051~1107)의 서풍이 스며 있는 그의 서풍으로 썼다. 해사풍海士風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장대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 멋있다.

해탈문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있고, 안쪽 문 위에는 「解脫門해탈문」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1705~1777) 선생이 붓을 활달하게 휘둘러 쓴 것이다. 현재의 해탈문은 2002년에 조성된 것인데, 이를 보면 옛날에 있었던 해탈문을 헐고 다시 세운 다음 옛 현판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이광사 글씨, 해탈문 현판.

## 태풍으로 일본까지 표류하다 돌아온 영험 있는 천불전

남원의 중심 불전은 천불전(보물)이다. 1811년(순조 11) 2월에 대흥사에 큰불이 나 전각 3동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렸을 때 완호화상의 주도로 중창한 것이다. 「千佛殿천불전」의 현판은 이광사 선생이 썼다. 1817년 가을 대흥사에서는 천불을 조성하려고 화승 풍계현정楓溪賢正



사진 4. 이광사 글씨, 천불전 현판.

화상을 초빙하였다. 풍계화상은 수십 명의 화원을 데리고 경주 불석산(佛石山, 석굴암, 기림사(祇林寺)로 가서 11월에 옥돌로 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옥돌은 단단한 옥(jade)이라기보다 수분이 있는 때에는 조각하기 쉬운 경도가 낮은 백석(白石)인데, 감포,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경북 동남쪽 해안지역 산의 백석층에서 채석되었다. 석질이 곱고 연한 회색이거나 백색이어서 이물질이 없는 부분은 꼭 백옥이나 청옥과 같았다. 그래서 함월산이나 천태산 지역에서 이런 돌이 나는 산을 설산(雪山) 또는 옥산(玉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런 불석은 기림사 인근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조선시대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의 불석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일이 확산되었다.

원석은 부피가 커서 이동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 대부분 현지에서 불상을 조각하여 해로나 육로로 운송하였다. 대흥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와서 석질이 곱고 흰 불석으로 불상을 조성하여 갔다. 당시에는 불상 조성으로 기림사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많아 매우 분주하였고, 유명한 조각승 승호(勝浩=勝湖)를 위시한 많은 조각승과 화승들이 절에 상주하면서 채석을 하고 불상을 조성하였다.



사진 5. 천불전 안의 천불상.

당시에 초의선사가 기림사에 간 것은 스승이 공들이고 있는 이 불사 佛事 때문이었다. 화원 44명이 불상의 점안을 마친 후 소달구지에 실어 장진포長津浦로 운반하였다. 풍계화상은 상좌와 함께 육로로 장진포로 와서 해남행 함경도 흥원 상선에는 768위의 불상을 싣고, 완도 상선에는 232위의 불상을 실어 함께 출발하였는데, 동래 부근에서 강풍을 맞았다. 이때 작은 완도 상선은 동래항으로 들어갔지만 큰 배인 흥원호는 표류를 하게 되어 3일 후에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오시마大島の 한 포구에 도달하였다.

그 후 시오始悟 화상이 탄 흥원호는 일본의 여러 포구마을과 섬들로 인계되며 전전하다가 1818년 5월 대마도對馬島에 안전하게 도착하였고, 7월에 대흥사로 돌아왔다. 이 불상들을 먼저 도착한 232위의 불상과 함께 천불전에 봉안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불상이다. 일본으로 표류한 배에 실려 있었던 석불의 등에는 ‘日일’ 또는 ‘日本일본’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다산 선생이 완호화상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에서 무사히 돌아온 불상에는 ‘日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풍계화상이 1821년에 저술한 『일본표해록 日本漂海錄』에 기록되어 있다. 대흥사에서는 천불상을 조성할 때 전국적으로 재원을 모금하였는데, 그때 시주한 전국 54개 사찰의 승려 680명(42명의 니승 포함), 재가자 676명의 이름이 1006위 불상의 명호 아래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대흥사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초의선사가 이 당시 경주에 머물고 있을 때 추사 선생을 만났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사진 6. 김돈희 글씨, 용화당 현판.

천불전의 좌우에는 학승들이 기거하는 용화당龍華堂과 세심당洗心堂, 봉향각奉香閣의 건물이 있다. 용화당은 1811년(순조 11) 초의선사의 스승인 완호화상이 강당과 선방으로 사용할 공간으로 건립하였다. 그 후 필요에 따라 증축되었다. 「龍華堂용화당」의 현판은 조선시대 말에 법무法部 검사와 서화협회書畫協會 회장을 지낸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1871~1937) 선생이 개성이 강한 팔분에서八分隸書의 서법으로 썼다.

그 맞은편 정면에는 천불전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는 가허루駕虛樓

가 있다. 근래에 가허루는 출입통로 이외에는 모두 벽으로 막은 바람에 누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 꼭 해탈문과 같은 전형적인 사찰의 문으로 보인다. 가허루의 현판은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1770~1847)이 해서로 쓴 것이다. 이삼만의 글씨 가운데 해서로 쓴 큰 글씨의 현판이다.



사진 7. 이삼만 글씨, 가허루 현판.



사진 8. 김정희 글씨, 일로향실 현판.

천불전 뒤로 가면 일로향실—爐香室이 있다. 승려들이 기거하는 요사인 일로향실에는 역시 추사 선생이 제주 유배생활을 할 때 초의선사에게 써 보낸 「—爐香室일로향실」의 현판이 걸려 있다. 추사 예서 가운데 일품이다. 진본은 성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요즘은 이 글씨를 복각한 것이 전국의 여러 곳에 걸려 있는데, 원래는 대흥사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다. 범해화상이 이곳에 거처했던 때가 있었던 듯 그가 지은 ‘일로향실—爐香室’이라는 시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바깥세상 밖으로 세월 가는 것 잊고 지낸다.  
 옷과 음식 단출하니 사람 일이 게으르고  
 번뇌가 사라지니 머문 곳이 절로 그윽하다.  
 재를 파하고 누에 올라 손님과 음식을 나누는데  
 바람은 살랑대고 새들은 나뭇가지에 쉬고 있다.  
 다시 향실에 돌아와 생각에 침잠하나니  
 피어오르는 구름만 무심히 오고 간다.

유래간자좌상두 由來看字坐床頭  
 망각창전세월류 忘却窓前歲月流  
 의식청한인사라 衣食淸閑人事懶  
 탐진정진자거유 貪嗔淨盡自居幽  
 재파루중동객반 齋罷樓中同客飯  
 풍경수하여금휴 風輕樹下與禽休  
 중래향실사랑견 重來香室思量見  
 운출무심임거류 雲出無心任去留

최근 남원 구역에는 가장 위쪽  
 에 새로 터를 조성하여 궁궐보다도  
 거대한 정면 7칸 측면 4칸의 문수  
 전 文殊殿과 보현전 普賢殿의 건물을



사진 9. 이돈흥 글씨, 문수전 현판.

신축하였다. 「文殊殿문수전」의 현판은 서예가 학정 鶴亭 이돈흥 李敦興(1947  
 ~2020) 선생이 썼다. 남원 구역에는 표충사, 대광명전, 동국선원이 있다.

표충사는 오늘날 대흥사가 있게 한 계기가 된 건물이다. 서산대사의  
 가사와 발우가 그의 유언에 따라 대흥사에 옮겨졌다는 설화로 대흥사는  
 천하의 서산 법통을 이어받은 사찰이 되었고, 승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불법을 펼쳐나갈 명분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구국의 전쟁에 뛰어든 의승들의 호  
 국실천을 보았기에 18세기에 오면 불교에 대한 사대부들의 생각이 크게  
 변하여 고승 문집의 서문과 비문을 짓기도 했고, 승려들과의 교류도 많  
 이 늘어났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맞아 사찰도 유가처럼 고승들을  
 현창하고 전공을 세운 승려들을 추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임진왜란의 의승장들을 기리는 현창사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양국 간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가 연 에도막부(江戸幕府 시대)(1603~1868)의 출범 때부터 이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1604~1651)가 통치하던 1635년에는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이 처음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저작은 1579년에 조선 신흥사(神興寺)에서 처음 간행되었는데, 전쟁 시기에 조선 승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서산대사의 저작물을 침략국인 일본의 승려들이 이를 수용·간행하고 궁구한 것이 주목된다.

여하튼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의 충신에 대한 현창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왕이 사액(賜額)을 내린 서원과 사우들만 해도 선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모두 합하면 서원이 15개, 사우가 20개에 달했다. 사액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세금도 면제받고 노비도 받을 수 있으며, 제사 때에는 예관(禮官)이 파견되고 제사에 드는 비용과 물건들을 관에서 공급받을 수



사진 10.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진 11. 밀양 표충사의 표충사表忠祠.

있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의병장義兵長들에 대한 평가가 적극 이루어지자 불교에서도 의승장義僧長들이 이와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갔다.

1738년에 사명대사의 고향인 밀양密陽에 승려들이 사명대사의 영당影堂을 지었는데 임금이 표충사表忠祠라고 사액을 내렸다. 이 사당에는 사명대사를 주벽主壁으로 하고 서산대사를 종향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한때 사명대사가 입적한 해인사로 표충사를 이건移建해 달라고 승려들이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밀양으로 확정되었다. 표충사表忠祠와 표충서원表忠書院이 있는 곳이 그 이후에는 표충사表忠寺로 조성되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보면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의 스승이기 때문에 밀



사진 12. 대흥사 표충사와 비각.

양 표충사에 종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관동지역을 통솔한 승병장이 사명대사이고 표충사를 영남 지역에 먼저 세우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지역 사찰에서는 이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사세도 높이고자 전쟁에 공을 세운 고승들에 대한 현창운동에 나섰다. 정조 12년인 1788년 서산대사의 7대 법손인 천묵天默대사 등 호남 승려들이 나서서 서산대사의 사당을 세우고 사액을 내려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정조는 이를 받아들여 1789년 진영眞影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 서산대사를 주벽으로 하고 홍제존자弘濟尊者 사명대사와 우세존자佑世尊者 뇌묵대사를 좌우로 배향하도록 한 후 예조정랑禮曹正郎 정기환鄭基煥을 파견하여 ‘표충선사表忠禪師’로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런 일이 있자 1792년에 이번에는 함경도 석왕사釋王寺에서도 개국원훈인 무학無學(1327~1405) 대사도 봉향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정조는



사진 13. 고성 건봉사.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여 사액을 내려주었다. 이것이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에까지 전파되어 1794년에 정조는 보현사에도 직접 지은 「서산대사화상당명西山大師畫像堂銘」과 함께 서산대사의 영당에 사액을 내려주면서 대흥사의 표충과 구별하여 수충酬忠이라고 했다. 이 해에 정조는 직접 「어제명병서御製銘并序」도 지어 대흥사의 표충사와 보현사의 수충사酬忠祠에 내려 봉안하게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강산 건봉사乾鳳寺의 승려들이 나서서 사명대사가 출가하고 수행한 곳은 건봉사이므로 여기에 사당을 세우고 사액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승려들이 사명대사의 사당인 수충각酬忠閣과 비를 세웠다. 건봉사에는 남공철南公轍(1760~1840) 선생이 지은 「건봉사사명대사기적비乾鳳寺泗溟大師紀蹟碑」가 1800년에 건립되었는데, 그 후 파손되고 지금은 비신과 비좌 등의 일부 조각만 남아 있을 뿐이다.

##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와 표충비각

표충사 구역에 들어서면, 정면 3칸의 맞배지붕을 한 사당과 좌우에 서 있는 표충비각表忠碑閣과 조사전祖師殿을 볼 수 있다. 정면으로 삼문三門이 서 있고, 삼문 밖에는 2층 누각인 의중당義重堂이 있다. 의중당은 당시 봄과 가을에 제사 지낼 때 해남海南, 진도珍島, 장흥長興, 낙안樂安 등 6군의 군수가 가지고 온 제물祭物을 차리던 곳이다. 그 앞쪽에는 중문인 예제문禮齊門과 정문인 호국문護國門이 있다. 사당에 걸려 있는 〈表忠祠 표충사〉 현판의 글씨는 정조가 친히 쓴 어필御筆이다. 의중당의 동쪽에는 서산대사의 유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서산대사유물관이 있는데, 선조의 하사품인 옥으로 만든 발우玉鉢, 비취옥발翡翠玉鉢, 수저, 신발, 금란가사金蘭袈裟, 금자병풍金字屏風, 표충사총섭사령패, 교지, 서산대사의 친필, 승군단僧軍團 표지물, 철제 방패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표충사에서 동국선원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면 대광명전大光明殿을 만



사진 14. 서산대사 신발.

난다. 추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를 당하자 평생 지기인 초의선사가 추사 선생이 무사히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하며 지은 것이다. 대광명전의 건립에 경제적인 후원을 한 이는 무관이자 추사의 제자인 위당(威堂) 신관호(申觀浩(=申穗, 1810~1884) 선생이다. 건물에 걸려 있는 「大光明殿대광명전」의 현판도 초의선사의 부탁을 받아 신관호 선생이 해서체로 장중하게 쓴 것이다.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불의 삼신불을 봉안하였다. ‘정井’자 모양의 우물천장에는 연화문(蓮花紋)과 운학(雲鶴)을 그려 놓았는데, 채색과 문양의 수준이 높다. 초의 화상이 직접 단청을 하였다고 전한다.

1847년 늦가을 제주 유배지에서 추사 선생은 초의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위당에게 편액의 글씨를 부탁한 것은 잘한 일이고, 그 탁본을 보건대 글씨의 아름다움이 대웅전의 글씨와 견줄만하다고 했다. 신관호 선생은 현종(재위 1834~1849) 때 전라우수사로 해남(海南)의 우수영에서 봉직하다가 1846년 초에 조정으로 복귀하여 금위대장으로 현종(憲宗(재위 1834~1849)의 곁을 지키며 가까이 있게 되었다. 그때 그는 소치(小癡) 허련(許鍊(1808~1893)을 서울 초동(椒洞)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고 무과(武科) 회시(會試)에도 응하게 하며 소치 그림을 좋아하는 임금에게 추사의 서축(書軸)도 진상하게 하는 등 스승의 해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허련이 1844년 전라우수영으로 가 절도사 신관호를 처음 만난 것도 허련의 그림솜씨를 알아본 추사 선생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1848년 12월에 그간 정국(正國) 전환을 생각해 온 현종이 드디어 추사 선생을 유배에서 해제시켰다. 古鑑

-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헌법학 원론』 등 논저 다수.

## 불립문자와 언하대오의 발원지 붓다



박태원\_ 인제대 석좌교수·인제화쟁인문학연구소 소장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덩굴과 진흙과 짚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란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色]’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sup>1)</sup> - 『맛지마 니까야』

### ‘몸’이라는 명칭은 동일 자아를 가리키지 않는다

중생 인간은 언어 호칭에 해당하는 ‘불변의 동일한 것’이 있다고 여긴다. 언어와 쉽게 결합하는 동일성 관념 때문이다. ‘갑순이’라는 호칭에는 갑순이만의 순수 정신이나 인격, 개성 등이 변치 않는 내용으로 간직되어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갑순이’라는 호칭 안에는 동일한 내용, 변하지 않는 내용, 독자적인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 확인되는 것이라

1) 『맛지마 니까야』 「코끼리 자취에 비유한 큰 경(Mahā-hatthipadopama Sutta)」(M28)/대립 번역본 『맛지마 니까야』 제1권, p.682.

고는 오직 ‘다수·변화·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인과관계의 잠정적 응집 양상’이다.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인과관계의 응집적 특징/차이를 ‘개인’ ‘인격’ ‘정체성’ ‘개체’ 등으로 호칭하면서 다른 특징/차이와 구분할 뿐이다. 언어 명칭이 불변 자아를 지시한다는 생각은 ‘언어에서 비롯된 동일성 관념이 빚어낸 존재 환각’이다. 선종의 불립문자 천명은 이런 통찰을 발원지로 삼고 있다.

이름이 동일 자아를 가리킨다고 여기는 중생 인간은, 죽은 후 그 동일 자아가 사후 세계에서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도 믿는다. 사후에는 정신과 신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원한 행복이나 고통을 받을 것이라 믿기도 한다. 동일한 정신·신체가 미래의 삶에 재현되어 행복한 영생을 누리거나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대다수 종교를 존속시키는 현실적 원동력이다.

동일 자아의 사후 영생을 꿈꾸는 사람에게, <정신과 신체의 어떤 상태가 영생의 주체가길 기대하는가? 10대의 신체, 20대의 정신, 아니면 죽기 전 노쇠하고 병든 정신과 신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까?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의 심신’이라 답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가장 완전한 정신과 신체 상태’는 어떤 내용인가? 끊임없이 변하는 정신과 신체 상태 가운데 어느 것을 꼭 짚어 ‘사후에 재현할 동일 자아이길 기대하는가? 과연 그런 선택이 가능하거나 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 <절대 권능을 지닌 자가 알아서 대행해 준다>라고 대답할까? ‘불립문자’는 이름을 동일 자아로 여겨 사후 영생을 그려보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장군죽비將軍竹篋이기도 하다.

## 명칭은 잠정적 용법이고 인습적 표현일 뿐이다

“젓파여, 예를 들면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응유(응고된 우유, curd)가 되고, 응유로부터 생 버터가 되고, 생 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ghee)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제호醍醐)가 되는 것과 같다. 우유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응유라는 이름을 결코 얻지 못한다. 생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도 결코 얻지 못한다. 그때에는 오직 우유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다. …

젓파여, 그와 마찬가지로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無色]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 때에는 오직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젓파여,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은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 때에는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

젓파여, 이런 [자아의 획득]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세상의 언어이며, 세상의 인습적 표현이며, 세상의 개념이다. 여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표현할 뿐이다.”<sup>2)</sup> - 『디가 니까야』

이름은 ‘다수의 심신 현상이 상호 조건적 인과관계 속에서 일정한 응

---

2) 『디가 니까야』 「뿔타빠다 경(Poṭṭhapāda Sutta)」(D9)/각목 번역본 『디가 니까야』 제1권, pp.500-501.



불족적佛足迹.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 사진: 서재영.

집성을 한시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사태'를 지시하는 기호記號이다. 그리고 이 기호는 응집성·정체성을 형성하는 조건들에 따라 바뀐다. 그 형성 조건들이 응집성·정체성을 바꿀 정도로 변하면 명칭도 변한다. 응집성·정체성을 형성하는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명칭도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조건은 예외 없이 역동적인 변화와 관계의 현상이다. 그래서 명칭은 한시적·잠정적으로만 유효하다.

명칭에는 '불변하는 동일 자아'가 없다. 명칭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응집성·정체성에 대한 잠정적 호칭'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잠정적 호칭은 언어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적이다. 개체를 지칭하는 호칭은 '차이들의 구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지시 내용을 불변의 동일성으로 채우지 말라. 불변의 동일성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어를 배제하지도 말라. 동일성 관념의 옷을 입히지 말고, 단지 ‘차이들의 구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만 사용해라. 언어가 없으면 ‘사실 그대로’를 성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로움’을 구현할 수도 없다. 언어를 ‘재앙의 문’이 아니라 ‘만복의 문’으로 바꾸라. 동일성 관념에 매이지 않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 그것이 ‘무아의 주체’로서 펼치는 능력이다. 동일성 관념에서 풀려난 ‘새로운 언어인간’이 ‘무아의 인간’이고, 그의 행보에서는 해탈·열반의 향기가 다채롭게 번져간다.〉- 언어인간의 길에 세워놓은 붓다의 향상 노정路程이다. ‘참 그대로인 진리[眞諦]와 ‘세속적 관행에 따른 진리[俗諦]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不二]〉라는 통찰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원효(617~686)는 붓다의 이런 향상 노정을 따라 걷는 행보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어에 의지하여 ‘언어 환각이 사라진 도리[絕言之法]’를 드러내니, 마치 손가락에 의지하여 손가락을 떠난 달을 내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지금 오직 ‘말대로만 뜻을 취하고[如言取義]’ 말로 할 수 있는 비유를 끌어들어서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도리[離言法]’를 비난하니, 단지 손가락 끝을 보고 그것이 달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난이 정밀해질수록 도리를 잃어버리고 갈수록 멀어진다. … 보살이 만약 망상의 분별을 여의어 ‘잘못된 분별되 두루 헤아려 집착하는 양상[遍計所執相]’을 없애버리면, 곧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도리[離言之法]’를 드러내 비출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모든 현상의 ‘언어 환각에서 벗어난 양상[諸法離言相]’이 나타난다. 마치 모양 있는 모든 양상을 제거해 버릴 때, 그 제거한 곳을 따라 모양을 여윈 허공이 나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sup>3)</sup>

## 알아차림(정지正知, sampajānāti)과 언어 그리고 언하대오

“선지식들이여, 나는 흥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말 끝나자마자 크게 깨달아[一聞言下大悟]’ ‘참 그대로를 보는 본연의 면모[眞如本性]’에 ‘한꺼번에 눈 떴다[頓見].”<sup>4)</sup>

선종의 <말 듣자마자 크게 깨닫는다[言下大悟]>라는 말은 <말 듣자마자 돈오한다>라고 바꿀 수 있다. 선종에서 추구하는 깨달음[悟]은 돈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종의 돈오는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깨달음’이다. 붓다가 일러주고 선종이 계승하는 ‘마음 수행’은 ‘대상집중 수행’이 아니다. 또한 ‘이해 수행’과도 다른 내용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언하대오와 돈오견성이 ‘붓다가 설한 마음 수행 맥락에서의 깨달음’이라는 점만 언급해 둔다.

필자는 ‘마음 수행’과 관련하여 붓다의 법설 가운데 ‘육근수호六根守護 법설’을 특히 주목한다. ‘경험을 발생시키는 여섯 가지 감각능력을 잘 간수해 가는 방법에 관한 설법’이 육근수호 법설이다. <감관으로 만나는 ‘특징적 차이’(相, 전체적 차이나 세세한 차이)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에

---

3)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4) 혜능, 『돈황본 육조단경』, “善知識, 我於忍和尚處, 一聞言下大悟, 頓見眞如本性.”

따라 ‘무명의 길’과 ‘지혜의 길’로 그 행보가 갈라진다. 그리고 지혜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수행법의 핵심은 ‘알아차려 멈추어, 특징/차이들을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正知, sampajānāti)’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 수행의 요결이다. > -육근수호 법설의 요점이다. 이 육근수호의 도리를 설하는 언어를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언어가 지시하는 내용을 계기로 삼아, 문득(頓) ‘알아차려 멈추어, 특징/차이들을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을 열면, 제대로 설법을 들은 게 된다. 붓다가 설한 선禪 행법의 요결을 체득하게 된다. 선종은 이 ‘마음 수행’을 <말 듣자마자 크게 깨닫는다(言下大悟)>라는 ‘돈오 국면 열기’로 계승하고 있다.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여 삶과 세상을 오염·훼손하는 길’과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여 삶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은, 신체적 감각(눈·귀·코·혀·땀)과 정신적 감각(의식)이 대면하는 ‘특징적 차이’(相, 대상, 경계)들과 관계 맺는 ‘마음 국면의 선택’<sup>5)</sup>에 따라 결정된다.> -육근수호 법설의 길 안내다.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수립하면, ‘차이/특징들을 붙들고 쫓아 나가는 마음 행보’를 문득 신다.

이 멈춤은 ‘차이들의 왜곡과 오염 과정을 펼쳐가는 이해·사유·감정·행위와 그것을 이끄는 마음의 계열’에서 한꺼번에(頓) 빠져나오는 것을 뜻한다. 이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으면서 차이/특징들을 만나는 마음 국면’을 지키면, 동일성 관념의 분별 그물이 범접犯接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으면서 차이/특징들을 만나는 마음 국면’을 챙겨, 놓치지 않도록 간수해 가라. 그러면 ‘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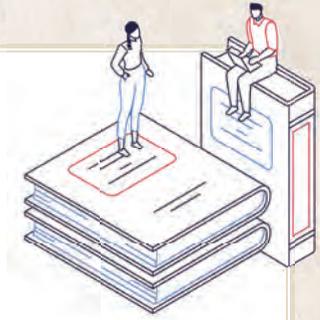
5) 붓다가 열고 선종이 계승한 마음 수행의 요점을 ‘마음 국면의 선택’이라는 말에 담아 보았다. ‘마음 국면의 선택’이 어떤 의미와 내용인지는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상술되어 있다.

사의 차이로 인한 불안과 고통’ 등, ‘차이/특징들로 인한 속박과 동요, 불안과 괴로움의 파도’를 타면서도 그에 빠져들지 않는 자유와 평온의 안락이 생겨난다. 지지배배 새소리, 오가는 사람들, 온갖 냄새와 느낌을 만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 그것들에서, 쉬는 자리가 열린다. 그 쉬는 자리에서, ‘차이/특징들의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해로 사유·감정·행위를 굴러, 삶과 세상을 두루 이롭게 만들어 함께 누려라.》-육근수호 법설의 요결要訣이다.

〈언어로 시설되는 육근수호 법설’을 듣자마자, ‘지각되는 차이/특징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 멈추어 붙들고 쫓아가지 않는 마음 국면’에 눈떠라. 그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챙겨 지키면서 차이/특징들과 만나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로움’을 누려라.〉-〈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면, 문득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국면’을 열게 된다.〉-육근을 수호하는 마음 행법이다. 〈던지는 족족 물건을 쫓아 사방으로 달려가는 개가 되지 말고, 던지는 사람의 팔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가 되어라. 소리를 듣는 자를 아는가? 차를 마시는 자를 아는가? 매일 보고 듣고 먹으면서도 모르는가?〉-육근수호의 요결을 계승하고 있는 선종의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直指人心] 선지禪指 언어이고, 그 ‘언어를 타고 나아가는 곳[落處]’이다. 문득 그곳으로 나아가면 ‘살게 하는 언어[活句]’가 되고, 말꼬리 잡고 이리저리 헤매면 ‘죽이는 언어[死句]’가 된다. 卍

- **박태원** 고려대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취득. 울산대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거쳐 현재 인제대 석좌교수로 인제한국학연구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울산대에서 불교, 노자, 장자 강의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원효전서 번역』, 『대승기신론사상연구』,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돈집 진리담론』, 『원효의 화쟁철학』, 『원효의 통섭철학』, 『선禪 수행이란 무엇인가?-이혜수행과 마음수행』 등이 있다.

##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도서



### ■ 성철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

- 선을 묻는 이에게(산방야화) | 14,000원
  - 선에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동어서화) | 14,000원
  -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 14,000원
  -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선림보훈) | 15,000원
  -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 18,000원
  - 송나라 선사들의 수행이야기(임간록) | 25,000원
  - 어록의 왕, 임제록(임제록) | 18,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①(나호야록, 운와기담, 총림성사) | 22,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②(인천보감, 고애만록, 산암잡록) | 20,000원
- ※각 도서는 e-book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장경각의 도서

- |                                      |   |
|--------------------------------------|---|
| 명추회요(e-book)<br>회당조심   24,000원       | 밝은지혜 맑은마음<br>보광성주   10,000원   |
|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br>박태원   30,000원        | 나는 사람이 좋더라<br>연등국제선원   15,000원  |
| 불교와 유교의 대화<br>김도일 외   30,000원        | 역주 선림승보전(상, 하)<br>원철 역주   각 18,000원   |
| 조론연구·조론오가해(전6집)<br>조병활 역주   300,000원 |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br>김용정 저, 윤용택 역음   30,000원                                    |
| 조론<br>조병활 역주   18,000원               | Echoes from Mt. Kaya<br>(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문판)<br>Edited by ven. Won-taek   25,000원 |

#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김방룡의 한국선 이야기

김진무의 중국선 이야기

원영상의 일본선 이야기

선  
禪



## 다섯 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



김방룡\_ 충남대학교 교수

### 『원돈성불론』의 저술 동기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이란 제목은 ‘원돈교’ 즉 ‘화엄’의 성불론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눌은 ‘원돈’의 의미를 ‘화엄’에 국한하지 않고 선과 화엄의 갈등 관계를 회통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선사禪師의 입장에서 화엄을 수용하여 ‘선과 화엄의 성불론이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동기이다.



사진 1. 조백대사 이통현 장자.

지눌은 당시 화엄종 승려들이 법장과 징관의 교판론에 의거하여 선종은 돈교頓教에 배대하고 화엄은 원교圓教에 배대하였다.

이에 따라 선종의 깨달음은 화엄의 성불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지눌은 당시 법장과 징관이 아닌 이통현李通玄의 『신화엄론』에 근거하여 화엄의 성불론과 선종의 깨달음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다섯 개의 문답

『원돈성불론』은 다섯 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과 『수심결』과 『간화결의론』 등의 저술은 그 주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어떤 이가 지눌에게 묻고 이에 대하여 지눌이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답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지눌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답의 주제는 ‘화엄과 선종의 성불론’이다. 이는 선종에서 주장하는 ‘본래성불本來成佛’에 대한 화엄종 승려들의 비판에 대한 지눌의 반박이다. 완전한 불성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능태이지 현실태는 아니다. 따라서 수행을 통하여 성불成佛하는 것이지 단박에 성불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 화엄종 승려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종에서 말하는 부동지不動智의 불과佛果는 본각으로서의 이불理佛인가, 새로 이루어진 사불事佛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닦음을 통하여 깨달음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깨달음에 근거하여 닦음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화엄과 선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눌은 이통현의 『신화엄론』의 핵심적인 취지가 “부처의 부동지를 돈오頓悟하여 이를 발심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데에 있다는 점을 들어, ‘깨달음에 근거하여 닦음이 이루어져



사진 2. 대혜종고 선사.

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답의 주제는 '연기문과 성기문'이다. 이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보충이자 심화이다. 지눌은 '원융문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지불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향포문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와 중생은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다시 이통현의 주장에 근거하여 반박하고 있

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심의 근본보광명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무명을 깨달아 성취한 과지果智가 곧 이불理佛이자 사불事佛이며, 자불自佛이자 타불他佛이고, 인불因佛이자 과불果佛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답의 주제는 중생과 부처의 마음속에 있는 보광명지普光明智에 관한 것이다. 중생과 부처는 분명히 다르다. 중생은 오염된 마음에 의하여 연기하고 부처는 청정한 마음에 의하여 연기한다. 중생과 부처를 말하게 되면 그 근본적인 마음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마련이다. 이 문답 또한 앞의 두 주제가 심화된 것이다. 지눌은 마음을 쉬고 논쟁을 그치고서[息心無諍] 접근하라고 말한다. 연기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만, 돈오한 자의 입장에서 법계를 비추어보면 나와 남, 범부와 성인, 인행因行과 과위果位를 본래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문답의 주제는 선종에서 주장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에 관한

것이다. 즉 선종의 돈오성불, 견성성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화염에서 말하는 사사무애(事事無碍)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지눌의 논박이다. 『대승기신론』의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를 통하여 말하면 선종의 견성성불은 체(體)를 깨달은 것이 상(相)과 용(用)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화염종 승려들은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화염종 승려들의 관점은 법장과 징관의 교판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눌은 선문에도 화염의 사사무애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어서 화염에서 선을 돈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이어 선문의 교판이라 할 수 있는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의 삼현문을 들어서 화염의 사사무애는 삼현문 가운데 체중현에 속하는 것으로서 화염의 성불이 선의 깨달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기에 이른다.

다섯 번째 문답의 주제는 범부의 성불이 과연 구경각(究竟覺)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에 관한 지눌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화염에서는 불성을 ‘근본보광명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십신 초위의 범부에게도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눌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근본보광명지(根本普光明智)의 불과(佛果)가 중생과 부처의 본래 바탕이기 때문에 이치와 현상, 본성과 모양, 선함과 악함, 오염됨과 깨끗함이 원만하게 갖추었으면서 동시에 모두 소멸되어 있다. 이것은 원효 대사가 세운 하나의 큰 법신불과 같다. 지혜의 본체는 본래 삼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본성이 깨끗한 본각의 이불(理佛)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본보광명지의 본체는 본래 십세(十世)의 멀거나 가깝거나 더디거나 빠름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가 융섭되

어서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 지혜는 나의 마음의 부처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과실이 아니라,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다.<sup>1)</sup>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지눌은 돈오의 입각처를 화엄의 근본보광명지를 통하여 확고히 세움으로써 선교일치의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 『간화결의론』의 저술 동기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이란 제목은 ‘간화와 결의에 관한 논’ 또는 ‘간화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선에 있어서 간화선과 관련한 최초의 논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의 제목을 통하여 보면 대혜의 간화선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정작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엄과 간화선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돈성불론』을 통하여 화엄과 선의 일치를 주장한 지눌이 『간화결의론』을 통하여 수행상에 있어서 화엄의 관법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저술 동기라 할 수 있다.

---

1) 知訥, 『圓頓成佛論』, 한불전 4책, p.731c. “此根本普光明智佛果 是生佛之體故 理事性相善惡染淨 俱圓俱泯. 如曉公所立一大法身佛也. 以智體本具三大故 非但性淨本覺理佛也. 以智體本無十世遠近延促故 非當果攝在也. 以根本智 是自心之佛故 非他果在我也.”

## 다섯 개의 문답

『간화결의론』 또한 다섯 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화선은 남송 대 대혜종고(大慧宗杲)에 의해 주창된 선수행법으로서 지눌에 의하여 국내에 최초로 수용되었다. 대혜가 오대 북송시기 유행한 문자선의 폐풍을 극복하기 위해 간화선을 주창하였다면 지눌은 고려 화엄종 승려들의 선에 대한 비판과 화엄 관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화선을 수용하였다. 다섯 개의 문답의 내용에는 이러한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첫 번째 문답의 주제는 화엄의 법계연기와 간화선 수행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화엄교학에서 이미 법계의 무애연기를 밝혔는데, 선문에서는 왜 다시 십종병(十種病)을 이야기하며 화두를 참구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십종병’이란 무자 화두를 참구할 때 나타나는 열 가지 병통을 말한다. 이는 화엄의 사사무애의 사상에는 이미 완전한 진리를



사진 3. 지눌의 『원돈성불론』.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화두 참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눌은 “물론 화엄에서 말하는 뜻과 이치[義理]는 가장 완전하고 오묘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식정[識情]에 의해서 듣고 이해하여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문의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아 들어가는 경절문[徑截門]에서는 불법을 이해하는 언어적인 개념[知解]의 병통이라고 (그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sup>2)</sup>라고 말한다.

두 번째 문답의 주제는 ‘지혜의 병통’에 관한 것이다. 이는 첫 번째 문답에 대한 보완이다. 여기에서는 ‘법성이 원용하여 연기함에 장애가 없다면 어찌 듣고 헤아림에 장애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이에 지눌은 『원각경』을 인용하여 법계의 청정함을 얻은 자도 다시 ‘청정함’이란 견해에 의해 장애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앎[알]의 병통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 번째 문답의 주제는 선종의 이언절려[離言絕慮]에 관한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문답에 대한 화엄종 승려의 반박이다. 화두 참구를 하는 목적이 ‘이언절려’ 즉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것에 있다면 이는 화엄을 비롯한 교종의 사상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엄과 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진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방법론 즉 수행의 문제이다. 화엄은 ‘식정[識情]’에 의하여 이해하고 헤아려서 진리를 깨달으려 하는데, 간화선 수행은 그 알고자 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데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엄의 수행법보다 간화선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2) 知訥, 『看話決疑論』, 한불전 4책, p.733a. “然此義理雖最圓妙 總是識情開解思想邊量故. 於禪門話頭參詳徑截悟入之門 一一全捨佛法知解之病也.”

네 번째 문답의 주제는 화엄돈교와 선종의 이언절려에 관한 것이다. 이는 화엄종 승려의 입장에서 앞의 세 번째 답변에 대하여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장은 『화엄오교장』에서 부처님의 법설을 소승,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로 분류한 바 있고, 징관은 선종을 돈교에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장과 징관의 교판론에 대하여 지눌은 동의하지 않고 화엄과 선종의 근본적인 차별점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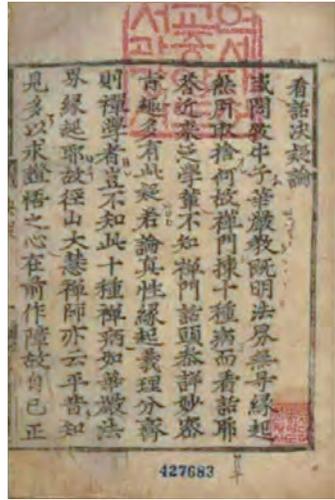


사진 4. 지눌의 『간화결의론』. 연세대도서관 소장.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돈성불론』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지눌의 관점이다. 간화선의 깨달음은 단순하게 불변의 입장에서 이언(離言)만을 고집하는 돈교의 관점이 아니라, 수연(隨緣)의 사사무애(事事無礙)를 수용하고 있음을 지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문답의 주제는 화엄원교와 교외별전이다. 세 번째 네 번째의 문답은 화엄의 교판론에 의거하여 선이 돈교에 해당하여 화엄의 원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눌이 반박한 것이다. 화엄종 승려의 입장에서 지눌의 견해를 받아들여 선이 화엄의 교판에 의거한 돈교와는 다르다고 승복하였다고 한다면, 선은 결국 화엄의 원교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교외별전’이라 하여 원교와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화엄종 승려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눌은 선교일치의 입장에서 사교입선의 입장으로 전환한다. 즉 화엄원교의 사사무애와 십현문의 진리도 불법에 대한 알음알이가

있으므로 간화선을 통하여 알음알이의 병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간화선을 수행하는 데에도 참의參意와 참구參究의 두 종류가 있는데, 화엄종 승려의 관행觀行은 참의에 해당하여 간화선의 참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지눌 선사상의 특징과 의의

지눌의 『수심결』은 혜능의 돈오사상에 근거하여 돈오에 입각한 님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원돈성불론』은 화엄에 관한 지눌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저술로서 법장과 징관에 의하여 정립된 화엄의 교판론을 비판하고, 이통현의 성기사상을 끌어들이어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화엄의 근본보광명지가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간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돈오의 입각처가 화엄에도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간화결의론』은 대혜의 간화선 수행법이 화엄의 돈교와 원교를 뛰어넘어 알음알이의 병통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사교입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말여초 형성된 선사상은 고려 전기 교종이 득세하면서 위축되었다. 선종 사굴산문 소속의 지눌은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던 화엄종 교학과의 대론을 통하여 선교일치, 사교입선의 입장을 천명하여 고려불교의 방향을 교종 중심에서 선주교종禪主敎從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크다. 市鏡

- **김방릉**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북대 철학과 학부, 석사 졸업, 원광대 박사졸업. 중국 북경대, 절강대, 연변대 방문학자. 한국선학회장과 보조사상연구회장 역임.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 운문삼구, 한 개의 화살로 삼관을 모두 뚫다



김진무\_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교수

운문종을 창립한 문언은 이미 조사선에서 철저하게 논증된 당하즉시 當下卽是와 본래현성本來現成의 입장에서 선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문언의 선사상은 청원계의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남악계의 전통에 가깝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언이 황벽의 제자인 목주도종睦州道踪에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문언은 황벽의 제자인 임제의현臨濟義玄의 선사상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이 그의 어록 행간에 두드러지게 보인다. 한편으로는 문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임제종이 천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제의 선사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 문언 선사의 임제삼구 원용

앞에서 문언이 황벽과 임제의 선사상 가운데 ‘무사無事’라든가 ‘무심無心’, ‘의심즉차擬心即差’ 등의 사상을 원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도 임제의 흔적이 나타난다.

세존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일곱 걸음을 걷고는 사방을 둘러보며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한 것을 듣고[擧], 선사가 말하였다. “내가 그때 만약 보았다면, 한 몽둥이에 그를 때려죽여 개에게 먹이로 던져, 천하의 태평을 기도했을 것이다.”<sup>1)</sup>



사진 1. 운문산 산문 전경(평동성 소관시).

1)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中(大正藏47, 560b), “舉世尊初生下, 一手指天一手指地, 周行七步目顧四方云: 天上天下唯我獨尊. 師云: 我當時若見, 一棒打殺與狗子喫却, 貴圖天下太平.”

이는 조사선의 가불매조(呵佛罵祖), 즉 부처를 욕하고 조사를 헐뜯는 풍조에서 나온 말이지만 명확하게 임제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가 권속을 만나면 친가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재自在하게 된다.”<sup>2)</sup>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외에도 문언의 어록에서 임제의 사상적 흔적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언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바로 임제삼구(臨濟三句)라고 추정된다. 『운문광록』 권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임제삼구’를 들어 탑주(塔主)에게 물었다. “그러면 탑 안의 화상은 (이 삼구 가운데) 몇 번째 ‘구’를 얻었는가?” 탑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사는 “네가 나에게 물어보아라.”라고 하자 탑주가 곧 물었다. 선사는 “빨리 말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라고 하자 탑주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말하지 않으면, 먼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고[不成], 둘은 아니다[不是].”<sup>3)</sup>

이로부터 문언은 ‘임제삼구’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

- 
- 2) [唐]慧然集, 『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0b),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拘, 透脫自在.”
- 3)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下(大正藏47, 573a), “舉臨濟三句語問塔主: 祇如塔中和尚得第幾句? 塔主無語. 師云: 你問我. 塔主便問. 師云: 不快卽道. 塔主云: 作麼生是不快卽道? 師云: 一不成二不是.”

언이 마지막에 답한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고, 둘은 아니다[一不成, 二不是].”라는 구절은 상당히 복잡한 논리가 숨어 있다. 사실 이는 반야般若에서 추구하는 유무쌍견有無雙遣의 중도中道로부터 양변에 떨어질 수 없다는 불락양변不落兩邊의 도리를 설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이러한 문답에서 문언이 입제삼구를 의식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입제가 제창한 다음과 같은 삼구의 문구를 살펴본다면 더욱 명확하다.



사진 2. 운문산 입구의 운문선경.

만약 제일구第一句 가운데 연음이 있다면, 조사와 부처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만약 제이구第二句 가운데 연음이 있다면, 천인天人에게 스승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제삼구第三句 가운데 연음이 있다면,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sup>4)</sup>

이에 대한 해석은 입제의 선사상을 논할 때 설명했으므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지만, 이른바 ‘제일구에서 얻는다면 조사와 부처[祖佛]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언은 위의 대화에서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고, 둘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

4) [唐]慧然集, 『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大正藏47, 501c), “若第一句中得, 與祖佛爲師; 若第二句中得, 與人天爲師; 若第三句中得, 自救不了.”

를 향상向上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운문광록』에는 ‘일구一句’를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상권에는 22차례, 중권에는 63차례, 하권에는 8차례가 보인다. 이 ‘일구’는 분명히 임제의 ‘제일구’를 겨냥하거나 그를 축약한 것으로, 오가五家를 창립한 선사들의 어록 가운데 이렇게 대량으로 언급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일구’를 통한 시설施設

『운문광록』 권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문기를, “예로부터 고덕古德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는데, 오늘 선사는 어떻게 시설施設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묻는 이가 있고, 답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다시 “그렇다면, 이 시설이 헛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묻는 이도 없고, 대답하는 이도 없다.”라고 하였다. 문기를, “무릇 언구言句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바람결의 일구一句는 어디에서 일어나 오는가?”라고 하였다. 다시 “그렇다면 바로 이 말이 그것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착각하지 마라!”라고 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운문은 학인들을 깨우치는 선리禪理의 시설에 ‘일구’를 제창

5)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下(大正藏47, 545b), “問: 從上古德以心傳心, 今日請師, 將何施設? 師云: 有問有答. 進云: 與麼則不虛施設也? 師云: 不問不答. 問: 凡有言句皆是錯, 如何是不錯? 師云: 當風一句, 起自何來. 進云: 莫祇者便是也無? 師云: 莫錯.”



사진 3. 운문산 광태사.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도 그에 대한 천착을 경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운문의 한결같은 입장은 제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천착을 몹시 경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너희들에게 아무 일이 없음[無事]을 말하는 것은 이미 서로를 매몰埋沒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이 경지[田地]에 도달해야 비로소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언은 ‘무사’를 극도로 중시하면서도 그를 언급하는 것은 서로 매몰시키는 것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구’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논하고 있다. 『운문광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보인다.

만약 납승의 문하에서 구句 속에 기틀[機]을 드러낸다면, 부질없이 사랑思量에 매몰될 것이다. 바로 넉넉한 일구一句 아래에서 받아들여 얻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것은 즐고 있는 놈이다.<sup>6)</sup>

6)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上(大正藏47, 546a), “若約衲僧門下句裏呈機, 徒勞佇思. 直饒一句下承當得, 猶是瞌睡漢.”

일칙一則의 말을 들어, 너희들을 바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지만, 이미 네 머리 위에 똥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설령 네가 털끝 하나를 집어 들어 그걸로 온 대지大地를 한순간에 밝힌다 해도, 그것은 또한 자기 살을 도려내어 상처를 내는 짓일 뿐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너 스스로) 그 경지[田地]까지 참답게 도달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언의 고민을 여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선리禪理와 그를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제삼구와 같이 명확하게 ‘제일구’를 제시하여 그에서 읽는다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그에 천착한다면 그것은 “네 머리 위에 똥물을 끼얹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구’를 시설하지 않는다면 선리를 깨우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운문광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진 4. 운문산 석굴.

고인古人들이 한때 너희들에게 어찌지 못했던 까닭에 일언반구一言半句를 드리워 너희들이 들어가는 길을 통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7)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上(大正藏47, 546b), “舉一則語, 教汝直下承當, 早是撒屎著爾頭上也. 直饒拈一毛頭, 盡大地一時明得, 也是剝肉作瘡. 雖然如此, 也須是實到者箇田地始得.”

을 알고 한 변邊을 잡거나 놓아주며 약간의 뼈와 살을 붙였으니, 어찌 조금이나마 친해질 여지를 허락함이 아니겠는가! 빨리 붙잡으라! 빨리 붙잡으라!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내신 숨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을 한가하게 판 데 쓰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부디 깊이 새겨 두어라.<sup>8)</sup>

이 구절에서 엄격하고 고고한 문언의 자상함이 느껴진다. 선지식들이 어떤 ‘구’를 제시함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그를 빨리 붙잡아서 조금이라도 선리와 친해질 것을 권하고 있다. 사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문언은 다양한 ‘구’에 대한 문답이나 ‘일구’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고, 이를 정형화한 것이 바로 ‘운문삼구’라고 볼 수 있다.

## 『인천안목』에서 논하는 운문삼구

후대에 오가의 종지와 종풍을 논한 『인천안목』人天眼目에서는 ‘운문삼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문언) 선사가 시중示衆하여 설하였다. “하늘과 땅을 덮어 포용함函蓋乾坤이고, 한눈에 기틀의 무게를 분별하며目機銖兩, 모든 인연을

8)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上(大正藏47, 546c), “古人一期爲汝諸人不奈何, 所以垂一言半句, 通你入路. 知是般事, 拈放一邊, 自著些子筋骨, 豈不是有少許相親處. 快與! 快與! 時不待人, 出息不保入息. 更有什麼身心閑別處用. 切須在意.”

간섭하지 않음[不涉萬緣]이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중이 대답이 없으니, 스스로 대신하여 말하였다. “한 개의 화살촉으로 삼관三關을 뚫는다.” 후에 덕산德山 원명연밀圓明緣密 선사가 마침내 (운문 선사의) 그 말을 분리해서 삼구三句로 하였으니, 함개건곤구函蓋乾坤句, 절단중류구截斷衆流句, 수파축랑구隨波逐浪句이다.<sup>9)</sup>

이로부터 운문종의 대표적인 운문삼구로 알려진 ‘함개건곤函蓋乾坤·절단중류截斷衆流·수파축랑隨波逐浪’은 후대에 연밀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고, 문언이 제창한 삼구는 바로 ‘함개건곤函蓋乾坤·목기수량目機銖兩·불섭만연不涉萬緣’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운문광록』 권중에는 “시중하여 말하기를, ‘하늘 가운데 ‘함개건곤’이요, ‘목기수량’, ‘불섭만연’이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신하여 말하기를, ‘한 개의 화살촉으로 삼관三關을 뚫는다.’라고 하였다.”<sup>10)</sup>라는 구절이 보인다. 따라서 운문삼구를 논함에 있어서는 문언과 연밀의 삼구를 모두 논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에 이어서 운문삼구의 각 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中

- 9) [宋]智昭集, 『人天眼目』卷2(大正藏48, 312a), “師示衆云: 函蓋乾坤, 目機銖兩, 不涉萬緣, 作麼生承當. 衆無對. 自代云: 一鏃破三關. 後來德山圓明密禪師, 遂離其語為三句, 曰: 函蓋乾坤句, 截斷衆流句, 隨波逐浪句.”
- 10)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中(大正藏47, 563a), “示衆云: 天中函蓋乾坤, 目機銖兩, 不涉春緣. 作麼生承當? 代云: 一鏃破三關.”

○ 김진무 동국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南京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교수. 저서로 『중국불교 거사들』, 『중국불교사상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분등선』, 『조사선』 등이 있다.

## 5산문학의 최고봉 젯카이 추신의 선시



원영상\_원광대 교수

중세 교토와 가마쿠라 각각의 5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5산문학은 일본 선종문학의 전성기를 말한다. 시문, 일기, 논설, 수필 등의 방대한 문학작품이 쏟아졌다. 한문을 자유 자재로 구사하며 격조 높은 한시를 쓴 젯카이 추신(絶海中津, 1334~1405)은 기도 슈신(義堂周信)과 함께 5산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사진 1. 젯카이 추신(絶海中津, 1334~1405)의 진영. 자제원慈濟院 소장.

그는 교토의 건인사와 남선사, 가마쿠라의 건장사에서 여러 스승들을 모시고 수학했다. 기도의 의발시자이기도 했다. 1368년에는 명나라로 건너가 중천축사, 영은사, 성호만수사 등을 역방하며 고승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대혜파

의 계담종류의 분향시자를 맡기도 했으며, 젓카이라는 도호道號를 받았다. 계담을 통해 4·6문의 한시 작법을 일본에 전했다. 명망이 높아 홍무제(주원장)의 초청을 받아 만나기도 했다. 1378년 귀국하여 일왕과 무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스승인 무소 소세키의 유적을 재흥하며 무소파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녹원원鹿苑院의 주지이자 승록僧錄으로서 5산과 임제종 사원을 총괄했다. 그의 저술로는 『젓카이화상어록』과 『초견고蕉堅藁』 등이 있다.

## 홍무제를 만나다

젓카이는 선승으로서 격동의 시대를 살며 높은 정신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중국 문화와의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선의 토착화를 위해 언어를 활용했다. 도속의 귀의를 받아 선종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선시는 맑고 높은 기개를 느끼게 한다. 시의 풍광 속에 유불선 삼교를 녹여내고 있다. 여기서는 앞의 어록과 시문집에 기록된 그의 시를 통해 5산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한문은 생략한다.

먼저 홍무제와 나눈 시다. 젓카이는 “구마노산(熊野峰)의 산록에



사진 2. 명나라 태조 홍무제 주원장.



사진 3. 구마노산(熊野山). 사진: DiscoverJapan.

서복徐福의 사당이 있고, 만산에 약초는 비온 후 널려 있네. 지금 바다 위 파도는 평온하고, 만리 호풍好風에 하루 빨리 귀국하면 좋으련만.”이라고 읊었다. 서복은 진시황제의 명령으로 동해의 봉래산에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하러 간 사람이다.

봉래산을 일본의 옛 신사와 고찰이 즐비한 구마노산에 비유했다. 그리고 명나라의 건국으로 중국이 태평성대 누리기를 기원하고, 홍무제의 장수를 염원한 것이다. 췌카이가 중국에 갔을 때, 막 명나라가 건국되어 질서를 찾아가던 때였으므로 외교적으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홍무제는 “구마노산은 높아 자손들의 사당이 있고, 송근松根과 호박琥珀이 참으로 비옥하군. 그 옛날 서복은 선약을 구하러 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라고 화답했다. 은근히 췌카이의 시를 인정한 것이다.

## 무심도인의 시경詩境

젯카이의 『초견고蕉堅藁』에 등재된 163수의 시는 무심無心과 무주無住의 경지, 자연 풍경, 유불도의 인물들, 인간사의 다양한 관계를 그리고 있다. 그중에는 따로 오도시를 제시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시 전부가 오도의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향엄격죽香嚴擊竹」에서는 “남양탑 아래 벽돌이 날려갈 때, 일격 소리 앞에 번뇌를 잊어버린다. 근래의 총림, 이 일이 없구나. 만산의 수죽脩竹 푸르게 널리 있네.”라고 읊는다. 수죽은 가늘고 긴 대나무를 말한다. 향엄이 하북성의 남양에 있는 무당산에 올라 혜충국사의 유적에서 안거하며 대오한 일을 떠올리고 있다. 5백 년 전 치열했던 당시 수행자들에 비해 쇠퇴한 총림과 나쁜 수행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오도의 안목으로 향엄과 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수는 선시의 단골 메뉴다. 자성의 체용이 산수에 비견되기 때문이다. 세속의 모든 인연은 구중의 산속에서는 티끌에 불과하다. 굳이 산속이 아니더라도 결가부좌한 그 자세로 산수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 젯카이는 여러 시에서 이 산수를 노래한다. “사람의 세상, 사는 동안 행로가 어렵구나. 한거閑居하니 구석구석 청산을 차지하누나.”, “몸을 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구함 없는 곳에 있구나. 스스로 이를 추인僮人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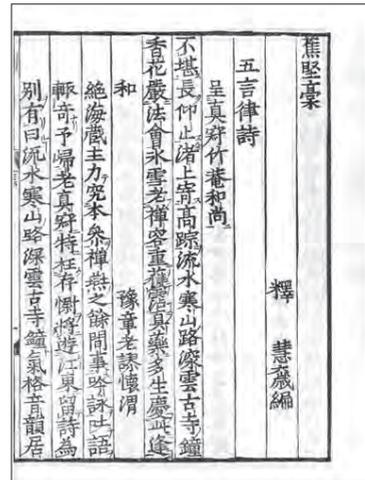


사진 4. 젯카이 추신의 시문집 『초견고蕉堅藁』의 원문.

하고 굳이 설 것도 없도다.” 추인은 교양이 없는 비문명인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번뇌나 욕망에 물들지 않는 소박한 사람을 뜻한다.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한가한 도인이다.

보다 깊은 선정의 심경을 읊기도 한다. 그가 사사한 중국의 선월禪月이 쓴 시에 운을 써서 다음의 시를 지었다. “한 암자에 일도 없고 오직 푸르기만 하다. 잣나무 열매 타다 남은 고불古佛 앞, 번개 같고 이슬 같은 심신, 참으로 잠시 머문다. 굴뚝새의 서식, 남은 세월을 보낸다. 초록의 쭉쭉은 창밖에 해는 높이 떴구나. 황조 소리 속에 한잠을 잔다. 나는 묻노니 산거山居 왜 좋아하는가라고. 산속, 이는 곧 사선전.”

자연과 하나가 된 암자에서 향 대신 잣나무 열매로 불전에 올린다. 덧없는 육신이지만 새소리에 묻혀 한숨 자는 자신이 선계仙界에 노니는 것과 같다. 산거 자체가 색계의 선정에 깊이 들어가 어떤 잡사에도 물들지 않는 선심의 생활임을 젓카이는 보여주고 있다.

## 명리를 버리고

명리에 대한 그의 심정은 〈산거〉라는 제목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명리를 구하지 않고, 가난을 염려하지 않는다. 은처隱處하는 산은 깊고 속진俗塵에서 멀다. 세월은 저물고 하늘은 차가운데 누가 친구가 되어줄까. 매화는 달을 품고 가지 하나가 새로워지는구나.” 한겨울 매화와 같은 고결한 수행자로서 권력과 명예와 가진 것에 구애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만년의 작으로 여겨진다. 나이가 들어도 도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는 그가 모셨던 기도의 작풍과도 닮았다. 기도는 “나이 오십에 쇠약

한 늙은이. 게으르고 못나서 조풍(祖風)의 계승에는 마음이 없다. 속객을 막는 폐문을 괴이타 하지 말라. 한적함의 맛, 봄이 무르익은 듯하다.”가 풍을 이을 생각마저 없을 정도로 심연에 든 무심한 도인이 된 것이다. 탈속한 수행인들은 부산한 세태 속에서도 조석으로 자연의 심경을 회복하여 일일시호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젯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와 이바라키에 숨어지낼 때, 청계(淸溪)화상에 게 화답한 시 또한 도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사 예전부터 변함이 많음을 애당초 일찍이 지금처럼 깨달았다네. 청산에 높이 누운 띠집 처마 아래 백운조차 이 마음 앓을 허락하지 않네.”라고 한다. 청산에 숨어 지내는 자의 허공 같은 텅 빈 마음에는 떠다니는 구름조차 자신을 찾을 수 없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는 허심한 경지가 표현되어 있다. 당시 청계는 같은 무소파로 원나라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천룡사, 남선사 등의 주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 진경의 세계

그렇다면 그는 진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언어로 설명 불가한 세계를 시는 어떻게 제시할까. “진리는 현경(玄境)에 녹아들고, 미언(微言)은 도근(道根)을 번성시킨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진리를 “현지우현(玄之又玄) 중묘지문(衆妙之門)”이라고 한다. 현경은 물아일여의 세계다. 언표가 불가능한 도는 그윽하고 또한 그윽하다. 모든 묘함이 출현하는 문인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언은 깨달은 자의 말이다. “그윽이 깃들여 참되게 사랑하는 곳. 삶의 이치 오히려 무료(無聊)하다. 한 번 웃고 진리의 주재자에게 묻는다. 백

넌은 어찌하여 적막한가.” 궁극의 경지에서 삶은 무상하다. 그 어떤 조물주라도 한 생은 그저 바람이 한 번 일어나 휩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조로써 삶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듯 그는 “신神의 이치 정통하여 그윽하면서도 그윽하다. 유서幽棲를 차지한 곳, 백운의 가장자리.”라고 한다. 사물의 현상에 접하면서도 그 근원에 합일하여 성상性相에 자유자재한 세계에 노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파란고해波瀾苦海를 뛰어넘다



사진 5. 아시카가 요시미츠 장군의 초상. 녹원 사麿苑寺 소장.

시의 세계에서는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10년의 유학 후 귀국한 뒤에 막부의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가 그에게 귀의했지만 직언을 하는 바람에 대립하게 되었다. 여러 곳으로 몸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후에 화해하여 다시 임제종 사찰에 등용되었다.

말년인 1399년 오에(應永)의 난이 일어났다. 젯카이는 요시미츠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의 진영에 가서 항복을 설득하도록 요청받아 실행하기도 했다. 그가 살던 시대도 영락없는 난세였다. 힘센 자가 권력을 잡는 약육강식이 여전했던 것이다. 불법은 과연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진 6. 건인사建仁寺 망꺠루望闕樓. 사진: 건인사.

더욱이 동아시아는 더욱 요동치고 있었다. 중국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고 있었고, 한반도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세력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외교는 상대방의 정세에 의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시기, 5산문학을 가꾼 선승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 유학승들의 역할은 일본을 수호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인문세계였던 동아시아에서 격조 높은 외교문서를 통해 선린의 관계를 다졌던 힘이 승려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젯카이 가 거쳐 갔던 사찰들은 5산문학의 요람들이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몸의 수행도 한결같았다. 1353년부터 12년 동안 교토의 건인사에서 수행하던 때, 폭풍과 한서에도 빠짐없이 좌선과 송경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지가 바뀌어도 그를 ‘정진당精進幢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그의 문하에 몰려든 수행자들은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교화했다. 틈나는 대로 『법화경』, 『원각경』, 『수능엄경』 등의 강의를 했다. 군중 속에서도 도심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절들은 황거(皇居)에 가까워 많은 귀인들이 놀러오고, 꽃을 보며 정원의 그윽함도 좋아하네. 선심은 아직 춘색에 지는 것은 아니네만 절마다 주렴은 걷어 말아 고리에 걸어놓았네.”라며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심경으로 그것을 지명하는 불법의 세계에 굳게 뿌리 내린 자신을 바라본다.

젯카이는 지세(辭世)의 송으로 “허공이 땅에 떨어진다. 화성(火星)은 어지럽게 날린다. 공중제비가 곤두박질친다. 철위산(鐵圍山)을 가까스로 지나누나.”라고 읊었다. 수미산 주위에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다. 가장 외연에 철분이 많아 붉게 보이는 산이 금강위산(金剛圍山)이라고도 하는 철륜위산이다. 그 밖으로는 우주의 끝이자 암흑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 산의 나락에서 공중제비를 하며 허공으로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천운으로 불법을 만나 우주를 품는 기연이 되었다. 무너지지 않는 불생불멸의 청정자성이 우주에 계합한 장렬하고도 호쾌한 일성이다. 卍

- **원영상** 원불교 교무, 범명 익선, 일본 교토 불교대학 석사, 문학박사, 한국불교학회 전부회장, 일본불교문화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일본어교육과 조교수. 저서로 『아시아불교 전통의 계승과 전환』(공제), 『佛敎大學國際學術研究叢書: 仏敎と社會』(공제)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일본불교의 내서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교훈」 등이 있다. 현재 일본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 연등글로벌네트워크, 룸비니에서 의료봉사 활동

지난 2020년, 네팔 룸비니 IBS 국제무료병원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의 MOU 체결을 계기로 국제구호협력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도 국제연등선원(Lotus lantern International Meditation Center)과 협력해 연등글로벌네트워크(Lotus lantern Global Network)를 발족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 룸비니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불교 성지순례를 병행했습니다.

혜달스님(강화도 연등국제선원 주지)과 일엄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인솔 아래 출국한 25명의 봉사단은 지난 2월 26일 네팔 룸비니 국제불교협회(IBS)가 운영하고 있는 IBS병원을 찾아 어린이용 비타민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전달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무료의료기관인 IBS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트리 스님(Ven. Maitri Mahasthavir)에게 병원 운영에 보탬이 될 보시금을 전달했습니다.

2월 27일에는 티베트 불교계인 ‘비폭력 세계평화 불교기구(Non-Violence World Peace Buddhist Organiz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야데비 고아원을 찾아 어린 동승들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신발 등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지스님에게 보시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1. 네팔 룸비니 소재 무료병원 IBS병원 의료봉사 활동.



사진 2. 마이트리 스님에게 IBS병원 기금을 전달하는 봉사팀.



사진 3. 네팔 마야데비 고아원을 찾아 기금을 전달하는 봉사팀.



사진 4. 룸비니 대성석가사 참배.

봉사활동을 마친 봉사팀은 룬비니 소재 한국 사찰 대성석가사, 성철스쿨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네팔 랑그람 소재 마야정사, 보드가야 소재 조계종 사찰인 분황사를 찾아 참배하고 네팔과 인도에서 전법에 힘쓰고 계시는 스님들께 전법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봉사팀은 부처님 탄생의 땅 룬비니,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전법의 땅 바라나시 녹야원,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 등 7대 성지를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등글로벌네트워크는 ‘남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설립된 국제봉사 및 구호단체로 성철스님의 문도사찰인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에 적을 두고 있는 국제구호봉사단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기점으로 매년 네팔 등 불교국가를 찾아 의료봉사 및 구호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남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사진 5. 네팔 랑그람 소재 마야정사 성철스쿨 참배.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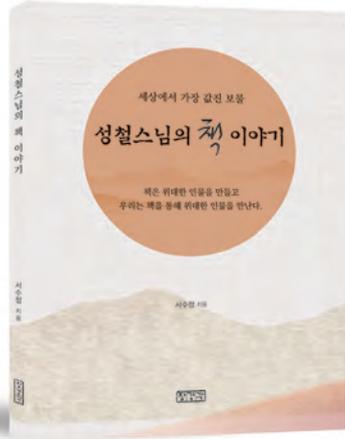
# 『성철스님의 책 이야기』

서수정 지음 | 신국판 변형 | 152쪽 | 값 15,000원



성철스님의 책과  
그에 얽힌 인연 이야기

한국 불교문헌의  
전승과 지적계보



- 평소 수행자들에게 “책 보지 말라!”고 호통치셨던 성철스님. 하지만 성철스님께서 이용하시던 백련암 장경각에는 1만 권에 달하는 동서고금의 명저들이 가득합니다.
- 장경각 서고에 소장된 성철스님의 책에는 ‘법계의 보물’이라는 뜻에서 ‘법계 지보法界之寶’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책은 법계의 보물이자, 성철스님의 보물이었던 백련암 장경각에 소장된 성철스님의 책 이야기입니다.
- 성철스님께서 보물로 소장하셨던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스님께서 애독하셨던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그 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철스님께서 소장하시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성철스님의 책을 통해 조선 후기부터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면면히 이어져 온 불교문헌의 전승과 지적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경』 구독 및 후원 안내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고경』을 후원해 주십시오.

### ◎ 본인 구독 또는 지정 기부

여러분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고경』을 직접 구독하시거나 군부대 등 불교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고경』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 후원 금액 및 방법

월납 : 매달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 : 매년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 본 페이지 뒷면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www.songchol.com](http://www.songchol.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고경』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농협 301-0126-9946-11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문의 : 『고경』 편집부 02-2198-5375

##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우리 곁에 왔던 붓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고경』을 군법당 등 포교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고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고경』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앞표지**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기원정사(Jetavana-vihāra)의 향실(Gandhakuti).  
하지권.

---

**뒤표지**

치유의 자모관세음보살님.  
40×30cm, 장지에 분채, 아크릴, 성민(2024).

# KOKYUNG 144

古 지혜를 전하는 말씀  
鏡 마음을 밝히는 수행



을사년乙巳年\_ 불기佛紀 2569년\_ 단기檀紀 4358년  
Monthly Magazine\_ April 2025\_ Volume 144  
[www.sungchol.org](http://www.sungchol.org)  
First published in May 2013\_ First 2013  
Buddhist Institute of Sungchol Thought (BIST)

